



# 북한산에서 4.19 정신을 되새기며

## 2천800 동국인 한마음 한뜻으로 친선과 화합 도모

4.19혁명 41주년을 기념하는 제 32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3일 북한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불참했던 총학생회와 직원노조를 포함해 교수, 직원, 학생 등 2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 수유리에 있는 4.19 국립묘지에 모여 4.19혁명 기념식을 갖고 4인1조부터 팀별로 출발했다. 이어 진달래능선을 지나 대동문, 보국문을 거쳐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등반했다.

송석구 총장과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함께 산을 오르며 답사를 나누기도 했다.

등반을 마친 오후 4시 30분경에는 각 팀의 장기자랑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기계공학과는 학과단체상을 수상했고, 등반 중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체육교육과의 '체육관지킴이' 팀이 4인1조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20명의 학생이 '21세기 지도자 연수'에 당첨돼 2박 3일동안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이날 송석구 총장은 "북한산에서 동국가족 모두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4.19혁명 당시 선두에 섰던 선배들의 긍지를 가슴에 품자"고 말했다.

또한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박정희 정권시절 한일혈전에 반대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김중배 선배의 기일이 오늘이었다"며 "김중배 선배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



사진/김영미 기자

회창한 날씨속에 진행된 등산대회. 오르막을 걷는 학생들의 얼굴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모두 밝은 모습이다.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 등산 대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남산 일원에서

개최되며, 접수는 오늘(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원호관 1층 학생복지실에서 받는다.

### 축구부, 춘계연맹전 출전 오는 20일 포원대와 첫 경기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19일부터 함평코리아배 전국 춘계 남녀축구연맹전에 출전한다.

한국교원대, 제주대, 안동과학대와 같은 조에 편성된 본교는 20일 건국대 축구장에서 한국교원대와 첫 예선 경기를 갖는다.

한편, 농구부(감독=최성오)는 내일(17일)부터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총 10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교는 1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단국대와 첫 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 미디어아트센터 내일 개관 영상대학원생 실습에 활용

미디어아트센터(소장=정재형·영화영상학)가 내일(17일) 개소식을 갖는다.

영상정보통신대학원 학생들의 실습수업에 활용될 미디어 아트센터는 디지털 영상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제작환경을 갖췄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아트센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내 첨단 시설을 이용한 디지털 영화, CF, 뮤직비디오의 제작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학교육 정상화 위한 국민대토론회

### 교육공공성 확보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전국대학교수회 주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발전계획안 철회 △교권수호를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비리 사학재단의 퇴진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했다.

발제자로 나선 덕성여대 성낙돈(교육학) 교수는 "재단이 학교를 사유물처럼 운영하면서 사학분규가 여러 학교에서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 박주연 변호사는

"사학재단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국회의원들마저 사학재단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수회는 오는 6월중으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경찰, 대우차 노조에 불법 폭력진압

### 경찰청 게시판 네티즌 비난글 쏟아져 한때 마비

지난 10일 부평에서는 대우차 노조원들에게 경찰의 불법적인 무차별 폭력진압이 가해져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건은 부평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대우차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진입에 대해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조원이 회사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막무가내로 끈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내리쳤다. 또한 '노조원의 노조 사무실 진입이 합법적이다'라고 경찰들에게 알리던 박훈 변호사도 끝판빠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평소 3, 40여건의 의견이 올라오던 경찰청 게시판에는 과잉진압을 비난하는 글이 하루만에 170여건 올라온 것에 이어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로 경찰청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

이에 13일 경찰청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인천부평경찰서장을 경질시키고 현장 관련자 전원을

문책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이 어찌다 사고친 일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탄·개혁실질을 수습할 정책대안으로 등돌린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녹원 이사장 20일 미국방문 로얄대학 학위수여식 참석

본교 오녹원 이사장이 오는 21일 진행되는 LA 동국 로얄한의원 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로얄한의원대학 학위수여식에는 오녹원 이사장과 더불어 송석구 총장도 참석한다.

오녹원 이사장은 학위수여식 이후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 도서관 진단과 전망

### 첨단화·전문화로 앞서간다

1962년 도서관이 지어진 이래로 39년.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증축과 전신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급변하는 지금 도서관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3회의 도서관 계획을 통해 현재 도서관과 신축 중앙도서관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 1 본교 도서관 진단
- 2 타대학 도서관 사례
- 3 외국대학 사례로 본 전자도서관

'동시통역과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장. 학생들이 소그룹별로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동학습실.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영도서실' 이미 몇몇 타대학 도서관은 첨단화를 표방하며 앞서가고 있다. 2002년 중앙도서관의 신축 완공을 앞두고 타대학은 도서관을 어떻게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사회과학도서관, 경영도서관, 법학도서관, 농학도서관, 치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등 총 7개의 도서관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도서관들은 분야별로 전문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수만 총 220만여권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음영도서실이 마련되어 여학 자료뿐만 아니라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클래식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양대=98년에 신축된 도서관인 만큼 최신시설이 돋보인다. 50여명 규모의 국제 회의장은 300여석의 대회의실과 3개의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미나실이 화상을 통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영어 등 4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겸비해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장실이나 자료실 출입구에 장애인용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각 자료실마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가 배치돼 학생들이 자료를 쉽게 찾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다.

△건국대=3, 4명의 학생들이 그룹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동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람실과 세미나실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학습실은 학생들의 소그룹 토론이나 조별모임에 이용되고 있다. 서울대 역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하대는 올해 학과에 들어간 정석 도서관에 공동학습실을 만들 예정이다.

△포항공대=신간도서관을 따로 전시해 새로 출간된 책들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신간도서관을 주제별로 분류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국내외 출판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주대와 강릉대는 전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도 일부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또한 포항공대, 서울대, 아주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필름, CD, 비디오 등을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처럼 타대학 도서관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개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학습실과 전문사서 배치, 음영도서실, 열람실 24시간 개방 등은 본교 신축 중앙도서관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 미당선생 유품 본교 기증 미공개 시작 2편 발표

본교는 지난 해 12월 타계한 미당 서정주 시인의 유품 중 일부를 기증받았다. 이는 본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미당 선생의 뜻을 기리고, 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미당 선생의 동생인 서정태 시

인은 이날 유가족 대표로 참석해 소장도서 430여권과 시작노트 10권 등 총 1만 2천 800여 점을 기증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시작 2편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과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유품들은 미당의 문학 세계와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며 "미당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 친구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요즘을 극장가에는 '친구'라는 영화가 화제다. 1999년의 '쉬리', 2000년의 '공동경비구역 JSA' 등이 세운 최단기 관객동원 기록을 이미 돌파했고, 이런 추세라면 최대관객동원 기록도 곧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영화가 이처럼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에 대한 동경과 향수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인간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이해관계'가 된 지 오래고, 그런 만큼 세상은 각박하고 살벌해졌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형제 못지 않게 소중한 존재가 친구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잠옷차림으로 만나도 흥겹게 웃으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며 떠나가더라도 내 곁에 혼자 남아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는 친구 말이다. 옛날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런 친구의 우정과 의리가 지꾸만 끊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일찍이 부처님은 "항을 잘 씹이어서는 한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할 것을 역설하셨다. 나쁜 친구란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며, 술을 마셔 방종하는 사람이요, 좋은 친구란 그런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끼리는 서로 잘못을 깨우쳐 주고, 선함과 덕행을 같이 기뻐하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버리지 않고 함께 도와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육방예경'에서는 위험에 처한 친구를 지켜주고, 병든 친구를 잘 돌봐주고, 친구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러주고, 친구가 죽은 후에는 친구의 가족을 돌봐주며,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도 하셨다. 영화 '친구'의 흥행이 각박한 인간관계에 도타운 정과 의리를 회복시켜주는 신선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고수동정

▲손석 (법학)=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에 참가 및 사회.

▲박준업 (산업공학)=지난 달 31일 서울대 LG 경영관에서 개최된 한국중소기업학회 정기총회에서 18대 회장으로 선출.

▲김철호 (한의학)=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HUGO 2001 국제인체계통학회 학술회의의 참가 및 논문발표와 '국제인체계통연구 정책결정회의' 참석.

### 일 립

중간고사 관계로 2주동안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7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 헤매지 말고 바로 오세요!

## 수 습 기 자 모 집

**모집인원** : 서울 캠퍼스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인터넷 기자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 4월 19일(목) 오후 5시

**선발방법** : 필기시험(상식과 기사작성 등)과 면접

**선발일시** : 4월 19일(목) 오후 6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 동대신문사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다음달 1일 정각원에서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다음달 1일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열린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법요식에서는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육의식도 거행된다.

한편, 정각원은 다음달 29일 오복원 이사장을 전제사로 모시고 수계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수·직원,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다양한 불교도 주간 행사 오는 23일부터 중도야

불교대학생회(회장=김대수·불교4)는 오는 23일부터 4일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중앙도서관 앞에서 불교도주간행사를 벌인다.

'마음청정 동약정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불상 주변을 청소한 후 불교대종불패 '이관사관'의 공연과 △생강엿 나누주기 △끓들 만들기 △봉축엽서 보내기 △크식사신 짝기 등의 행사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수 학생회장은 "불교도주간에 실시되는 여러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바란다"고 전했다.

### 중도, 철야개방 실시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철야개방을 실시한다.

철야개방은 도서관 4층 제 3열람실만 해당되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외부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의 자리맡아주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해온 '도서관 자리맡아주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동일 중구청장 초청강연 내일(17일) 덕암세미나실

행정대학원(원장=이상현·경찰행정학)은 오는 17일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주

제로 특별초청강연을 연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동일 중구청장은 서울과 자치구의 세원조정을 중심으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 분수대에 코끼리상 설치 20일 공사 마무리 예정

분수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교 상징인 코끼리상이 설치된다. 이는 중앙정원의 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체 공사는 오는 20일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여기에 들어설 코끼리상은 제작이 마무리돼 분수대에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좋은 경관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최상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입생 토의 평균 9점 향상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은 지난 2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의토의 점수를 발표했다.

올해 모의토의 전체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9점 향상된 385점으로 단과대 중에서는 문과대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 3일 925점으로 1등을 차지한 주세리(분과대1)양을 비롯한 성적우수학생들은 각각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매년 평균점수는 오르지만 시험 응시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모의토의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졸준위, 앨범·CD 업체선정 '세븐칼라' 디자인 97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문영수·토목4)는 지난 9일 공개 설명회를 열어 졸업앨범업체 '세븐칼라'와 CD업체 '디자인 97'을 선정했다.

이날 공개설명회는 △업체별 설명 △공개질의 △투표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투표결과 외에도 거리포평화에서의 설문조사내용과 실사작업 평가결과가 반영됐다.

이번에 선정된 졸업앨범업체 '세븐칼라'는 5월중 앨범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죽마고우와 함께한 해오름 한마당

## 총학, 지난 10일 출범식 개최 ... 교육환경 개선 요구 계획

제 33대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 해오름식 '환영의 봄'이 지난 10일 만해광장에서 2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해오름식에서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을 비판하며 총학생회와 단과대의 요구인에 대해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출발선언문을 통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고지는 학교측이 학생들을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하기보다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 이후 학교측에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6·15 남

북공동선언 지지·관철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도서관 제1열람실문제 해결 등을 학생들과 함께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등록금으로 납부하려 했던 쌀 11가마를 떡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주기도 했다.

해오름식 본마당에서는 △'아리랑' '홀' 등 민중 문예단의 공연 △6·15남북공동선언, 학원자주화투쟁과 관련한 영상물 상영 △단과대별 '새내기 뽀내기'가 진행됐다. 특히 '새내기 뽀내기'에서 신입생들은 자신의 끼를 맘껏 발휘하며 춤과 연극을 선보였다. 또한 민중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은 학생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됐다.

한편, 사전마당으로 진행된 새



민중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내기 농구대회 결승전에서 법학부에 49 : 48로 승리를 거둬 우승자가 체육교육과에 연장 점수를 차지했다.

## 원로교수 19인 심교수 사건 성명

### 투명성·공정성 보장 위해 인성평가 폐지요구

심회기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와 법과대 학생회(회장=손민환·법4)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명의 원로교수들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심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철(정치외교학) 교수를 비롯한 원로교수들은 지난 9일까지 몇 차례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해 심회기 교수 이외에도 김익기 교수 해임과 감사원 교수 징계가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수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성평가 폐지등을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심익섭 교수회장은 재단이 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회기 교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는 입장을 전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한 교수 서명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오복원 이사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과대 학생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연거푸 법과대 학장과 면담을 통해 심회기 교수의 공개 채용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동연, 오는 18일 전동대회 개최

### 비대위 인준·기독교 연합회 등록 심사 주목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우·전기4, 이하 동연 비대위)는 오는 18일 연화원에 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동대회에서는 △보궐선거 관련 보고와 비대위 인준 △동아리연합회 학자요구안 보고 △상반기 사업계획 인준 △신규 동아리 등록과 동아리 재등록 심사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동아리연합회는 지난달 30

일 진행하려던 보궐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취소되면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연 비대위 차원으로 △동아리 지원금 인상 △동아리방부족 해결 등 지난 임시 전동대회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동아리 5대 요구안으로 보고, 학교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도 신규 동아리 등록을 신청한 동국대학교 기독교연합회의 등록 심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동국사이버대학 설립 신청

## "특성화로 경쟁력확보 기대"

### 불교학·경찰행정학 등 특화전공 개설 계획

본교 가상대학이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동국사이버대학(가칭) 설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온 독립 가상대학 설립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동국사이버대학은 교수회관 2층 공간을 연구실로 확보하고 △불교 △예술창작 △경찰행정 △사이버 실무 4개학부에 8개전공을 개설해 1천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독립 가상대학이란 현재 부속기관으로 운영중인 가상대학을 확장해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한 대학을 의미한다.

지난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학사학위 과정 7개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교 등 총 9개 대학이 컨소시엄 또는 독립 가상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할 경우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시간

적·공간적으로 제약이 받던 직장인 등도 집에서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사이버 MBA를 개설한 아주대 경영대학원 역시 합격자 110명 중 91%가 직장인이었으며, 변호사 검사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266명이 지원했다. 이미 단독 독립가상대학을 설립한 경희대와 세종대도 지난해 신입생 모집결과 평균 3대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세종사이버대학의 경우 특화부문 전공인 호텔관광경영학, 만화·애니메이션학 등을 개설해 자체 스튜디오 시설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혼자 학습하면서 지루하기 쉬운 원격교육의 단점을 극복했다.

동국사이버대학의 승인여부는 앞으로 3개월동안 설립계획안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교육부가 본교의 시설설비를 검토한 뒤 11월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회전문대

### 홍두사미

0...얼마전 열린 총학생회 해오름식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다는데.

알아보니, 총학생회 해오름식 중간에 학생들이 먹다 버린 음료수 캔이나 피자봉지 등이 치워지지 않아 아침까지 나뒹굴었다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출범식에서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 부족으로 오점을 남긴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뒷풀이를 잘했으면 뒤처리도 잘 해야지"

### 미당 vs 열람실

0...얼마전 열린 신축 중앙도서관 기공식에서 영동한 풍경이 연출됐는데. 알아보니, 기공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한편에서는 신축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미당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열람실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념관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열람실만 있을 때 우리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나?!"

### 출입금지

0...투명! 학생들의 출입을 저지하라?

혜화관 출입구로 오가는 학생들이 정면으로 걸지 못하고 옆으로 걸어야만 한다는데.

이유인즉, 출입구 앞에 즐비하게 주차된 차들로 인해 학생들이 다닐 길이 없어서라고.

주차금지라는 글자가 바닥에 큼직하게 찍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버젓이 들어서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혜화관을 출입하려면 초특급 다이어트를!"

### 주문

0...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토의시험'이 있으나 마나하다던데.

50%는 시험을 아예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응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난으로 시험을 보고 급기야 성적표가 나와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자신의 영어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니.

이에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한 학생 알, "신이시여, 모의토의 시험에 들게 하소서(?!)"

부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온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4월을 보내는 방법...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의 불을 밝히고, 축원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학생실과 정각원에서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양의 모든 분을(개인/단체불문)대상으로 연등과 축원문(사연)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연등 부문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어 보세요. 효(孝), 사은(謝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통리기원, 합격기원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독창적인 등이면 됩니다.
- 감동적인 축원문 부문  
감사의 마음, 기원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잊을 수 없는 분에 대한 고마움, 자신을 일으켜 세운 스승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안했던 사람에게,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 1~2장) 분량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을 쓰시면 됩니다.

**시상내역**

	연등 부문	축원문 부문
으뜸상(각 1명)	상금 30만원과 상장	상금 20만원과 상장
버금상(각 1명)	상금 20만원과 상장	상금 10만원과 상장
아차상(각 2명)	상금 5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공모기간 및 접수처**  
2001년 4월 16일(월)~4월 24일(화), 계산관 1층 여학생실(사범대 옆)

**발표 및 시상식** 2001년 4월 27일(금) 오후 2시 불상 앞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6)로 문의 바랍니다.

정각원 · 여학생실

## 전 동국인 연등 달기 안내

불기 2545년 4월 초8일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생들을 자비광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올린 초라한 등불은 아무리 끄려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복종의 복은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인연복입니다. 정각원에서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 부처님 나라 이루는 희망의 등, 동국이 약진하는 정진의 등' 달기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극한 소원이 담긴 정성스런 연등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 접 수 기 간 : 4. 9(월) ~ 5. 1(화)  
• 연 등 접 수 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정각원  
• 연 락 처 : Tel 2260-3016 Fax 2260-3744

정 각 원

## 산업기술환경대학원 특강

- 강의제목 : 21세기 한국경제 진단과 중소기업의 역할
- 연 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 강연일시 : 4. 18(수) 오후 7시
- 강연장소 : 원흥관(E) 103 강의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온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4월을 보내는 방법...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의 불을 밝히고, 축원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학생실과 정각원에서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양의 모든 분을(개인/단체불문)대상으로 연등과 축원문(사연)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연등 부문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어 보세요. 효(孝), 사은(謝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통리기원, 합격기원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독창적인 등이면 됩니다.
- 감동적인 축원문 부문  
감사의 마음, 기원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잊을 수 없는 분에 대한 고마움, 자신을 일으켜 세운 스승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안했던 사람에게,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 1~2장) 분량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을 쓰시면 됩니다.

**시상내역**

	연등 부문	축원문 부문
으뜸상(각 1명)	상금 30만원과 상장	상금 20만원과 상장
버금상(각 1명)	상금 20만원과 상장	상금 10만원과 상장
아차상(각 2명)	상금 5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공모기간 및 접수처**  
2001년 4월 16일(월)~4월 24일(화), 계산관 1층 여학생실(사범대 옆)

**발표 및 시상식** 2001년 4월 27일(금) 오후 2시 불상 앞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6)로 문의 바랍니다.

정각원 · 여학생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안에 따른 문제점 논단

한반도 평화 해치는 불합리한 요구

올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43%(금액으로는 4억 4,85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내년에는 미군주둔비 분담 비율을 50%로 늘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20%정도 늘어난 1천 2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20%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현재도 주한미군 주둔비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과중한 분담금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비율은 1991년 16.8%(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2001년 43%(금액으로는 4억 4,850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무려 세배나 늘어났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이 매년 평균 30% 이상씩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국방비의 짐을 달기 는커녕 더욱 무겁게 지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이같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직접지원비 말고도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각종 조세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매년 막대한 금액의 간접지원비를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1999년의 간접지원비는 1조 2천억원을 넘었다. 이렇듯 한국민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직접 지원비) 말고도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군주둔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 20% 증액 요구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일본의 5배, 독일의 1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 미군 주둔비를 얼마나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강제·억지 희생

한국의 경우 미군주둔비 부담이 매년 평균 3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1994~1997년 사이에 연평균 57.3%가 줄었다. 일본은 1989~1996년 사이에 연평균 5.4%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00년에는 미국과 미군주둔비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국

이 미군주둔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가 매년 천문화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미국무기 도입에 낭비함으로써(1999년 한해에만 한국은 42억 달러어치의 미국무기를 도입하였고 현재도 부시정부는 10조원이 넘는 자국산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국민경제가 위기로 치달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2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민에게 최대한 희생을 강요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강도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은 1991년에 맺어진 '한미소과 5조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 특별협정(이른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소과 5조는 "미국은 (한국)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제공하는 데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과 5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맺은 한미소과를 어겨가면서까지 한국에 미군



박기학 민족화해지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주둔비를 부담시키는 편법적, 불법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군 주둔비 분담금 20% 인상 요구는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과 북이 분단사상 초유의 화해협력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당장 요구되는 것은 평화체제 수립이고 평화통일이다.

시대 흐름과 정면 배치

그러나 어리석게도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군 주둔비를 부담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소과개정 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액을 단호히 반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기도는 자주와 평화를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 앞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대학개혁에 교수 목소리 담아야

사립학교법 개정 ... 교수 위치 찾기 시작

우리나라 교육과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교수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하 민교협)는 지난해 10월 교수노동조합추진기획단을 발족해 5개월 간의 준비 끝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교수노동조합추진기획단 이성백(서울시립대 철학) 서울지역 부단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대학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비리는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노조를 설립해 교수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자는 스승이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교수노조가 교수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정 사무총장은 "교수는 현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계약제·임용제 등으로 교수들의 조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노조 결성이 아닌 교수협의회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수의 계약제·연봉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고 교육부는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정해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교수의 계약제·연봉제는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정적인 보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교수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연구성과 저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가시화된 계약제·연봉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교수노조(준)는 5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또한 교수노조(준)는 올해 8월중 교수노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교수의 노조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민교협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에 저촉된다"며 교수노조 설립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



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올해 안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이 불법단체로 출범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본교 교수회 회장 심익섭(행정학) 교수는 "현재 교수회는 단결권, 교섭권이 없지만 교수노조가 설립되면 대학운영에 교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의 단체로는 협의 자체도 불가능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학은 교수 일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평균 두 배에 이르는 39.7명이고 이

로 인해 교수들의 연구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덕성여대, 숭실대 등에서 불거져 나온 사학재단 비리문제로 대학개혁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전하고 학문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기본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 중 하나인 교수가 대학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사설**

**독자의 목소리 담는 대중언론으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요즘, 종이신문은 설 자리를 잃어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문해 본다. 이미 기존 일간지는 종이신문과 다르게 인터넷상에서 '웹진'이라는 또다른 형태로 독자들에게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 일간지뿐 아니라 이와는 차원이 다른 '오마이뉴스'와 같은 뉴스사이트도 너무나 친숙하다. 1년 전과는 무척이나 달라진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신문들도 앞다투어 '종이신문'을 인터넷에 옮겨 놓았다. 각 대학신문사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넷에 독자를 빼앗긴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대학신문들은 인터넷에 빼앗긴 독자를 어떻게 다시 찾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올해로 동대신문은 '창간 51주년'을 맞이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동대신문은 대학언론으로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대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무기로 기존 언론과는 다르게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들의 이탈문제를 비롯,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창간 51주년을 맞아 서울캠프 경주캠프 독자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동대신문의 모습을 여과없이 표현해 주고 있다. 우선 본교 독자들이 동대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는 '학사정보를 얻기 위해서(36.2%)', '무로이기 때문에(26.5%)', '습관적으로(19.6%)'라는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구독자의 46.1%가 뚜렷한 목적없이 동대신문을 읽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독자들이 동대신문을 찾아서 불만족의 영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동대신문 만족도 조사 역시 이러한 독자들의 성향을 보여준다. 전체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매우 아니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척도에서 지표기준 2.5의 2.42로 보통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속제로 남았다.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69.6%가 홈페이지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항목 응답자가 72.5%이던 것에서 2.9% 감소하긴 했지만 독자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본교 독자들의 98.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보면 1년간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는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준하여 동대신문은 네트워크 세대로 불리는 주 독자층을 고려해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와 개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시민이 곧 기자'라는 인터넷 실시간 뉴스 사이트 '오마이뉴스'에 일반 시민이 기자로 동승, 함께 만들어 가는 것처럼 동대신문 역시 '독자가 곧 기자'라는 생각으로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독자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길이며 동대신문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진 부분이다. 이를 위해 동대신문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신문 배부대에 놓여있는 동대신문이 남겨지지 않도록, 대학언론의 위기나 종이신문의 존재 여부가 거론되지 않도록 독자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대학 사회의 '공기'로 자리잡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무기로 기존 언론과는 다르게 사회와 대학을 비추기 위해 발빠르게 동약을 누빌 것이다.

창간 51주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동대신문은 '대중언론' 창을 그 한걸음 위해 발걸음을 띠고 있는 과정에 있다. 독자가 지적한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단점을 극복하는 동대신문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기대한다.

<b>동대신문</b>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백승석	이메일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김은선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발전기금 ARS 7000-119**

**작은 빗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거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국의 대작불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와 불국사를 건립했고,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선각자들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나라를 일으켜온 동국의 찬란한 100년!

지금 우리는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원력을 세워 이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려 합니다. 작은 빗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인연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그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오늘도 동국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 우리시대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2002년 전반기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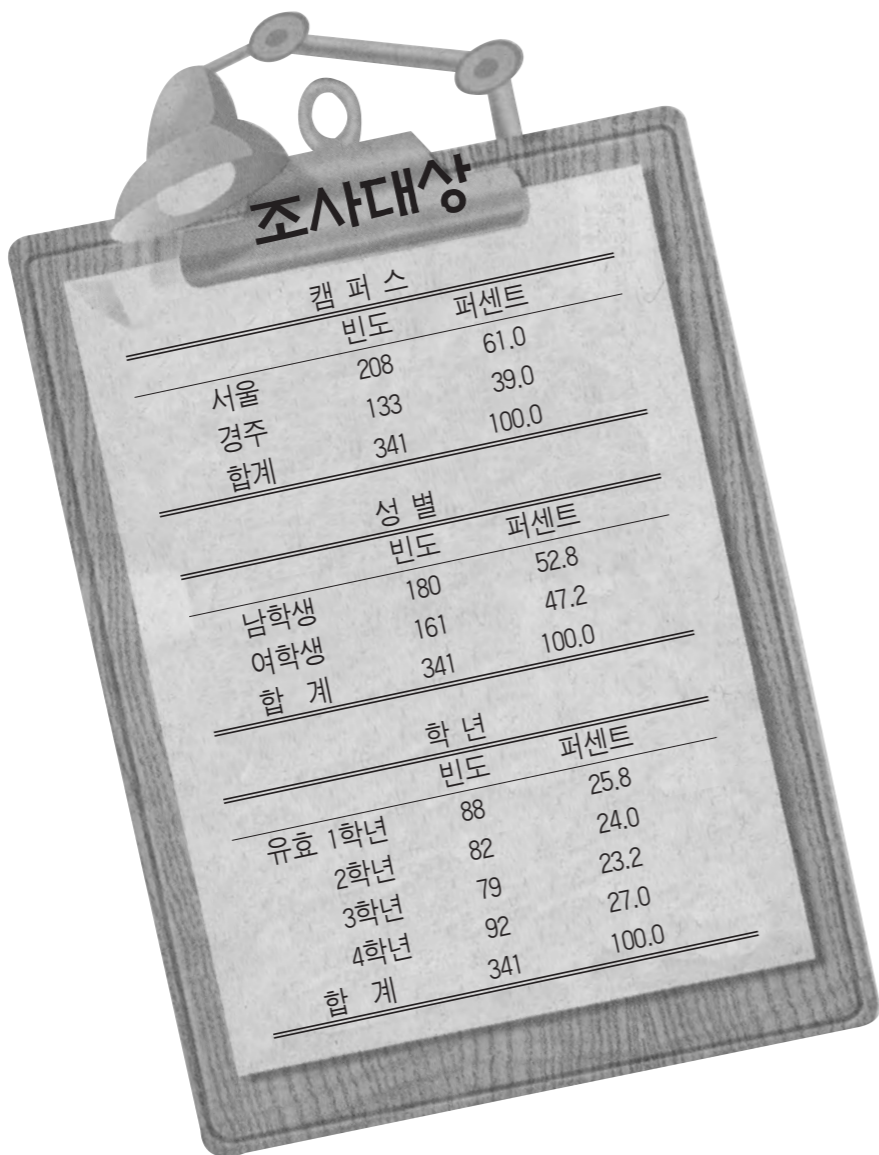
병원건립기금수시접수  
 동참문의 (02)2260-3300  
 ARS전화 (02)7000-119  
 직접방문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다수 학생, 언론 개혁운동 찬성

동대신문 창간 51주년을 맞아 본교 재학생들의 대중매체 선호도를 파악하고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교 대학원 사회학과내 사회조사학회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2001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구성은 전체 재학생 21,739명(서울 13,072명, 경주 8,667명)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5%의 허용오차 내에서 구성하였다. 표본은 캠퍼스, 단과대, 학년, 성을 기준으로 층화 표본 추출법과 할당법을 병행하여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캠퍼스는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를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경주 캠퍼스는 경주의 신문사 기자들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다.



## 대중매체

### ■ 이용매체

매체	빈도	퍼센트
신문	54	15.8
잡지	8	2.3
라디오	11	3.2
텔레비전	116	34.0
인터넷	149	43.7
기타	3	9
합계	341	100.0

(단위: 명, %)

조사결과 동국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응답자 중 43.7%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은 텔레비전 (34.0%)과 신문(15.8%)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 대중매체 이용 이유

이유	빈도	유효퍼센트
정보가 많아서	50	14.7
재미가 있어서	44	12.9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167	49.1
습관적으로	77	22.7
기타	2	0.6
합계	340	100.0

(단위: 명, %)

학생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있어서' (49.1%)이다. 그 다음으로 '습관적으로' (22.6%), '정보가 많아서' (14.7%) 순서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경우에는 제한된 선택권에 의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은 거의 무한대의 자료 선택권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신문

### ■ 주로 읽는 신문

신문	빈도	퍼센트
종합 일간지	215	63.2
경제신문	25	7.4
스포츠신문	100	29.4
합계	340	100.0

(단위: 명, %)

학생들이 주로 읽는 신문은 일간지가 63.2%로 다른 신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신문이 29.4%, 경제 신문이 7.4%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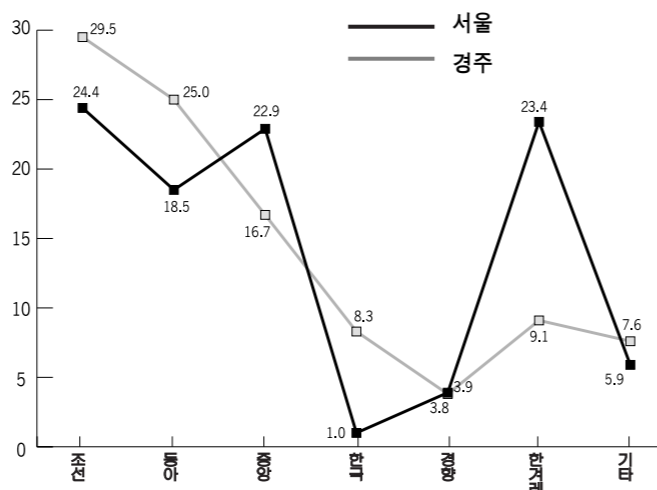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캠퍼스, 학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캠퍼스에 따라 주로 읽는 신문의 차이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의 비율이 높으나 경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먼저 캠퍼스를 고려하여 제일 많이 읽는 신문을 살펴보면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앙일보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주캠퍼스의 경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한겨레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편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구독율을 비교해 보면 1999년 조사에서 30.7%와 12.6%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26.4%와 17.8%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티조선운동을 비롯한 언론개혁운동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 캠퍼스별 가장 많이 읽는 신문



### ■ 학년별로 가장 많이 읽는 신문

신문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제일 많이 읽는 신문	조선일보	24	24	27	14	89
2	동아일보	21	16	12	22	71
3	중앙일보	24	14	17	14	69
4	한국일보	3	4	4	2	13
5	경향신문	3	1	4	5	13
6	한겨레	6	15	12	27	60
7	기타	6	7	3	6	22
전체	87	81	79	90	337	

(단위: 명)

학년에 따른 특징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비해 한겨레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구독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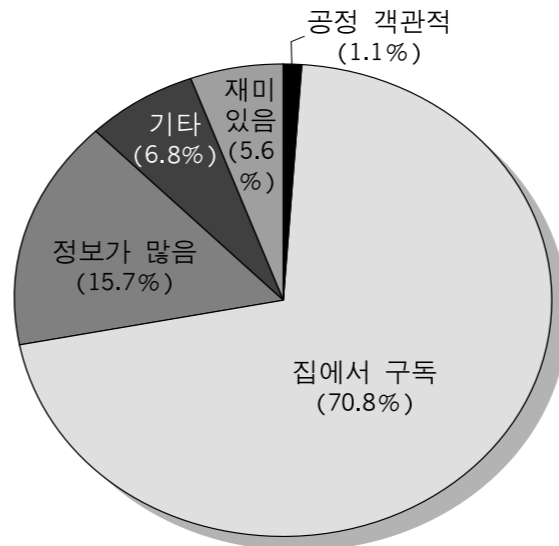
학생들이 이러한 신문을 많이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구독하기 때문(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16.1%), 공정 객관적이어서(10.7%)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신문의 지면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신문지면은 스포츠(25.3%), 사회(23.2%), 문화(22.3%), 정치(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 ■ 많이 읽는 신문에 대한 신문 구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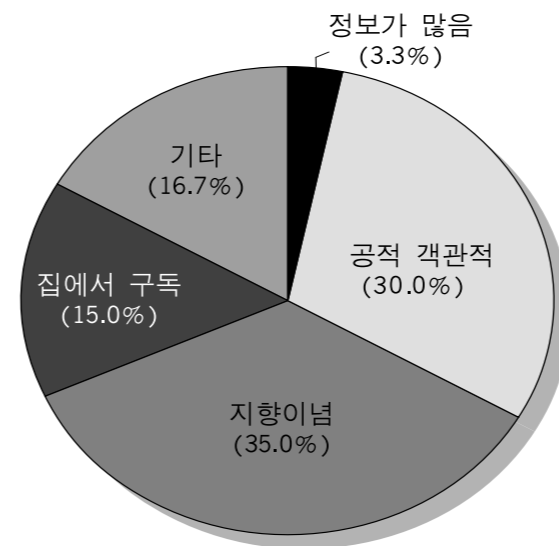
학생들이 주로 읽는 신문은 일간지가 63.2%로 다른 신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신문이 29.4%, 경제 신문이 7.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캠퍼스, 학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캠퍼스에 따른 주로 읽는 신문의 차이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의 비율이 높으나 경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종합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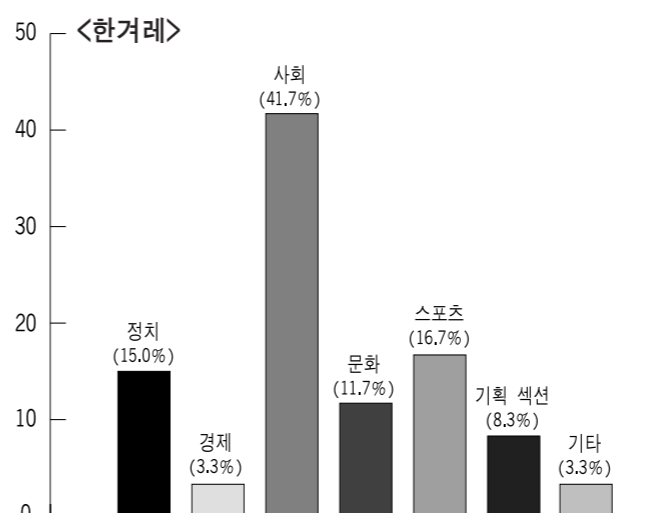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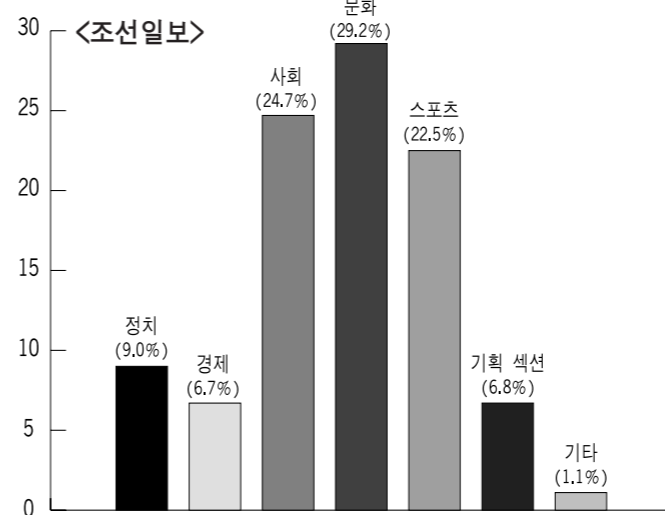
<조선일보>



<한겨레>

### ■ 신문별로 가장 많이 읽는 지면

제일 많이 읽는 지면을 교차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은 한겨레의 경우 사회면 (41.7%)을 가장 많이 본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신문들은 문화와 스포츠면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응답했다.



이상과 같이 대중매체 중 신문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종합 일간지를 읽는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차례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는 집에서 구독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지향이념이 맞아서'와 '공정 객

관적이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문에 따라 읽는 지면을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 스포츠 면을 많이 읽는다고 응답한 반면, 한겨레를 읽는 사람들은 사회, 스포츠, 정치면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신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 언론개혁운동

### ■ 언론개혁 운동에 대한 의견

의견	빈도	퍼센트
매우 찬성	72	21.1
찬성	245	71.8
반대	21	6.2
매우 반대	3	9
합계	3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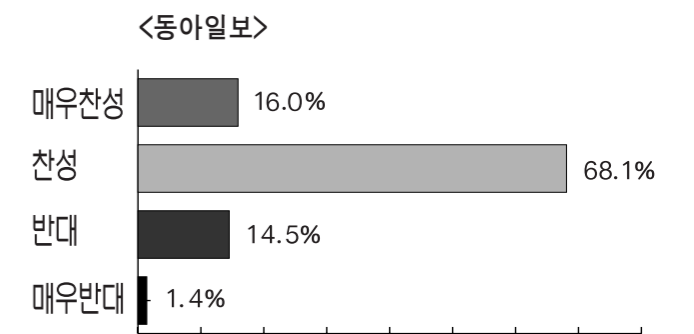
(단위: 명, %)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중 매우 찬성 21.1%, 찬성 71.8%로서 총 응답의 92.9%가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운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찬성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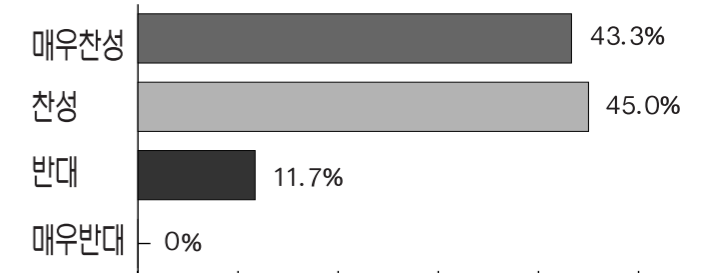
제일 많이 읽는 신문에 따른 시민단체의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한 교차표를 보면 한겨레를 읽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안티 조선 운동에 찬성하는 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읽는 학생들 중에는 안티 조선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문제점으로는 심한 왜곡 보도 (45.3%), 정경 유착(30.3%), 친일 행각(12.0%)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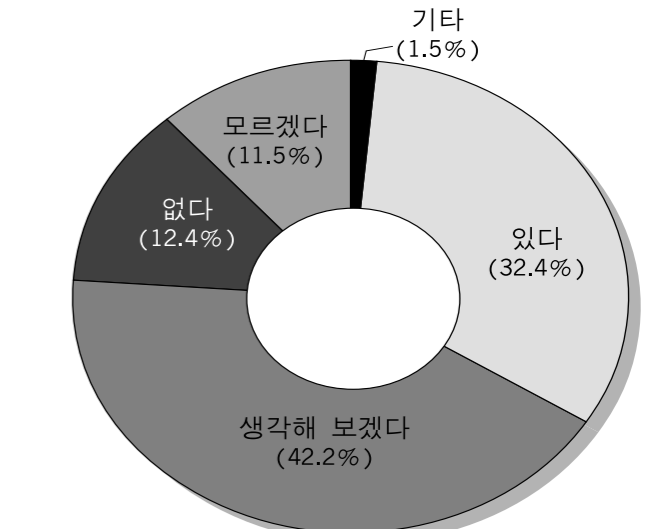
### ■ 읽는 신문에 따른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의견



<한겨레>



### ■ 조선일보 구독 거부에 대한 의견



학생들이 조선일보 구독 거부를 권유받았을 경우에 이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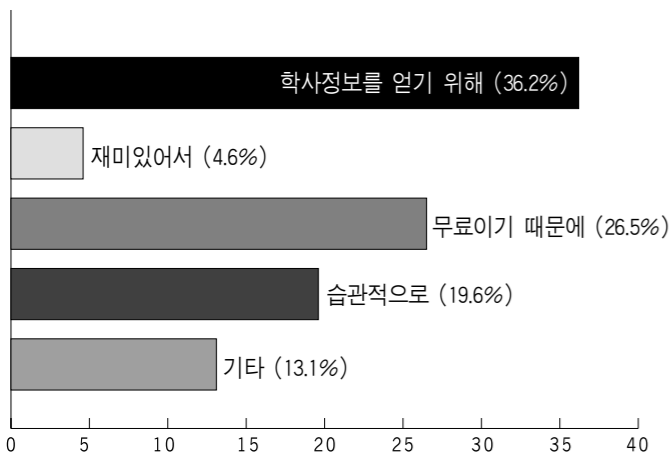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언론 개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주도의 언론 개혁 운동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언론 개혁 운동에 대해 75.2%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것과 같이 언론 개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운동이나 정부의 언론 개혁 운동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언론 개혁운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 조선 운동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있다.

# 대중언론 창출 그 한 길에서...

## 구독여부

동대신문 구독 여부는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7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23.5%라는 적지 않은 수가 동대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특히, 신문의 구독여부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의 경우 51.7%가 동대신문을 구독하는 반면 2학년 학생들은 79.3%, 3학년 학생들은 86.1%, 4학년 학생들은 89.1%가 구독하고 있다. 이것은 동대신문을 저학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동대신문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접근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대신문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는 저학년 학생들의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와 구독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별다른 홍보 없이 동대신문을 배포하는 방식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혹은 장소에 동대신문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다.

###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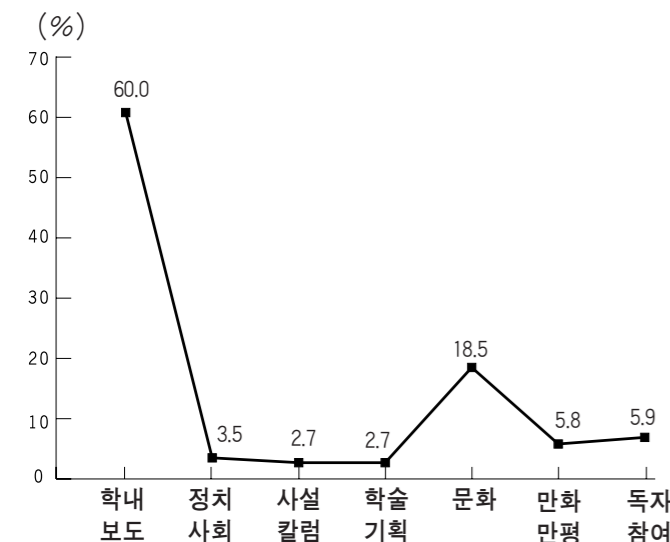
본고 학생들은 신문을 읽는 주된 이유로 '학사정보를 얻기 위해서'(36.2%)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무료이기 때문에'(26.5%), '습관적으로'(19.6%)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료이기 때문에'라는 응답과 '습관적으로'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데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동대신문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동대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동대신문의 전체적인 구독율을 높이는 측면과 연결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은 대개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학사정보이든 재미든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와 다른 매체에서는 전달해 주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 인지도

동대신문의 인지도는 기준인 2.5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어 학생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도의 각 항목에서는 정확성이 2.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공정성이 2.3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만족도

### 주로 읽는 기사



동대신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지수가 2.42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좀더 나은 동대신문으로서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기사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동대신문의 기사중 주로 학내보도(60%)를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교지의 성격인 동대신문에서 좀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의 두 번째(20.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동대신문이 학내 보도를 중심으로 한 학사정보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내보도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즉

###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91	35.7
정치사회	9	3.5
사실칼럼	25	9.8
학술기획	22	8.6
문화	53	20.8
만평만화	18	7.1
독자참여	37	14.5
합계	255	100.0

###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14	5.6
정치사회	76	30.2
사실칼럼	37	14.7
학술기획	39	15.5
문화	23	9.1
만평만화	32	12.7
독자참여	31	12.3
합계	252	100.0

### 좀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53	20.6
정치사회	46	17.9
사실칼럼	19	7.4
학술기획	33	12.8
문화	63	24.5
만평만화	16	6.2
독자참여	27	10.5
합계	257	100.0

### 개선되었으면 하는 기사

기사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학내보도	37	14.5
정치사회	62	24.2
사실칼럼	44	17.2
학술기획	36	14.1
문화	31	12.1
만평만화	11	4.3
독자참여	35	13.7
합계	256	100.0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에서는 학내보도(5.6%)가 가장 낮은 비율을,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의 가장 높은 비율(35.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동대신문은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다른 성격임에 분명하다. 즉, 학내 신문으로서 동대신문 정치 사회 혹은 학술 기획 등에 기사에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좀더 다루길 바라는 비율도 17.9%와 12.8%로 문화와 학내보도의 24.5% 20.6%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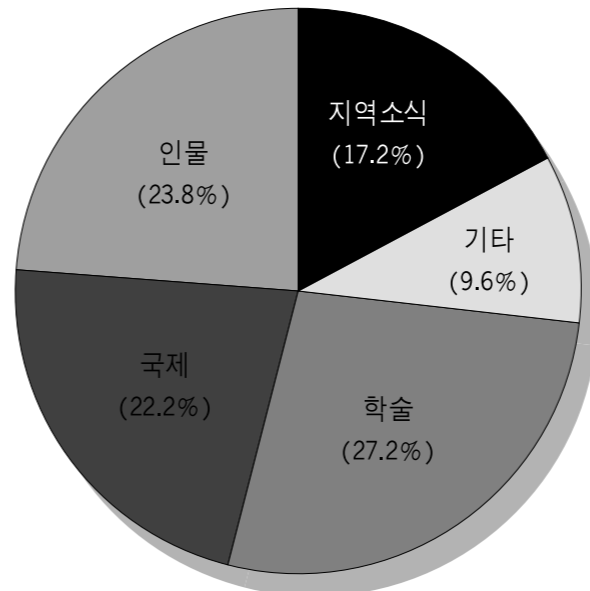
이번 설문에서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은 없었지만, 왜 학생들이 왜 현재까지 동대신문의 정치·사회 혹은 학술·기획 등의 기사에 대해 관심도 적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상해 보자면, 학생들이 학내 신문으로서의 동대신문에서 일반 정치·사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내 신문으로서 동대신문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낮은 목소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버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정치·사회 혹은 학술·기획 등의 기사가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강화부문

### 강화했으면 하는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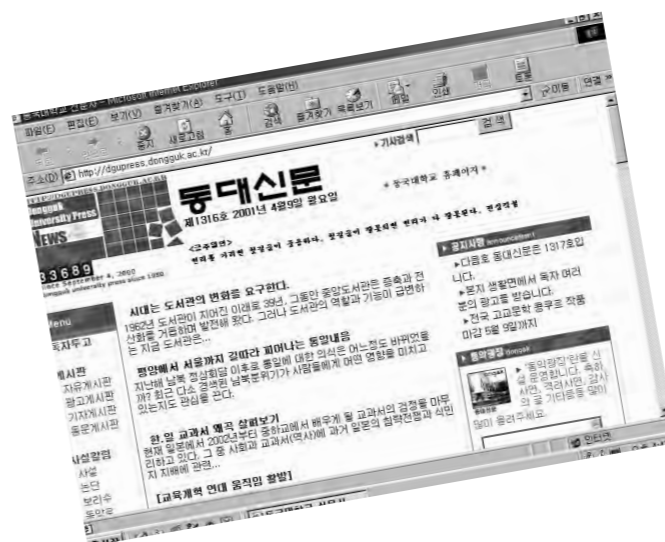


### 강화되었으면 하는 학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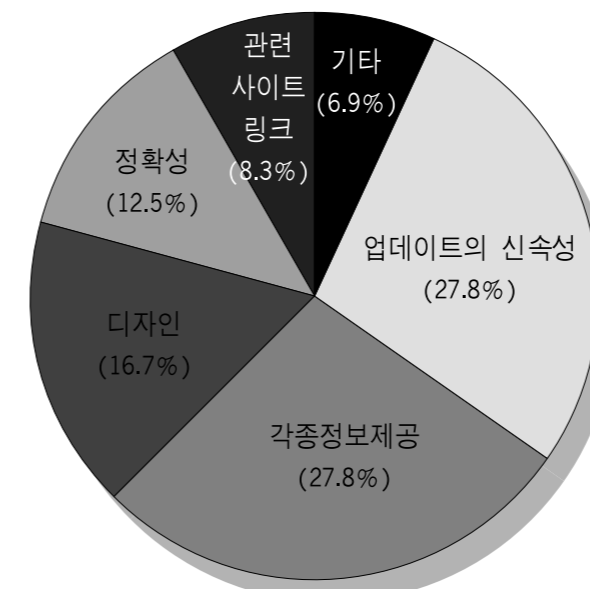
분야	빈도	유효 퍼센트
인문과학	27	22.4
사회과학	21	27.6
자연과학	23	30.3
예술기타	15	19.7
합계	76	100.0

이 중에서 학술부문에서는 이 부문을 강화했으면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가 다양해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샘플링에서 각 단대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비율을 더 늘려달라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대신문은 학술분야의 강화를 특정부분에 한정해 늘리기보다 각 분야를 골고루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 신문에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의 학술 관련 지면을 같은 비중으로 할당한다거나, 기획 시리즈로 인문, 사회, 자연, 예술을 돌아가면서 기사화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홈페이지



### 홈페이지 개선점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의 69.6%

의 학생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표 43). 앞으로 동대신문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대신문 홈페이지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사람은 8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기적이거나 아예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개선했으면 하는 부문은 업데이트의 신속성(27.8%)과 각종 정보 제공(27.8%)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디자인(16.7%), 내용의 정확성(12.5%), 관련 사이트 링크(8.3%) 등이 있었다. 결국 홈페이지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문은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독자 투고란에는 거의 글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에서 독자 투고를 한 학생은 6.8%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신문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은 홈페이지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존재를 아는 학생들도 전혀 접속하지 않거나 비 정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이처럼 동대신문 홈페이지는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홈페이지의 개선점을 신속한 업데이트와 각종 정보 제공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인터넷이었고, 저학년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동대신문 홈페이지의 인지는 표 47과 같이 학년이 낮을수록 동대신문 홈페이지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도는 높아지는데 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저절로 알게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동대신문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용하는 대중매체의 흐름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 종이 신문의 미래

전자 신문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종이 신문은 계속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8.9%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로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종이신문의 역할과 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99)



### 소나기

#### 화염병 던지려면 인권도 내던져라(?)



△화염병을 막으려면 인권도 막아봐라!  
인권이란 다름 아닌 싸울 권이다.  
△그럼 화염병 던질 권리가 '인권'과 대등하단 말이나.  
△오죽했음 던졌겠냐. 인권과 화염병을 동격으로 보지 마라.  
△화염병은 어디까지나 방어의 수단이지 공격의 수단이다. 화염병으로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시위에 칼을 씌어 더 수월치 않을까?  
△던지고 싶을 땐 던져라.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가? 이름을 밝혀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바란다.  
△화염병은 부패·부조리를 태우기 위함이다!  
△맛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화염병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화염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폐가 된다.  
△방법을 말해달라. 아바 없을 걸...  
△화염병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막는 지도 모른다.

△화염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시위는 싫어!  
△그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우리 부모님의 한숨을 던지는 것이다!  
△인권을 던지게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본질에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방법이 틀렸다면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화염병 던지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결국 문제는 양자에게 있다.  
△집회에 한번이라도 참여해 보셨나요? 왜 그 사람들이 협력집회를 해야했고 화염병을 던져야만 했는지...  
△벼랑끝으로 내몰린 자들이 던질 수 있는 것이 화염병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  
△화염병=너희가 마신 소주병  
△달라이 라마는 힘없어서 비폭력 투쟁하냐?  
△우리는 화염병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던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염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싫다.  
정말로...



## 동악광장

### 목격글

#### 축하합니다

△땡, 현종이 형! 4월 25일 태어난 거 42기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훈이형, 득남 축하해요.  
△변경수씨의 제대 축하. 제대했으면 얼른 나한테 인사 와라.  
△재영형, 켈리언니! 100일 축하해요. -초코  
△송, 시험 잘 본거 축하해... -다미네기  
△96학번 선배님들, 복학하신거 축하드려요. 그러구 열씨미 생활하시는 거 정말루 보기좋네요. -98 인·철 양경  
△4월 19일 정진우 J·J야~ 짜샤 생일 축하한다. -양익민 존재 세화가  
△윤정야! 늦었지만 동대신문 수습기자 된거 축하해. 열심히 해~ -형준이가  
△4월 16일 정·연 장재홍 선배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북한학과 98 지연언니 25일 생일 정말 축하! 내가 올해는 확실한 선물 마련해 왔으니 기대해도 좋아~^^ ♡하고, 앞으로 도 잘 살아보자!! -은영  
△새내기 법대 농구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연수기  
△경영학부 01학번 여학우분들 새내기 농구대회 여자부 우승 너무나 축하해용...

△명래오빠♡혜연언니 1000일 축하해. -알  
△33대 총학생회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구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리랑  
△동순 형 1차 합격 축하드려요. -97J  
△33대 총학생회 여러분, 해오름식을 축하드립니다. -이리랑

####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 집행부 선배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현 수고했다. 우리 웃기느라고 선희 언니! 우리 밥 먹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9일동  
△정의과 백상기 야구대회 수고했습니다. -끝내기  
△중어중문과 MT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엔 꼭 갈게요. -98  
△해오름제 추진하셨던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당  
△정보관리 집행부와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합한진오빠 사랑해요!  
-학구파 01이쁜이들  
△체교과 여러분 1주일간 새내기 농구대회 기 심판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학생회 연사

#### 열심히합시다

△축생축사 토토배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축생짱

### 박차옥경 (고고미술사 94졸) 대중과 함께하는 본사 출신 여성운동가

## “동대신문사에서 세상 보는 눈을 배웠어요”

“42기라구요? 내가 31기인데...”  
선·후배의 기수차가 10년 가량 된다는 것에 다소 놀라며 말을 건넨 박차옥경(고고미술사 94졸) 동문. 그녀는 본사 출신의 여성운동가다.  
“신문사 생활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회를 다르게 보는 눈을...”

기자가 되고 싶어 입사한 동대신문사에서 박차옥경 동문은 기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들을 얻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사회의 모순과 신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녀는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힘들어 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는 여

성문제에 관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법률제정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호응이 적은 것을 무엇보다 안타까워한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는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전화를 하는 여성들도 있어 곤혹을 겪은 적이 많아요”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다.

오는 7월이면 드디어 임마가 된다는 박차옥경 동문. 그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고급없는 고급증으로 사회에 대해 올바른 안목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snail11@dongguk.edu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사회 생활을 하는데 신문사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라며 후배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중인론 창출’의 한 길을 갔던 박차옥경 동문. 그녀는 지금도 여성들을 위해 그 길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여성들의 대변자로 더욱 빛날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연태규 기자

##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스승과 제자의 ‘대화’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 ‘종교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수업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영어의 특성상 학생들의 태도가 한국인인 우리가 보면 조금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의 자신 있는 ‘자기 표현’ 방식이었다.

학생의 실력이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서로의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 수업은 암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름의 논리를 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는 학생들의 의문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서 그에 따른 밝은 길을 제시해 줘야 하고, 학생은 솔직한 표현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인문학은 자기 표현이 필수적이어야 함에도 사실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의 세계관을 ‘너 어려서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한마디로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에게 책임이 있다.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평가는 서로 간의 대화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 공유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경래 (불교대 인도철4)

### 흡연문화 개선해야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흡연자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누릴 쾌적한 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캠퍼스는 도서관내에 흡연 구역을 정하고 곳곳에 ‘흡연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를 바닥에 버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피우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흡연자들도 마땅히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다. 몇 명의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학생들도 하나 둘씩 도서관으로 모여들 것이다. 더 이상 도서관 4층에 있는 흡연구역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

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자그마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뜻있는 흡연자가 되길 바란다.

이미라 (자연대 인전공4)

### 장애우에게 관심을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몇 명의 장애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때, 식판을 들고 밥을 받을 때 참 힘들어 보여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대부분 같은 장애인들끼리만 모여 다니며 지낸다는 점이다. 얼마 전, 혼자 외로이 걸어가던 장애인 친구에게 같은 과 한 친구가 반갑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봤고 그는 매우 밝은 얼굴로 인사를 받았다.

장애인이 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인이 서울대에 가는 만큼 힘들다. 왜냐하면 아무리 장애인 특혜제도를 마련해 줘도 그들이 받는 중·고교 교육시설은 극히 부실하고 그들의 신체 자제가 학습 능력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력 끝에 그토록 어렵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들의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다양한 측면 제시해야

평소 동대신문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서 읽는 면이 여론면이다.  
지난 호 여론면에서는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에 관한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

특히 학생들과 학교측의 생각이 대립되는 '쟁점'인 학생회관 개방에 대해서는 한변쯤 다뤄줄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 또한 논리적으로 잘 나타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학생회관 개방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앞으로는 필자도 극단적이기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잘 수렴한 제3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쟁점'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시각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그러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쟁점'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김 현 (문과대 문예창작2)



(제1316호 4월 9일자)

### 삶의 활력소 제공

지난 호 여론면 오솔길에 실린 '우승 신화 주역 사격부 주장'에 대한 기사는 우리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었다.

더욱이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고 무기력해져 가는 우리 삶에 생기를 북돋울 수 있었다.

앞으로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이런 기사를 많이 실어 동대신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면 한다.

김수정 (인문대1)

가족들은 마냥 축하해 줬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성격 탓이라고 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귀고 싶어도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느라 또 한편으로는 포기的心态에서 먼저 사귀고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우리들이 조금씩만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반감이 인사하고 도와 주자. 동정이 아닌 나의 똑똑한 통기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양시내 (법과대 법4)

### 추억을 되돌아 보는 여유

사람들에게 항상 들어오던 전설 속의 북학생 증후군 탓이었을까?

복학 후, 일대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학교 부근 외국어학원 초급 영어회화반에 등록했다. 그것도 새벽 수업으로 말이다.

유머가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용돈이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호호한 마음이 든 것도 잠시뿐이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백인이 코앞에 딱 하니 버티고 서자 용맹은 간데 없고 이 코쟁이가 말이

라도 걸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호호했던 마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정신은 혼미해져왔다.

그 날도 어김없이 불길한 기운은 현실이 되어 내게로 다가왔다. 'How are you?' 순간 나는 '아임 화인'이라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다는 그 외국인 강사의 입 모양을 보면서 한없이 뿌듯했다.

하지만 혹시 남다른 기분을 가진 학생이 실수라도 입에 'Bad!'라는 말을 담으려 하면 그 즉시 아메리칸 선생의 'Why?'라는 한마디에 사정없이 수그러들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금 반 수강생 모두가 숙없이 행복에 겨운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외국인을 보면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가끔은 난처했던 표정 속에 화인과 빠른 뒤에 모르던 천사 시절이 그리워진다. 만약 지금이라도 나쁜 기분을 살릴하는 한국어를 잊어버린다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취직난이다 경제난이다 하며 밀려드는 세상사의 우울함에 지꾸만 길들여져 가는 요즘, 후사나 하는 마음에 깨내 보는 부끄럽고도 호호한 추억이다.

김덕승 (관광대 호텔경영3)

### 만안글

#### 축하합니다

△진영아~생일 축하해. -정산 4학년 19811901  
△경상학부 A반 20012299 남영미 생일 축하. -81000-xxxxxx  
△가정교육과 3학년 최상은! happy birthday!  
△미려야 생일 축하한다. 23번째 생일을 슬기로. -회장  
△DY! 22살 된 걸 축하해. 오래살았네~. -히  
△성표형이랑 정남이랑 잘 사귀어봐요. -토함 전회장  
△유민이형! 신춘문에 당첨 축하해용!  
-동국 문화회  
△수정야, 민정야 스무살 생일 축하해. -관광대 클럽 짱  
△귀정, 남철야! 생일 축하해. 우리가 얼마나 너희 사랑하는지 알지? -겨레사랑  
△경제 95 윤성만 4월 28일 토요일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셔~~ -경제 95 성훈  
△플남야, 니가 생일을 맞았단 말이지? 축하해 줄 것 같냐? -막연의 둘째 黃  
△황지현 생일 축하해! 16일 그날을 기다리마. -국사 95 일동  
△23일 정영야 22th 생일 축하해... -지현  
△우리의 코지야! 생일 축하해. 4월 18일

하루만이라도 행복해라. -학우들  
△플남과 크리스탈 시의 생일을 축하해! 즐 착해지고... -곽

#### 수고하셨습니다

△서양화 이화번님들~ 맨날 밤샘한다고 수고!  
△학우감동 총학생회 집행님들 출범식 준비하시느라 무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요.  
△팔하모니 15기 집행님들! 춘계 MT 무사히 잘 끝내워서 고맙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필하모니 선배 일동  
△RCY! 하이길 갔다온다구 수고했고 짬나는 MT가 되도록 하자. -RCY 16기 핵  
△임마~ 아미리!! 요즘 한꺼번에 일이 많아서 힘들었지. 수고했다. 앞으로는 계속 쉬어라. 쯤~욱..^^

#### 열심히합시다

△남, 자랑스런 면허증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지... -베스트 드라이버  
△영임, 수진, 하영, 나! 모두들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합시다!  
△4공주 영원해라! 너네 이빠! 일여왕 혼자 다 해먹을거야! -키  
△21대 학우 승리 한의과대학 학생회 일원님들 힘내시고 교육환경 개혁의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절대원칙

△상돈야, 재석야, 열씨미 하자. -고시환  
△서울에서 살아가는 전산통계인들(정보통계) 파이팅! -94 야구보이  
△영임, 수진, 하영, 나! 모두들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합시다! 필? 공부~ ^^  
△회계 축구부 이졌다! ^^ 황팅!!  
△국문 3학년 happy하게 지냅니다. 파이팅!  
△은숙야~이번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평구

#### 그리고...

△재석야, 격리시키기 전에 인터넷 그만해라. -법 96 김  
△건봉 오빠 군생활 잘하구, 마음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알죠? -99정이  
△한의대 분과 2년 학우님들, 하나되는 동국한의 건설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성  
△국사과 98학번들 20일 졸업 앨범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안 짱은 98이  
△서울캠 허준오빠! 저요~ 감기 다 나갔어요~ -경아  
△국문 3학년 happy하게 지냅니다. 파이팅!  
△진구야! '친구' 보기로 했잖아. 언제 보여 줄까?  
-미나  
△경주캠 수습기자들 빠른 시일내에 꼭 만났습니다. -ppuz  
△해영야, 빨랑 결과 보고서 올려라. -고선  
△삼미언니 약속 못지켜서 미안해요. -ls

# 학내 구성원 신뢰 바탕으로 정론직필 한 길 가는 구심체로

동국인들의 의식과 목소리를 담아낸지 51년을 맞고 있는 동대신문에 700여명의 교수를 대신해서 축하인사를 전한다.

1950년 창간 이래 동대신문은 한국대학신문의 의미있는 젊은 지성지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전통에 빛나는 동대신문의 역사는 바로 면면히 이어져온 동국대의 모습 자체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한국사회발전의 거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정보화 또는 지식정보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동대신문이 대학여론의 구심체로서 중심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등의 정보홍수 속에서 대학정보지로서 동대신문의 정체성 확립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보혁명' 속에서 '정보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인간중심' 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전사회적인 개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대학은 총체적 위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경직된 구조에 몰입되어 있다. 왜곡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캠퍼스에 만연되면서, 대학구성원들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대신문은 대학을 걱정하고 구성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해야 하며, 동시에 신속한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의무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대학운영으로부터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인 대학문화 창조에 동대신문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잘못된 교육구조를 혁파하고 올바른 교육개혁 방향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들스러운 것은 동국인 모두가 여전히 동대신문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면승부를 펼치면서 정론직필을 실천하고 있는 동대신문 식구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미처 못다 한 말 때문에 늘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독자들은 행간을 모두 읽고 있다는 말로 위로의 말을 보내고 싶다.

심익섭  
서울캠 교수회장

# 역사의 혼을 불어넣는 동국의 등불로 우뚝서길

오십 일년, 반세기를 넘어 꺼지지 않고 타오른 불길이 있었기에 이 대학은 동국을 비추는 등불로 우뚝설 수 있었을 것이다. 무릇 역사란 새겨진 흔적이기에, 오십 일년의 글쓰기는 그대로 동국대학의 산 역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살아 있는 오늘날은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로 이루어진 지평에서란 그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념삼천' (一念三千) 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성불에 이르는 삼천 억겁을 응축한 오늘의 이 일념들은 우주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는 잘 어지는 잘 나가 결코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 비롯하여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는 길이다. 동대신문은 동국대학의 새로운 역사 창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동대신문에게 바란다.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학생들이야말로 동대신문의 진정한 주인들 아니겠는가. 비록 학생들에 '의한' 신문은 못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신문이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 '의' 신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문으로서 더욱 알차게 성장해가길 기원하면서, 동대신문 창간 오십 일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배의용  
경주캠 교수회장

# 동학의 죽마고우여, 참된 언론으로 거듭나라

동학 곳곳에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학생들의 웃자람과 발걸음이 한결 생동감 있고 가벼운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완연히 찾아왔음을 느낀다. 이렇게 좋은 봄날의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온 가슴으로 느껴며 동대신문 신 한 돌에 부쳐 2만 동국인에게 인사를 하게돼 반갑기 그지 없다.

동대신문 창간이 올해로 벌써 51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동국대를 다니는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 동국의 95년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우뚝 서 있는 동대신문! 이제 그 동안의 집결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참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우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과 쇄신을 이루어낸 동대신문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진보적인 대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학신문이 그동안의 숭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올곧게 이 사회를 밝혀내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왔던 점은 우리 2만 동국인이 자부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수록 우리의 사회인식과 사고관도 조금씩 바뀌어 왔지만 진리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 덕에 이 사회에서 대학이 분수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동대신문 또한 그 한 뿔을 푹푹히 한 탓에 2만 동국인에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다고 생각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동대신문은 지난 51년 동안 한결같이 이목 목매움을 지키며 터줏대감으로서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널리 드높이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도 얼마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동국대학교가 존재하고 2만 동국인이 살아있는 한 동대신문은 그렇게 멀고 멀고, 하지만 곳곳하고 의연하게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무릇 정보전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회의 정의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아무런 논조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신문이라면 사람들에게 의문당할 수 밖에 없다. 부디 동대신문이 2만 동국인에게 참된 언론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라며 진리의 진당이라 불리우는 대학에서 발간되는 신문답게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논조를 가진 참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홍민  
서울캠 총학생회장

# 끊임없는 고민으로 통일을 이야기해야

철천막 거례의 뜨거운 심장이 6·15 공동선언을 향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가슴속에 묻어둔 수많은 사연들과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목이 메이고 쓰러지는 광경을 우리는 분명 보았다. 철천막이 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한 분단이, 미국이 이토록 우리 민족을 짓밟아 왔다는 것에 놀라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우리 민족이 일어선다.

이러한 커다란 물결 속에서 창간 51주년을 맞은 동대신문사 기자들은 대중언론창출 그 한길을 가겠다고 외치는 가운데 대중언론활동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대중언론활동가의 지위와 역할은 자주민주통일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주민주통일의 주인공제가 되면서 대중언론활동가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자기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동대신문사 구성원 하나하나가 통일을 염원하고, 동대신문사라는 조직이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기자들이 만드는 '동대신문'이라는 지면을 통해 통일을 적극 이야기하면 좋겠다.

동대신문사의 창간 5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난희  
서울캠 생지대 학생회장

결단의 순간이어야 한다. 찰나를 순간으로 되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동대신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하라고, 글자 하나, 그림 한 획을 종이 위에 새겨 넣는 것은 곧 역사가 혼을 불어넣는 엄숙한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기사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야 동대신문은 동국대학의 새로운 역사 창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동대신문에게 바란다.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학생들이야말로 동대신문의 진정한 주인들 아니겠는가. 비록 학생들에 '의한' 신문은 못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신문이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 '의' 신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문으로서 더욱 알차게 성장해가길 기원하면서, 동대신문 창간 오십 일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 동대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축사

# 독자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획·소재 발굴에 최선을

먼저 2천 전국대학신문기자를 대표해 강산이 5번이나 넘게 변했을 긴 세월동안 언제나 대중언론 창출의 그 한길을 가기 위해 정열을 바쳤던 동국대 신문의 창간 5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까지 대학신문이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 보면 거센 급류 위 외나무다리를 타고 온 듯한 느낌이다. 정권과 자본 앞에 꺾이지 못한 기성 언론을 대신해 양심과 청춘을 걸고 정론의 길을 걸고자 했던 터라 무수한 탄압과 공세에 시달렸던 세월이었고 가슴 쓰리게 분노한 흔적을 담은 취재노트를 며칠 밤 원고와 싸움하며 인쇄까지 마음 졸이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고자 하지 않았던 대학신문의 노고 앞에 민중들은 '진보'라는 이름을 땀땀하게 불어주는 지도 모른다.

동대신문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 4월 '동대신문'이라는 제호로 첫 출발을 고하고는 올바른 지식인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담고 정권의 불합리한 부분을 소리 높여 꼬집어 냈으며 통일의 포문을 연다는 소명으로 방북 취재 사업을 힘차게 벌여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동대신문을 비롯한 우리 대학신문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급변하고 있는 민중의 정서를 따라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공부하고 뛰어다녀야 하며 신문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독자들을 위해 신선한 기획과 소재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 습득과 의견 표출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독자들의 정서를 수렴하기 위한 물적 체계 수립도 대중신문 창출을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준비 요건이다.

언론의 주인은 신문을 읽는 독자라는 생각으로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대중신문 창출의 '일대 도약'을 이루는 해가 바로 2001년 올해가 되어야 한다. 그 길에 동대신문이 선봉장으로 나서길 기대해 본다.

고윤정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이는 신문으로

적결과 더 나아가 그 구조적 대안 찾기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더욱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나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고민하면서 학내 구성 주체로 '지주적'이고 '주인된' 참된 '삶'을 만들어 가는 길을 힘 없이 달렸으면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기울일 줄 알며 학생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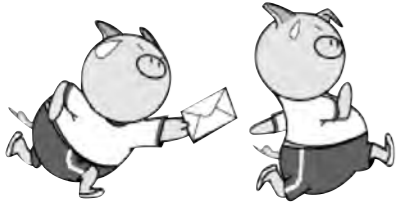
다시 한번 희망의 새세기, 통일의 새세기에 언제나 동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라며 동대신문의 생일을 축하한다.

황선민  
경주캠 인문대 학생회장



식당	일화	수목	금		
<b>동국관 학생식당</b>	돈육찌개 (1300)	설렁탕 (1500)	장터국밥 (1300)	참치찌개 (1500)	짬뽕국밥 (1500)
<b>상록원 학생식당</b>	열무비빔밥 (1500)	콩나물볶음밥 (1300)	치킨샐러드 (1500)	소고기카레라이스 (1300)	소고기볶음밥 (1500)
<b>상록원 교직원 식당</b>	돈간풍기백반 (1500)	장떡밥 (1500)	두부김치 (1500)	순살돈까스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b>경주캠 학생인관 식당</b>	참치김치찌개 (1300)	불고기백반 (1500)	오징어덮밥 (1500)	후랑크볶음밥 (1300)	김치찌개볶음밥 (1500)
<b>상록원 교직원 식당</b>	미트볼탕수육덮밥 (1500)	치킨볶음밥 (1500)	탕수육 (1500)	돈육계란장조림백반 (1500)	스파게티 (1500)
<b>상록원 교직원 식당</b>	우렁된장찌개 (3000)	조랑떡국 (3000)	참치전골 (3300)	버섯이채소밥 (3300)	속원자전골 (3300)
<b>경주캠 학생인관 식당</b>	돈육양념구이 (3500)	산채비빔밥 (3300)	돈까스 (3500)	오징어탕수 (3300)	닭강정 (3300)
<b>상록원 교직원 식당</b>	아육국 (1300)	미역국 (1300)	복어채국 (1300)	근대국 (1300)	된장찌개 (1300)
<b>경주캠 학생인관 식당</b>	돈까스 (1500)	열무김치비빔밥 (1500)	참치이채비빔밥 (1500)	미트볼덮밥 (1600)	양송이볶음밥 (1600)
<b>상록원 교직원 식당</b>	김치볶음덮밥 (1600)	전주비빔밥 (1800)	닭갈비볶음밥 (1700)	쇠고기볶음밥 (1700)	짜장덮밥 (1700)
<b>상록원 교직원 식당</b>	팔보채덮밥 (1800)	육개장 (1800)	낙지볶음밥 (1800)	스페니쉬푼잡 (2000)	탕수육덮밥 (1800)

(단위:원)



# 쉽없는 전진으로 다시 일어나라!

## 패기어린 실험정신 · 주체성 발휘, 대학문화 위기 극복으로 정체성 회복

동대신문이 동국인과 함께 해온 지도 어느덧 51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해도 다섯 번은 변했을 50여 년의 세월동안 대학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대학문화 역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동대신문 창간 51주년'을 맞아 90년대 대학문화 재조명과 2000년대 대학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90년대 신세대가 '자유'로 대변되어지는 서태지와 찢어진 청바지에 열광했다면 2000년대 N세대는 핸드폰, MP3 등의 '개인문화'에 열광한다

결코전, 유럽연합(EU) 탄생, 남성의 떨거진 고개를 들게 한 비아그라 발명, 북제약 돌리의 탄생, 아시아에 불어온 IMF바람,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테레사 수녀의 사망.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인 것만 같은 이 사건들은 지난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1990년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언제나 떠올리게 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말처럼 되돌아본 90년대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시대'였음이 분명하다.

대학문화에 있어서도 90년대는 큰 변화를 일으킨 시기였다. 7, 80년대 대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던 운동권 학생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이분법이 사라진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 10년이면 대학도 변한다?!

"싫어요!"

선후배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술'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선배가 권하는 술잔을 마다하는 후배는 버릇없다고 여겨지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소위 요즘 새내기들은 젊은 술을 억지로 마시지 않는다. 술보다는 '3·6·9'나 '마피아 게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며 '불편한 선배'보다는 '편안한 친구'와 또래문화를 만들어 간다. 90년대 신세대가 '자유'로 대변되어지는 서태지와 찢어진 청바지에 열광했다면 2000년대 N세대는 핸드폰, MP3 등의 '개인문화'에

열광한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 리포트는 어떻게 써요...?"

요즘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찾을 수 있고, 없는 게 없다는 보물섬 인터넷이 없다면 당장 불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확산된 것은 겨우 2~3년에 불과하다. 90년대 학번들만 해도 도서관을 드나들며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책을 산처럼 쌓아두고 읽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은 이러한 모습을 예전 드라마에서나 나올까한 장면으로 전락시키며 90년대와 2000년대 대학문화를 구분 짓는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 변함없는 화두, 미국문화

우리말 기사에 영자식 억양 액센트를 부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사랑'은 '샤랑'이나 '쇼랑', '저 바다에 누워'는 '저 바다에 누우워'로 발음하기에 이르다. '팝송 같다', '영어 같다'는 식의 미국화 경향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본지 제1104호

1992년 9월 2일자 -

92년도에 쓰여진 기사가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언어파괴

현상과 미국화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제기되기 때문이다. 주체적·자생적 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미국문화를 답습한다는 지적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섹시조 패션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개인적 욕망과 정서 등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소통하는 것이 대학문화다. 90년대는 대학문화의 위기라고 할 만큼 대학문화가 그 나름의 개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문화 속에 함몰되어 정체성 상실이라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2000년대의 대학문화 역시 이 상태로 간다면 90년대 대학문화처럼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000년대 대학문화는 패기어린 실험정신을 기본으로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손상민 기자  
neog292@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교육 이산



이승영  
경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대 한국사에서 이산이라는 비극은 우리 민족과 운명적 인연을 맺고 있는 듯하다.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저마다 극적인 사연을 지닌 채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이러한 이산이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결과였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산은 합의적 이산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이 이산한 사례가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 오래다.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가족과 애정으로 엮여 가는 일상 또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삶이며, 행복이며, 추억이다. 그러나 오로지 돈을 벌어 자녀와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기계로 전락한 가정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안전한 가정이 해체된 데에서 야기되는 삶의 '비정상성'은 우리 사회의 양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이다. 가족이 활기 있게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불이 켜진 집이 아닌, 어둠과 적막이 기다리는 썰렁한 빈 동지로 찾아드는 가정에게 그 다음날 활기있게 일할 에너지의 충전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또한 이 시대의 자발적 이산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그들의 존재는 '이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에도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 땅의 교육을 믿지 못하고 남들은 저런 고통마저 감행하는 데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족이 이산하지 않고 사는 '호사'를 누리며 살면 우리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혹은 아무리 벌어도 가족 이산을 가능하게 하는 외화송금은 턱도 없어 남들처럼 그러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주눅 아닌 주눅'이 들지진 않을지.

해외유학생의 숫자가 인구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해외 유학의 경비는 우리 경제문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런 이산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발적 가족이산을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남북분단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 가버린 한 많은 이산 희생자들은 무어라고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행복을 팔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김진열 감독의 '팬지와 달팽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변두리 서민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남편에게 구타 당하던 여성부터 음식 배달 아줌마, 철없는 술집 여종업원까지. 그들은 남성 중심의 세상을 향해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호소하며 몸을 던진다.

영화 '개같은 날의 오후'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여성들의 모습을 이제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은 서울여성영화제가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지난 97년부터 격년제, 비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이 영화제는 여성의 시각에서 다양한 삶을 그린 영화를 소개하고, 실력 있는 여성감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회 때 우수상을 수상한 장희선 감독의 '고추 말리기'가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16mm 영화로는 드물게 극장

에서 개봉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는 커진 규모와 풍성해진 내용을 자랑하며 지난 15일 막을 올렸다. 국내 단편으로 국한해오던 것을 아시아 단편으로 범위를 넓혀, 2회 때보다 20여편 많은 70편을 오는 22일까지 상영하는 것이다.

먼저 평범한 남도 여성의 일상을 포착한 김소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거류'가 영화제의 포문을 연다. 이어 뉴커런츠 △프랑스 특별전 △대만 여성감독전 △한국영화회고전 △쟁쟁 여성 영상공동체 △아시아 단편 경선의 총 7개 부문에 걸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퍼텍 나다에서 영화관이 벌어진다.

### 메이닝즈 강요 탈피 여성의 삶 살피는 다양한 시선

이 여성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뉴 커런츠'는 국제무대에 선보인 여성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해 세계 여성영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미국 캐린 쿠사마 감독의 '결과이트'와 카티아 뱅코우스키 감독의 세계 여성프로레투 챔피언의 이야기 '새도우 북서' 등 20편이 '뉴 커런츠'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특별전'에서는 '아네스 바르다'의 작품

7편이, '쟁쟁'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여성들의 기억과 경험을 그린 5편이, '한국영화회고전'에서는 60년대의 왜곡된 여성상을 보여주는 4편의 코미디 영화가 관객을 찾아간다. 그밖에 '감독과의 대화'와 여러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영화와 여성영화인을 만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쟁쟁' 프로그래머 김선아씨는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과 삶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획·홍보 스텝 안선미씨는 "앞으로 여성문제를 다룬 남성작가와도 함께 할 계획"이라며 "항상 열려있는 영화제에 그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이 남아있는 현 사회에서 여성들이 보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카티아 뱅코우스키 감독의 '새도우 북서'.

# 제39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 응모부문

시·시조 : 2 ~ 3편 이내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예선

방법 : 본사로 접수한 응모작 중 원고심사를 통해 본선참가대상자 선발  
제출기간 : 2001년 5월 1일 ~ 5월 9일  
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문의 : ☎ (02)2260 - 3491, 3492, 3149  
Fax (02)2279 - 1270

### 본선 입상자 특전

- ◆ 각 부문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 각 부문 우수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 3위(가작)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시 문학 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 본교 재학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주의사항

응모작품 곁봉에 '문학콩쿠르 작품제중'이라 쓰고, 참가신청서와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E-mail, 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홈페이지(http://dgupress.dongguk.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떤 펜을 선택하느냐는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문학콩쿠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39년간 우수한 작가들의 예비무대가 되어온 동국대학교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매체비평

인터넷 사이트편

ohmynews.co.kr

"뉴스 게릴라들의 반란, 초심으로 대안언론 이어가길"



24시간 리얼타임뉴스로 우리 사회의 진실상을 규명하는 오마이뉴스.

새로운 것의 출현은 늘 가슴 설레는 기대감을 동반한다. 여기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소시민의 해방과 민주화 확산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대감을 던져 놓는다. 바로 '오마이뉴스(ohmynews.co.kr)'도 그랬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가슴 뛰는 철학으로 1만여 명이 넘는 뉴스 게릴라들을 끌어 모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기자는 별종이 아니다. 새소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시민 모두 '기자가 된다. 기자의 문턱을 없애 버리고 시민을 제보자와 독자투고란에서 기자로 승격시킨다는 의도가 신선하다. 나도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유쾌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더 독특한 발상은 기사공식 파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디오 독자시연

으로 어울릴 것 같은 잔잔한 개인 일상사는 오마이뉴스 머릿기사로 손색이 없다. 사실 개인의 삶에서는 '남북회담 결렬'보다 '그녀와의 이별'이 더 의미 있는 사건일 수 있다. 더 이상 뉴스의 주변인이기를 거부하고, 작지만 소중한 주인공으로 나서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생활체험 소식만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상천외한 뼈대는 '각종 사회비리에 처절한 통증을 날리는 것을 임의로 삼는다'며 폭로와 저항의 문화를 선도하는 판지일보의 그것과 닮아 있다. 20세기 신문 문화와 철저한 결별을 선언하고 대안언론으로 발돋움 나선 오마이뉴스가 어느새 언론개혁의 선두에 서 있다. 더 이상 쓰레기로 변한 뉴스, 식중독을 일으켜 구역을 불러오는 거짓 정보들을 용

납하지 않는다. 권력과 자본으로 중무장한 추악한 언론을 향해 날릴 기세다. 이처럼 오마이뉴스는 24시간 리얼타임 뉴스로 우리사회의 부패지대와 특혜지대를 향해 불화살을 날린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하얀 백지를 현실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기성언론들의 공세를 이겨내고 고려대 강연을 앞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망한 표정들을 그대로 담아냈던 특종은 오마이뉴스의 엄청난 힘을 예고했다. 그러나 언론권력을 자랑하는 기존 언론사들은 오마이뉴스의 존재조차 부정한다. 오마이뉴스 기자의 인천공항 기자실 출입을 제재하고 '시민기자'라는 발상자체를 거부하고 나서서 것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가 대안언론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앞서, 기존 언론의 비뚤어진 '기자론(기자라는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특별함을 부여하는)'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의 다짐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와 뉴스 게릴라들의 반란은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빛나는 실험만이 오마이뉴스의 신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 성장과 함께 이루어낸 막대한 힘을 언론개혁에 쏟아 붓겠다는 오마이뉴스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명심하라!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김지혜 문화부장 wisdom@mail.dongguk.ac.kr

# 인식 변화 날개달아 새로운 장례문화로

## 죽음에 대한 학문적 성찰 '불교장례문화연구회'



이덕진 불교장례문화연구회 회장

전통 불교 장례법 연구를 통해 현대에 맞는 장례 의식을 정립하고자 본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불교장례문화연구회'의 이덕진 회장을 만나 장례문화연구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불교장례문화연구회'가 결성된 취지는. = 현행 우리 장례문화는 불교와 유교가 마구 뒤섞여 있다. 이것을 문제라고 보고 건전한 불교식 통과의례를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를 창출하려는 취지에서 장례문화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다. 또한 장례문화와 관련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상장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올해 2월 28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장례문화는 무엇인가. = 부다는 죽음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다는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도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의

물질적 요소인 색은(色蘊)과 네 개의 정신적 요소인 수온(受蘊)·상온(想蘊)·행온(行蘊)·식온(識蘊)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가 쓴 옷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我)'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물질적 요소인 오온을 '아(我)'로 착각하는 것이 된다. 불교에서는 '생사주멸반(生死涅槃)'이라고 해서 죽음을 생애의 과정에서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지금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www.kfci.net)를 통해 불교장례상담, 죽음관 연구, 타종교와 다른 나라의 장례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자원 봉사팀을 중심으로 장례에 대한 사례별 체험을 모아 활자화하고 비디오프로젝션을 찍을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불교장례문화학 개론이나 불교법요집을 펴내 불교 상장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상민 기자 neos92@dongguk.edu

## 매체의 눈으로 본 장례문화



영화 '죽제'는 죽음을 하나의 축제로 보고 있다.

사례(四禮), 관(冠)·혼(婚)·상(喪)·제(祭) 중 사례는 주검을 병풍으로 가리켜놓고 남은 이들이 벌이는 잔치, 즉 장례절차를 뜻한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장례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삶을 넘어 모든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런 장례의 모습은 여러 매체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죽제'는 87세로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의 삼일장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영화는 자막을 통해 남도의 장례절차와 의미를 안내하며 우리 장례식을 한풀이 난장과 대풍 마당으로 풀어낸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장례식을 끝이나 단절이 아니라 삶의 대물림을 위한 축제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청암 부인은 '나 죽은 다음에는 동

네 사람들이 후히 먹이라며 자기 제사날이 흥겹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소설은 상에 오르는 제수의 종류와 위치에서부터 사당에 신주를 모시기까지 상례의 모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그 중에서도 신주 모시는 과정의 풍토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영화와 소설이 전통 문화 속 장례를 나타낸다면 오늘의 장례문화를 이야기하는 매체가 인터넷 사이트이다. '중앙장례문화원(http://funeral21.co.kr)'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중앙장례문화원의 홈페이지로 △장례의 유래·절차·상식·용품 △장례행정·법규 △국공립묘지 △외국 장례문화 △장의정보센터 △추모공원 △자라실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통해 장례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새로운 영혼의 쉼터 '만불사 납골당'



만불사 부도탑(위)과 왕생당(아래).

흔히 무덤이라 하면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도깨비굴이 번쩍이는 으스스한 공간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경북 영천 만불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만불사 납골당은 전혀 색다른 풍경이다. 만불산에 이르면 우선 만불사 납골당에 다다르기까지 불거리가 많다. 산 정상에 위치한 국내 최대 높이의 '아미타 영천 대불'부터 스리랑카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보리수, 1천80개의 입불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광경을 뒤로한 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석가모니 진신사리 5과'를 따라 산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부도탑이다.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부도탑 뒤에는 전나무 한 그루가 수호하듯 서 있고, 앞쪽에는 상서 향로병이 단아하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 스님들의 육신을 대비한 후 나온 사리나 유해를 안치 할 때 사용했던 부도탑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매장문화와 화장문화가 절충된 형태라 볼 수 있는 부도탑은 시선이 안치된 무덤이라기보다 하나의 조형물 같은 느낌이다. 만불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한곳, 바로 '왕생당'이다. 은은한 조명이 가득 매우고 있는 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납골함이 안치되어 있다. 이 곳은 나지막한 불경소리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영혼의 쉼터로, 조상과 자손들이 만나는 성스럽고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영천 만불사의 납골문화는 현대적인 납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자연과 녹지대가 어우러진 만불사 납골당은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환경친화적인 삶의 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다. 또한 어류를 주식으로 하는 필리핀 원주민들은 죽은 후, 자기의 몸을 어류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수장'을 한다. 이 외에도 티베트에서는 자연으로 육체를 되돌린다는 의미로 조류에게 시신을 먹이로 내어주는 '조장'을 하고 있다.

### 우리 나라는 어떻게?

우리 나라는 유교식 장례문화가 보편적이다. 고유 명절이면 TV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성묘객들의 모습을 통해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선산이나 명당지리에 터를 잡아 조상의 묘를 쓰고 제사를 지내는 유교식 장례문화는 산업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 민족과 떼어 수 없는 전통문화이다. 이러한 매장문화는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지정된 공동묘지나 마을 산에 묘를 써 집단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최근 각계각층에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방단체가 '화장유연 서약'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고건 시장이 화장서약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 유교 등의 국내 주요종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화장을 선호하던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매장을 중시하던 유교 관계자들도 조심스레 화장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해 7월 기독교계에서는 대규모 납골당을 조성하는 등 화장문화 확산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실제 장례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의 경우 화장률이 98년 36.5%에서 지난해 49.5%로 13%상승한 것이다. 전국의 화장률이 아직 30%선에 머물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서울시 내에 환경친화적 공민개념의 종합 장묘시설인 '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TV 흡수평에 '가족납골묘'가 이색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사이버납골당'이 등장해 화장과 납골문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변화를 돕고 있다.

이제 장례문화는 더 이상 절차와 형식을 고집하며 거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맘자를 기리는 본질을 추구하며 죽음을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함께 이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빈 수레의 요란함을 자랑하지 않는 장례문화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표은영 기자 psik20@dongguk.edu

### 장례문화를 알려주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물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다양하다.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혹은 종교에 따라 각각의 장례문화를 영위한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 의식을 반영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신을 방부제 처리하여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장례 형식이 보편적이다. 장의사의 역할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타국에 비해 크다는 점이 특색이다. 스페인은 4-5m 높이의 아파르티스 콘크리트 묘실인 '니초(Nicho)'를 묘지로 이용한다. 이 아파르티스 묘실은 지상면적 1평에 평균 15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어 스페인을 묘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힌두교의 전통이 강한 인도에서는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게 보면서 영원한 자유로 가는 또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한다. 인도인의 80% 이상이 전통적인 화장법에 따라 죽은 뒤 3시간 안에 화장하며 그 재를 강물에 띄워보낸다. 그러나 활판, 수두, 사고사, 임신부, 동물 등은 이생에서 주어진 카르마(업)와 다르마(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여 화장이 허용되지 않는



## 메아리 '기초' 탈출

▲토요일 저녁 6시. 전국의 청소년들이 탈출작전을 펼친다. '악동클럽'이라 불리는 탈출작전은 '잡채된 끼를 발산할 곳을 찾아 해매는 학생들에게 그 꿈의 실현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방송은 처음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 학생들에게 '연예계 입성'이라는 미끼를 제공, 이에 참여한 학생들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단순한 불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얼마전 서울대가 200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공대와 자연대 신입생의 수학(數學) 기초능력평가 결과, 대상자의 7.7%가 30점(100점 만점)미만이고 당초 낙제판정기준점인 40점 미만은 22.0%로 나타났다.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기초능력시험의 경우 22.4%가 500점(1천점 기준)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려해 오던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현상을 사

실로 드러낸다. 비단 서울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 사정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 대학입시의 유일한 잣대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변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능에서 고득점만 획득하면 된다는 인식의 팽배로 이어져 학문의 본

질에 대한 고민과 학습보다는 수능 유형에 맞춘 학습방법을 택하는 학생들을 양산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객관식과 단답형에 익숙해져 버려 기본응용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능력을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가 오히려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매년 11월. 전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불리는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의 수학(修學) 능력을 평가해 대학

수업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대학입시 제도. 그러나 현 대학입시 제도는 본 취지와 달리 대학입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고등학교가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전락해 버린 지금, 정부는 현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표은영 문화부장 psik20@dongguk.edu

책소식

우리집 음식 동의보감



본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들려주는 바른 섭생법과 음식 건강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갖가지 음식과 한약재의 성질, 약효, 활용법을 그림과 함께 문답법으로 쉽게 풀어낸다.

정지천 저/ 중앙생활사/ 정가 9천500원.

유마경대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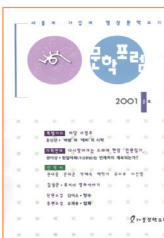


인간의 본질을 구원하려 노력한 유마거사와 같이 거사인 저자가 '유마경'을 강론 형식으로 풀어 놓았다.

집착과 편견 등의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탈한 무아(無我)와 불이(不二)의 윤리학을 실천한 유마의 정신을 통해 모든 인간이 아집과 아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내한다.

김기추 저/ 불광출판부/ 정가 1만2천원.

문학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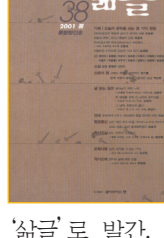


지난해 1월 창간한 이래 문학과 영상이 만나는 새로운 지평을 꾸며온 문학포럼의 2001년 봄 호.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한 본교 출신선 교수의 글과 영화 속 여배우 스타시스템에 대한 본교 유지나 교수의 글도 만나볼 수 있다.

이광본 편/ 서울문화포럼/ 정가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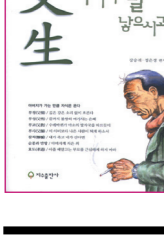
노동자 문예 삶글



전국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노동자문화회의의 소책자를 통합해 묶었다. 주로 노동자문화회 '삶글'의 제호를 이어 받은 것이 노동자 문예 '삶글'로 발간, 노동자문예의 꾸준한 역사성을 표현한다.

송경동 편/ 삶이 보이는 창/ 정가 8천원.

부생(父生), 아버지 날 낳으시고



경제체제와 실업대란 속에서 흔들리는 아버지들의 모습과 자리를 재확인하고, 묵묵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책. 우리 아버지의 모습

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며, 동·서양 고전과 현대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강승기·정은경 편저/ 지수출판사/ 정가 9천500원.

변화의 두려움을 사랑하라



평생고용, 평생직장이 사라진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력관리 방법을 소개, 스스로를 컨설팅할 것을 당부한다.

사회 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인생 로드맵과 자기 기량과 경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유수신 저/ 풀빛/ 정가 8천원.

전시소식

불교사진연합회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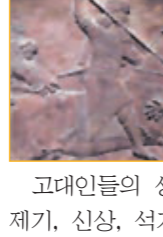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사진연합회가 제6회 회원전을 연다.

각 사찰의 모습과 사찰로 이어지는 길의 아름다움, 연꽃의 우아한 자태 등 부과 인더에 담긴 부처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1차 전시=오늘(월)부터 21일까지. 총무로 후지포토씨롱에서. 문의 2273-5480

2차 전시=오는 24일부터 5월1일까지. 견지동 조계사 경내에서. 문의 725-0641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전



'인류최초의 문명 발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이 경주를 방문했다.

고대인들의 생활용품을 비롯해 귀금속, 제기, 신상, 석기연장, 점토판 등 720여점의 메소포타미아 유적이 전시되고 있다.

헬레니즘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1세기 로마시대 모자이크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 이번 문명전은 인류최초의 문명이 한국고대 유적지와 어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6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특별전시관에서. 문의 (054)745-0944

한국의 옛 벼루전



옛 선비들의 필수품인 문방사우 가운데 하나인 '벼루' 전시전이 열리고 있다.

포도연, 일월연, 신수연, 오동연, 봉황연 등 조선시대 벼루 총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그 재료와 종류, 생김새가 다양해 선비들의 애장품으로 사랑 받던 벼루 예술을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6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기획전시실에서. 문의 (054)745-0944

동방문화전



신라역사와 우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체험의 장이 열렸다.

도입영상, 뮤지엄 샵 등 7개 전시관에서 한국복합서화와 신라도자기가 전시되고 있다.

또한 팔만대장경 탁본과 신라토기, 도자기 제작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시각에만 의존하던 전시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동방문화관에서. 문의 (054)745-0944

문화이미지전



인류역사의 흐름을 문화탄생, 문화상승, 문화상실, 문화복원의 4단계로 나눠 그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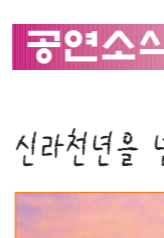
세계 유명 유적과 그 의미를 한눈에 조망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가려졌던 역사의 비밀을 밝히고 있어 그 의미가 새롭다.

인간의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문명괴괴의 현장을 통해 미래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새천년의 숨결관에서. 문의 (054)745-0944

공연소식

신라천년을 넘나드는 가상공간



천 년 전의 세계가 다시 깨어난다. 월성, 안압지, 석굴암, 첨성대 등을 무대로 고대 신라가 새롭게 펼쳐진다.

입체음향 시스템과 상황에 따른 각종 후각기능, 더불어 저주파로 흔들리는 의자의 첨단기술이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세계최대 한국최초의 가상현실 전용극장에서 역사체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엑스포공원 사이버영상관에서. 문의 (054)745-0944

동아리 탐방 - 경주캠 동국볼링클럽

퍼펙트 게임만큼 값지고 힘찬 정열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볼링 대회 개최하기도

하나, 둘, 셋 구령 소리에 동반된 신발의 마찰음.

매주 화, 목요일이면 경주캠 학생회관 4층 복도에서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동국 볼링 회원들의 자세 교정 연습 소리다.

동국 볼링 회원들의 활동적이면서도 신중함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 자리에는 물씬 배어있는 땀내음이 있다.

그들은 평소 볼링의 두 가지 기법인 스트레이트와 훅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기법에 따라 스텝과 볼의 세기도 달라지지만 결국 스트라이크의 유무는 올바른 자세와 집중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동국 볼링인들.

87년에 창단된 동국 볼링클럽은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수상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작년의 경우 동국볼링클럽 주최로 열린 '제13회 백상배 전국 대학생 볼링대



지난해 10월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OB전에 참가한 동국볼링회원들.

회'에서 남자 신입부 1위를 차지하고 '제9회 문수배 전국 대학생 볼링대회'에서 여자부 1위를 따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수상 비결에 대해 박성빈(경영2) 회장은 "지도 교수님과 졸업 선배들의 세심한 가르침 아래 우리는 단 한 번의 게임이라도 알차게 소화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또 이들은 동아리 홍보를 위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볼링 동아리, 교내 과동아리 등과의 교류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오는 2학기 개최할 예정인 '백상배 대학생 볼링 대회'는 올해로 14회를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이며 그간 경주시 볼링 협회와 연계해 진행해 왔다. 여러 해 동안 이 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친목을 도모한 것이라고 한다.

대외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 회원은 "우리는 학교의 이름을 건 행사인 백상배를 위해 전 회원이 반납 가지 않고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며 학교측의 동아리 지원 부족을 아쉬워했다.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아리 홍보와 하이 게임에 필수적인 집중력 연마를 위해 매일 땀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동국 볼링클럽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본다.

형진우 기자 premier@mail.dongguk.ac.kr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 III**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험**  
주먹 쥐 양 손 엄지를 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하고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공부**  
양 손을 펴서 옆으로 앞뒤로 2~3번 흔든다.

**열심히**  
주먹 쥐 양 손의 엄지를 펴서 허리 옆에서 앞으로 힘있게 내민다.

**해야지**  
한 손은 손등을 보이고 다른 손은 손바닥을 보이며 서로 약지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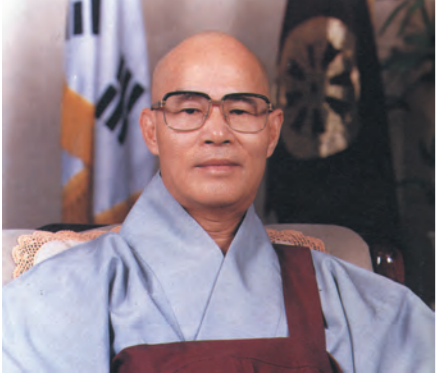
(제공: 손짓사랑회)



연등만들기 ... 불교학생회는 지난 14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재학생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연등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기난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물인 초라한 등불은 아무리 고려해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만드는 사람의 지극한 소원이 담긴 색색의 연등이 정성스레 완성되고 있다.

개교기념 이사장 치사

자비는 본교 건학이념의 기초  
동국정신 재발견 · 창조적 계승이 우리의 사명



이제 개교 100주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지난 백여년을 지탱해온 동국정신을 재발견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국정신의 뿌리는 불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의 전통 사상에 있다 할 것입니다. 불교 정신의 근본은 모든 존재가 서로 상의 상관 관계로 존재한다는 연기설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와 인생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밝은 지혜와 모든 존재와 생명에 대한 따뜻한 자비 정신이 곧 본교의 건학 이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 95주년을 맞는 우리 동국인들은, 개교 당시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염원했던 교육 이념을 이 시대에 다시 펼쳐야 할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학문을 창출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한국 불교의 정통을 잇는 긍지와 자존심으로 동국의 전통인 인문학과 한국학의 학문을 계승하면서도, 첨단 과학과 의학 등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불교의 다양한 응용 방법을 모색하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는 위대한 대학으로 발전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대한 원력으로 대학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송석구 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들의 뜨거운 애교심과, 특히 오늘 장기 근속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부처님의 크신 가피 아래 동국대학교와 동국인 가족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복원

개교 95주년 기념 송석구 총장 인터뷰

“백척간두진일보 정신으로 동국중흥이룩”  
첨단과학분야 집중 육성 ... 국내 3대 사립대학 복원을 목표로

개교 1세기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동국발전'에 대한 전 구성원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제는 본교의 첫마음인 건학이념을 되새겨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할 때이다. 본교 송석구(철학)총장은 지난 95년 취임한 이래 99년 연임되어 현재 두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송석구 총장을 만나 재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 개교 95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 드디어 개교 100주년이 5년 앞으로 다가왔다. 1958년 본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43년 동안 목련인덕을 오르내린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교수로서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정년퇴임을 하게 돼 무척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동국학원이 명진학교로 출발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근래 10년간 침체기로 인해 대학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바람 끝에 서있는 마음으로 더 이상 동국대가 뒤쳐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일해온 것이 가장 뿌듯하다.

- 2006년이면 본교가 개교한 지 100주년이 된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100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는 10여년 전 기념사업회를 발족,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개교 100주년까지 본교의 목표는 40~50년대 초반 우리대학이 가졌던 우리나라 3대 사립대학의 위상을 복원하는 일이다.

특히 본교가 3대 사립대학에 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산불교병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문학 중심으로 성장해온 본교가 첨단과학분야 육성에도 앞장서지 않으면 대학이 발전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을 인식, 제3캠퍼스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 한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정실을 배제하고 7, 8년 전부터 전 교수를 공개로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 질적인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동국인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정보문화관과 상록원, 90주년 기념관 건립에도 신경을 썼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제2도서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 다.

을 인식, 제3캠퍼스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

한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정실을 배제하고 7, 8년 전부터 전 교수를 공개로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 질적인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동국인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정보문화관과 상록원, 90주년 기념관 건립에도 신경을 썼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제2도서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 다.

- 지난 99년에 공사를 시작해 금년 초 전체적인 형태를 드러낸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의 현재 진행상황과 완공 이후 전망은.  
= 현재까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3, 4월이면 완공이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일산병원의 건립 비용은 순수 우리재원으로만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될 것이다. 일산병원이 완공되면 동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일산병원은 동국인의 병원이다.

사업장면에 대해서는 병원 설립계획 당시부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 왔다. 고양시를 비롯한 일산 일대의 인구를 14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병원운영의 확신을 가졌다. 또한 병원의 위치가 일산 외곽으로 중심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교통은 더 편리하다.

앞으로 병원을 심장질환과 간암계통으로 특성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뉴욕 스토니브룩 자메대학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

- 본교는 개교 100주년 완공을 목표로 제3캠퍼스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아무런 소식이 없다.  
= 제3캠퍼스는 재임기간동안 토목공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끝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후임 총장이 제3캠퍼스 건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짓고 있는 일산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등이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병원은 현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흑자가 많이 남지 않더라도 자금확



보가 쉽다.

- 96년 학부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생들을 선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령, 일부 학과의 전공편중현상이나 기초학문위기 등으로 학내구성원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 그동안 본교는 학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정책을 펴왔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문을 다루는 인문대학, 이과대학 등이 비인기학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문제이지 개혁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교 교육개혁의 목표는 그동안 중심이 되어왔던 인문학을 토대로 자연계, 이공계, 정보통신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RC, ERC 등과 정보통신계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이공계, 정보통신계의 발전은 인문학도 같이 발전하는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또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살리기 위한 모집단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 종단은 지난해 '동국학원...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동국학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근 동국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단은 종단에서 학교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미지마로 동국의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언제나 그래왔듯이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동단결하여 '동국중흥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오늘 우리는 동국대학교 개교 95주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한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동국대학교의 터전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지식들의 숭고한 교육 구국의 정신과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이래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동국대학교를 건설해 온 역대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교직원과 동문 여러분에게도 중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회고해 보면, 20세기 초, 불교계의 선각자들께서는 일제의 침략으로 국운이 쇠퇴하고 민족의 희망이 꺼져 가던 때에, 불교적 인간 교육을 통한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해 명진학교를 개교 하였습니다. 그 후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모교를 사랑하는 동국인의 의지로 진리의 등불을 면면히 밝혀왔으며, 숭고한 건학 정신을 자랑스럽게 펼쳐왔습니다. 진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코끼리가족 ... 본교의 상징동물인 '보현보살 코끼리상'이 교내 필경도에 자리 잡았다. 개교 9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코끼리상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학인이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승환(미술학)교수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제작하였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2만2천의 꿈을 담아 등불 밝히는 대학  
매년 이맘때 동악의 밤풍경은 자비의 불빛이 개질 줄 모릅니다. 동악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사평안을 기리는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불을 밝힙니다. 동악의 밤은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등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낮보다 아름다운 색채로 빛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동악의 번영을 기리는 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동악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지면안내  
노벨상수상자 초청 학술회의 5면  
2001년 메이테이 6, 7면  
도서관 진단과 전망 2면  
캐릭터 선호 설문조사 11면

## / 도서관 진단과 전망 /

## 대학간 연계 시스템 구축 ... 특성화 자료 공유

1962년 도서관이 지어진 이래로 39년.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증축과 전신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급변하는 지금 도서관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3회의 도서관 기획을 통해 현재 도서관과 신축 중앙도서관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 1 본교 도서관 진단
- 2 타대학 도서관 사례
- 3 외국대학 사례로 본 전자도서관

현재 도서관은 '책 없는 도서관'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 도서관들은 전통적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도서관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정보운영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주된 경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탄생한 디지털 도서관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 없이 받고 △컴퓨터를 통해 책의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으며 △같은 자료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미국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은 각 대학이 연계체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의 이점을 살려 전문화하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여섯 개의 대학이 연계해 구성된 DLI 컨소시엄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과학재단 등의 후원을 받으며 미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디지털 도서관을 연구하고 있다. DLI 컨소시엄은 각 대학마다 다른 분야의

연구를 맡아 고속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은 컴퓨터 △버클리 대학은 환경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과학기술잡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항공사진과 지진데이터 분야의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버클리대학은 텍스트 문서 이외에도 사진자료, 위성 영상, 비디오, 지도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키워드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형 검색을 연구중에 있으며, 사진자료들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네기 멜론 대학은 멀티미디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멀티미디어 도서관은 서버에 총 1천시간 이상 분량의 디지털 비디오, 음성, 이미지, 텍스트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렇게 도서관마다 특성화된 자료를 갖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규격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Z39.50'을 정보검색 표준 프로토콜로 승인하고 있어 디지털 도서관간 상호 텍스트 데

이터는 검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IT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시립대학 도서관의 경우에 열람실의 절반에 컴퓨터를 배치하고 휴식공간을 도서관 중앙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은 수많은 이용자가 무한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익성과 저작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디지털 도서관이 가장 발달한 미국 역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저작권의 경우 미국도 아직 명확한 판례 사실이 없어 도서관과 저작권자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대학의 사례에서도 살펴보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특화된 정보 확보 △디지털 정보의 표준화 △타대학과의 연계 △저작권 문제해결 등이 중요하다. 지난 91년부터 전신화를 추진해온 본교 도서관은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불교학과 신라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가 추진중인 통합형 검색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서는 폭넓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확보하는 한편, 특성화 분야의 불교학 자료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95주년 개교기념식 오늘(7일) 진행

## 기념식 후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막식

개교 95주년 기념식이 오늘(7일) 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과 용곡대학교 고마자와대학을 비롯해 일본 7개 대학에서 총장 일행 13명이 행사에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식은 △삼귀의례 △발원문 봉독 △학교연혁보고 △표창장 수여 △취장 수여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내외귀빈소개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되며 임동희(사학) 교수를 비롯해 49명의 교직원에게 장기근속 표창과 공로상이 수여되며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이기동(사학) △여인형(화학) △오원배(미술학) △김갑성(한의학) 교수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권노갑 총동창회장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 △이두철

삼창기업 회장을 '차리산릉 동국인'으로 선정, 휘장 중 최고의 영예인 금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을 마친 후 보현보살 코끼리상의 제막식도 치러진다. 불교에서의 코끼리는 부처님의 탄생설화에 나오지만, 자비실천의 보현보살을 상징한다. 동국발전의 힘찬 걸음을 바라는 뜻에서 새롭게 제막된 것이다.

##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

△20년 근속=임동희(사학), 김한(영어영문학), 최용재(영어영문학), 이종준(수학), 성용길(화학), 염준근(통계학), 이금석(컴퓨터·멀티미디어학), 장태무(컴퓨터·멀티미디어학), 권영식(산업공학), 한용환(국어교육), 김용기(수학교육), 박근(국어국문학), 정내원(영어영문학), 임태평(철

학), 최영조(미술학), 이계영(컴퓨터학), 함경수(컴퓨터학), 신종문(수학교육), 김길현(한의학), 최달영(한의학) 교수

△10년 근속=전호련(불교학), 석원경(화학), 김주필(생물학), 심익섭(행정학), 이윤근(경찰행정학), 손재현(체육교육), 권은주(불교아동학), 이창중(일어일본학), 박경일(사회복지학), 장태룡(생물학), 박순홍(화학), 박상신(생화학), 우홍식(안전공학), 정지천(한의학), 강석(의학), 서무규(의학), 이규춘(의학) 교수

## 공로상 수상자

△공로상 1급=유광호, 오성근, 박종진, 김규환, 권영섭, 김용석, 권준호, 이순애, 최종기  
△공로상 2급=박종진, 김숙우, 이세재

## SRC, 양자기능반도체 국제 학술회의 개최

## 내일(8일)부터 노벨물리·화학상 수상자 5명 참가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 2001'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 5명과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학술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와 서울대학교 물성과학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합성금속과 양자기능반도체에 대한 토론과 100 여편의 논문 발표

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노기술(NT)이 국가과학기술의 중점육성분야로 지정돼 많은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최근 급부상하는 합성금속과 반도체의 초미세 크기에서 나타나는 양자효과와 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해 SRC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결과를

접하고, 연구·기술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K. von Klitzing 물리학 박사가 오는 10일 중강당에서 'Basic Research on Microstructured Semiconductors'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은 오후 2시부터이며, 일반 학생들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 올해 첫 임금단체협상 진행

## 노조 3.7%·9만원 인상요구

올해 첫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지난 3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은 학교측에서 송석구 총장과 정용길 기획인사처장, 직원노조측에서 김정대 서울캠 노조위원장과 이진형 경주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상에서 노조는 지난해보다 임금을 3.7% 인상하고 여기에 9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2급부터 9급

까지 각 직급별로 인원을 재조정할 것 △사무기능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 △본교 의료시설에 대해 의료원 직원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감면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학교측은 다음주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김병호 사무국장은 "4월에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지난해 말 정기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협상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대 2년 전원 시신기증

한의과대학(학장=최달영)은 지난달 27일 한의예과 2학년 전원이 본교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신 기증 운동은 '인간 사랑과 한의학 발전'의 일환으로 지난 96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 해부학 실습 수강생 102명이 동참함으로써 총 443명이 참여하게 됐다.

해부학 실습 수업의 경우 대 부분 무연고 시신을 실습에 이용해 왔으며 기증된 시신이 거의 없어 수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 경주캠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시행

## 2003년 1월 완공예정 ... 교통체증난 해소 기대

경주시 재정난으로 지난 2년간 지연되었던 대규모의 본교 진입로 확장·포장공사가 시행돼 교통체증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는 지난 1999년 말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거액의 공사비용 마련이 어려워 잠정적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대교 통행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통정체 현상이 더욱 가중되자 경주시(시장=이원식)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차 시행

계획으로 교양신설 공사를 우선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출·퇴근 시간대에 본교 정문에서 생긴통까지 차량 이동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2분)보다 최고 10분까지 소요되는 등 심한 병목현상을 보였다.

경주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보성건설주식회사(사장=이기승)를 시공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착공을 시작해 지난 달 17일 정제 현상이 더욱 가중되자 경주시(시장=이원식)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차 시행

입로인 경대교 옆에 길이 4백 30M, 너비 10.7M의 교량 신설과 기존 교량 하부보강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교량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차량 소통능력이 2배로 향상돼 병목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사로 인해 일부 도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확장공사는 교각을 세우기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는 2003년 1월 2일에 준공할 계획이다.

보리수 

## 보시(布施)의 즐거움

정성본 (불교문화대 선학)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물건이나 마음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일을 보시(布施)라고 한다.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누군기를 위해서 베풀고 봉사한다면,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베풀은 자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을 나누는 선행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기쁨과 진정한 삶의 충만감을 안겨주는 의미있는 보상이 될 것이다.

아무 대가나 기대도 바라지 않고 나눔과 베푸는 일 그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당연한 일로 삼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과 뿌듯한 삶의 환희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력적인 운동이 두뇌 속의 엔돌핀을 증가시켜 육체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고, 자비와 사랑과 친절이 담긴 봉사의 행위는 정신적인 엔돌핀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는 남을 위해 뭔가를 나누어주면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보살행이다. 남을 위해 선행하고, 베푸는 것은 자신을 여유있고 넉넉하게 하며,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보시나 베푸는 것은 반드시 값진 물건이나 귀중한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이나 마음이라도 상관없다. 보시와 친절을 베푸는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이 그러한 베풀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커다란 정신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친절과 봉사의 행위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여유와 자신의 기쁨, 환희심과 만족감을 충만하게 해주는 의미있는 보상을 안겨 준다. 그 뿐만이 아니라 베풀과 친절 봉사, 자비와 사랑의 실천으로 값진 인생의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사는 보살이 된다.

보리수 필진이 다음호(1319호)부터 새롭게 바뀐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장애순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 ▲ 정승석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 ▲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교수)
- ▲ 최승천 (참여불교 재가연대)
- ▲ 남 선 (본사동인·불교방송국)

## 본 사 사 령

## ◇ 임 수습기자

- ▲ 김두연 (불교대 1)
- ▲ 김이현 (사회과학대 1)
- ▲ 한보라 (사회과학대 1)
- ▲ 김하나 (예술대 문예창작 1)
- 이상 5월 7일자

## ◇ 의원면직

- ▲ 박지영 (이과대 화학 3)
- 이상 4월 9일자

스승의 날 기념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옛 은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1. 행사명 :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초·중·고등학교에 한함)
2. 행사내용 : 초·중·고등학교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여 소포로 발송해드립니다.
3. 접수기간 : 2001. 4. 26(목)~5. 10(목)
4.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 ☎ 2260-3048
5. 편지·선물 발송일 : 2001. 5. 11(금)

\* 유의사항 :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은사님의 재직 학교 주소이어야 함.

## 서울캠 학생처

## 대학원 봄학기 기획특강

- 주 제 : 인간과 기술
- 장 소 : 학술문화관 세미나 1실(K900)
- 문 의 : 2260-8761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myhome.naver.com/dgugra)

- [1강] 기술과 정치 경제학  
홍성태(상지대 교수), 5월 11일 오후 7시
- [2강]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임기용(멀티미디어 연구소 선임 연구원), 5월 14일 오후6시
- [3강] 생명공학-게놈 프로젝트의 현실  
박병상(인천 도시 생태 환경연구소 소장), 5월 18일 오후6시
- [4강] 현대 생태 사상의 3가지 흐름  
구승희(동국대 교수), 5월 22일 오후 5시 30분
- [5강] 인간 복합 생명체의 정체성과 사회현상  
이종관(성균관대 교수), 5월 23일 오후 6시
- [6강] 사이버로그, 의료기술의 발달  
김보영(사이버 문화 연구소 연구원), 5월 25일 오후 6시

## 대학원 총학생회

## 원 고 모 집

2001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31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 대학원 연구논집 제31집
2. 투 고 대 상 :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휴학생 및 수료생  
본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 고 매 수 : 인문·사회계 - 200자 150매 이내 (워드로 작성시 A4용지 25매 분량)  
자연계 - 200자 100매 이내 (워드로 작성시 A4용지 20매 분량)
4. 제 출 부 수 : 교정용 및 심사용 3부, 디스켓 1장 (워드로 작성 要)
5. 제 출 서 : 대학원 교학부 ☎ 2260-3093~5)
6. 원고 마감일 : 2001년 8월 31일 (금요일)
7. 게 재 통 보 : 2001년 10월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8. 발행 예정일 : 2002년 1월중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해 주시고, 워드작성기로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며 제작 계획에 따른 편집자를 꼭 지켜 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학 원

##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많은 기업에서 인재의 선발·배치에 적성검사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자기적성 파악 및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사 종류 : 每經직무종합적성검사 (MAST형)
2. 검사 일시 및 장소  
○1차 : 5월 16일(수) 오후 3시 중강당  
○2차 : 5월 16일(수) 오후 6시 중강당  
○3차 : 5월 17일(목) 오후 3시 중강당
3. 검사 소요시간 : 90분
4. 대상 :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총 비용 6,000원, 학생 본인부담 2,000원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준위가 지원  
○검사 해석 및 상담은 무료
6. 접수 기간 : 5월 9일(수) ~ 5월 15일(화)
7. 접수 방법 : 학생상담센터나 졸준위로 단체 또는 개인 접수

\* 문의(구내전화) : 학생상담실(3930, 3931), 졸업준비위원회(3613)

## 학생상담센터·졸업준비위원회

### 박영석 동문, 로체 등정 14좌 완등 눈앞에

박영석 동문이 지난달 29일 로체(8,516m) 등정에 성공함에 따라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K2(8,611m)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 등정에 성공한 로체는 지난 97년 등정을 시도했으나 정상 40m를 남겨두고 내려온 곳으로 그동안 등정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지난 3월 로체에 재도전하여 한달만에 정상을 정복한 것이다. 오는 10일경 귀국할 예정인 박동문은 히말라야 14좌 완등 목표의 마지막 관문인 K2 정복을 위해 오는 5월말 출국할 계획이다.

###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오늘(7일) 연세대와 첫 경기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오늘(7일)부터 제51회 전국 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총 28개의 대학과 실업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교는 오늘 동대문운동장에서 연세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한편, 축구부 김승기 감독이 오는 16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대회의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으며, 정재운(법4)군과 남민호(법3)군이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또한 10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이상백배 한일대학학생농구대회에 농구부 최성오 감독은 코치로, 서영권(경영4)군이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 생협 오늘(7일) 무료급식 잔치국수 등 1만인분 제공

생활협동조합은 개교 95주년을 맞아 오늘(7일)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 잔치국수, 꿀떡 등 총 1만인분의 식사를 △삼육관 학생식당 △동국관 학생식당 △원흥관 이리수 매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무선 인터넷망 설치 마무리 오는 14일부터 이용가능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이 있으면 학내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10일까지 무선 인터넷 망 공사를 마무리해 실외를 비롯해 삼육관, 도서관 등에서 오는 14일부터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관리실은 무선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노트북 공동구매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제품은 펜티엄 733MHz의 삼성 센스 노트북이며, 구매예정 가격은 2백만원이다.

### 교원임용시험 설명회 입사준비 절차 강연

2002년 교원임용시험 설명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임용연구교육학 학원 구평희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2002년에 치러질 교원임용시험의 입사준비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을 풀어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사범대 교학과의 한 관계자는 "미래의 선생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원충, 9일부터 체육대회 오늘(7일)부터 예선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과 박사과정 1학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운동장, 만해광장, 두리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족구 △800M 이어달리기 △배드민턴 여자 단·복식, 남녀 혼합복식 △줄넘기 종목이 펼쳐진다. 예선은 지난달 30일 추첨한 대진으로 오늘(7일)부터 대회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 중도 제1열람실 재개방 장애인·교수 열람실 신설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 제 1열람실이 지난달 25일부터 일반학생들에게 다시 개방됐다. 이에 따라 제 1열람실에 있던 기증품은 본관 1층 소극장으로 옮겨졌다. 지난 3월 초 학교측과 총학생회는 제 1열람실 폐실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강력한 요구로 학교측이 기증품의 이전을 고려하기 시작, 지난달 재개방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기존의 144개 열람석 중 128개의 열람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6석은 장애인·교수 열람석으로 만들 예정이다.

# “학내 성폭력 이전 안심하세요”

##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 성숙한 성문화 정착 기대

대학들의 반성폭력 학칙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교도 지난달 17일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반성폭력 관련 학생준칙이 '학생들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성차별에 관한 언행을 해서 안된다'와 같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학생들에게 한정돼 있었던 반면 이번엔 확정된 규정은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과정이 명시돼 있으며,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으로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 다른 수단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조사와 처벌 징계를 강화했다.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가 원하는 고충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가해자에게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설명 공개사과, 반성문 제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해 신고접수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

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 △교직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고충상담원으로 배치 △피해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김유미(영문4) 부총여학생회장은 이번 규정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그동안 제시해 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학생실의 성폭력 상담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데 비해 장소가 협소한 여학생실은 상담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원을 임용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연세대의 경우 이미 지난 99년부터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상담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한 강연회 등을 열어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벌규정은 시행세칙이 마련되는대로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학내에서 성은 무조건 가지고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규정을 계기로 그동안 덮여져 왔던 성폭력 사건이 명확히 처리되고, 이와 더불어 학내 구성원의 성숙한 성문화가 함께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 교수 재임용 인성평가 개선될 듯

### 심회기교수 사건 총장·교수회장 면담

심회기 교수 재계약 탈락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인성평가 부분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심익섭 교수회장은 지난달 26일 송석구 총장을 만나 심회기 교수 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심회기 교수의 복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듣지는 못했지만,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인성평가 부분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준비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

난달 25일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동국을 사랑하는 동문교수들의 모임(이하 동사모)'은 각각 심회기 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총학생회는 심회기 교수 심사내용의 부당한 공개를 요구했으며, 동사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측에 개탄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교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심회기 교수 재임용 탈락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에는 전체교수의 75%가 참여했으며, 심익섭 교수회장은 오복원 이사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답!”... 불교대 학생회(회장=김대수·불교4)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중앙도서관 앞에서 불교도주간 행사를 벌였다. 여러 행사 중에서 불교퀴즈를 맞춘 학생에게는 표지에 부처님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학생식당 만족도 ‘보통’

### 학복위, 생협과 간담회 통해 학생의견 전달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 이하 학복위)는 지난달 실시했던 '학생식당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동국관 식당과 삼육관을 이용하는 학생 중 총 42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자율배식대와 배식의 중단, 한정된 메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1300원과 1500원짜리 음식

이 함께 배식되던 개강이전에 비해 개강 이후 눈에 띄게 많아진 1500원짜리의 배식에 대해 학생들은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지난달 18일, 학복위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간담회를 가져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생협은 "비슷한 스타일의 메뉴 줄이기 실행행보다 많은 식재료 투입 개개강 이전 배식방식과 개강 이후 배식방식을 격주로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 심익섭 교수 사교련 회장으로 선출

###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본교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이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제 8대 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대학교수회의 공동회장인 심익섭 교수회장은 지난달 28일 사교련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들의 만

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1년동안 사교련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취임사에서 심익섭 회장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와 연대를 강화해 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2001년 경향신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언론사 입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언론에 대한 이해와 입사시험 준비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 일 시 : 2001. 5.15(화) 16:00-18:00
2. 장 소 : 다함관 세미나실
3. 강 사 : 가. 김택근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부장 (본교 국문 75학번) 나. 한인섭 편집부 차장 (본교 조정 77학번) 다. 우철훈 사진부 기자 (본교 경영 81학번)
4. 강연내용 가. 채용일정 설명 나.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위상 다. 입사시험 준비요령 라. 질의 응답

\* 기타 문의사항은 홍보실(전화 3026)로 연락바랍니다.

## 춘 계 명 찰 순 례

1. 순례일자 : 2001. 5. 18(금) ~ 5. 19(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보탑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 가 비 : 오천원 (₩5,000)
5. 접수기간 : 2001. 5. 3(목) ~ 5. 16(수)
6. 접 수 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1. 5. 18(금) 오후4시30분 정각원 앞

## 학 생 처

## 임용고사 설명회

1. 일 시 : 2001년 5월 15일 (화) 14:00 ~
2.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3. 목 적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학문적 심화 및 의욕을 고취하고 임용고사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교원임용고사 설명회를 개최함
4. 대 상 :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5. 교육내용 1) 2001년 시행 교육학 및 전공 출제경향 분석 2) 전국 교육공무원의 현실과 전망 3) 2002년 교원임용시험 전공 및 교육학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4) 2002년 교원임용시험 논술 및 면접시험 대처방안 \* 임용시험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참고자료 무료 배부)
6. 주 최 : 사범대학 교학과 (2260-3380)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

## 사 범 대 학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가. 기본훈련8시간 : 전역 2-7년차 예비군('94-'99년 전역자) 나. 소집점검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2000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2001년도 전역자 나. '93.12.31일 이전 전역자 (전역 8년차 이상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가. 소집점검 4시간 대상자(전역1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5.17(목) 오후(13:00)	5.18(금) 오후(13:00)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사범대, 대학원	아간강좌, 예술대

나. 기본훈련8시간 대상자(전역2-7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5.21(월)	5.22(화)	5.23(수)	5.24(목)	5.25(금)
공과대 이과대	정보산업대 경영대	생명자원대 예술대 아간강좌	대학원 교직원	불교대, 문과대 법과대, 사과대 사범대, 교직원

4.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รอง,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분실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편성카드 복사
6. 유의사항 가. 구파발 전철역에서 북한산방향으로 300m 지점에 셔틀버스 대기 - 기본교육시 : 06시40분 ~ 7시20분까지 운행 - 소집점검시 : 11시40분 ~ 12시20분까지 운행 나. 개인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다. 08시(오후교육자는13시이전)이후 훈련장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라.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마.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 예비군연대본부 연락처 : 2260-3073,4

## 예 비 군 연 대

## 학 생 처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장애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1년도 상반기 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주 제 : 21세기 취업환경 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2. 강 사 : (주)대학과미래 대표이사 장재성
3. 일 시 : 2001. 5. 14(월) 14:00 ~ 16:00
4. 장 소 : 본관 중강당
5. 대 상 : 재학생 및 신입생
6. 문 의 : 본관 3층 취업지원팀 (2260 - 3054/5)
7. 특강자료집 배부

## 학 생 처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 인간 존엄을 근거로 개인 양심 존중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한 인간이 양심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실정법의 임무를 거부할 때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데 답되는 가치관 갈등의 조정과제이다. 사람이 만든 법률은 개인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학과 인권의 문제의식이 빈곤한 관료주의 법논리로서는 그러한 방법은 당연히 정당한다는 형식논리에 별한 의문을 느끼지 못한다. 법철학 부재에서 나오는 한국법원의 안이한 실정법해석론이 바로 그러한 자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논리 법해석은 현대법의 세계에선 미개하고 유치한 법인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규정을 위반하니 그 규정대로 처벌한다는 사무적인 관료의 대응자세는 이 문제에선 그렇게 간단히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점차로 그러한 개인 양심에 대한 무시와 유린의 처사는 정의감에 거슬린다는 의식을 일깨우기 시작하고 있다.

체하는 복무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권력의 내심에 대한 지나친 간섭 침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경례 의식에서 개인 신앙으로 인한 경례를 거부하는 일탈도 징벌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 예로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양심적 집총거부 보장 조항을 두었다. 그 규정을 보면 우선 신앙 양심 및 종교와 세계관의 고백의 불가침성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양심에 반해서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의 의무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동법 4조 3항)고 정했다. 따라서 무기를 들지 않은 의무나 대체적 복무를 부과하여 집총거부를 대신하게 했다. 1961년 법률로 대체역무로서 '시민봉사' 제도가 설치·시행됐다.

## 현재 한국의 징병제

한국의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병역소집에 불응하면 법원은 병역법위반으로 1년 6개월이나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감옥으로 보낸다. 병역소집으로 군대에 입대한 자가 집총군사훈련을 신앙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면 1994년 개정된 군형법 44조의 항명죄를 적용하여 군사법원은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육군형무소로 보낸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집하는 '여호와와의 증인'이란 종파 신도는 8만 8천 여명이고 1년에 약 500명 가량이 군대에 입대한 후 집총을 거부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

## 사상은 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현상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는가? 아주 기본적인 법상식이지만, 이 문제는 중요한 인간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심 신앙 등 내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 근거의 원점이다. 인간은 사리를 분별하는 이성과 선악을 가리는 양심을 따르는 주체가 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자가 된다. 그래서 일찍이 16세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줄리아노 부르노는 자기 신조를 고집해 권력에 굴복하길 거절해 화형장의 불구덩이 속에서 순사했다. 근대적 자유제도는 그러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한상범 법대 법학과 교수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후에도 분단과 냉전시대의 메카시즘적 반공주의 폭정 때문에 양심 신조 및 세계관의 자유가 무엇인가 감히 생각하고 주장해보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아직도 노예시대의 굴레를 때리고 있다. 이 노예시대의 질곡이 세뇌시킨 신화가 권력은 내심에 대한 주재지라는 권력만능과 관료특권의 망령이다. 이미 서구의 민권투쟁에서 일찍이 17세기에 "사상은 별할 수 없다"는 원리가 존립탄에 의해 주창됐다.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징벌을 하는 것은 권력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이고 무법이며 정의 위반이다. 그러한 처사를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변호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소수의 이단자나 괴짜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만들 때 참으로 우리는 자유인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닌가?

## 다른나라 징병제

미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처우규정을 두어 처리했다. 신앙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 종교종파의 신도를 병역에 대

## 서울대 교수의 '서울대 개혁론' 제기

# '간판' 만능 사회 해결 출발점

## 지속적인 개혁의지 자체가 중요해

최근 대학 서열화를 비판하며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개혁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서 교수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서울대 물리학부 장희익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교육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결핍들이 되고 있는 문제는 대학제도, 특히 과도된 서열화에 있다"며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일직선으로 나열돼 있다보니 우수한 학생들조차 불안에 떨고 과외 등 사교육에 몰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는 학사과정 입학생을 한시적으로 뽑지 않고 그 정원만큼을 다른 국립대에 나눠 배정하며, 서울대의 교수인력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타 국립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과정을 '위탁교육'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과정은 있지만 서울대 '간판'을 지닌 졸업생은 배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여타 협력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학사 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고 배출하는 책임을 지게 돼 교육정상화 뿐 아니라

공극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일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국민총생산(GNP)의 1%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 국민이 안심하고 학생을 보낼 수 있는 신뢰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장 교수의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에 대해 서울대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며 오히려 대학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다.

"대학 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교수의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서울대 황수익 사회대 학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도 여차피 대학원 중심대학인 서울대의 학부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이번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서울대 개혁론으로 △학부과정 폐지 및 대학원 대학으로 전환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할 기초 학문에 관한 학부과정만 존속 △서울대 폐지론 △연합국립대론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일부 교수들은 '학벌중시'라는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서울대가 사라지더라도 '제 2의 서울대'가 등장할 것이 분명해 서울대 개혁론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공회대 김동춘(NGO학) 교수는 "물론 서울대를 단숨에 없애거나 개혁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서울대의 혁신적 재편 없는 우리사회의 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벌이 곧 신분인 사회. 명문대를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기이한 문화. 이 같은 학벌만

능주의의 정점에서 서울대 간판을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작은 문제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서울대 개혁논의는 서울대의 안과 밖에 서 었달리고 있었다. 밖에서 제기되는 논의는 입시과열과 서울대 독점을 막기 위한 '폐교론', '분산론'이 주를 이루었고 안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발전론'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개혁 논란을 계기로 서울대를 비롯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논의해야 할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 사설

## 건학이념의 끈으로 하나되는 동국인

개교 1세기를 5년 앞두고 미래발전상에 대한 학내외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본교가 아흔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본교는 민족의 암흑기에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구국의 가치를 내걸고 각 사찰의 정재를 모아 출범시킨 민족의 대학이다. 지난 1세기의 역사속에서 본교는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유수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

한편,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은 우리의 대학과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대학은 이에 따른 학부제의 여파로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돈을 벌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몰두한다. '돈은 왜 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본교는 건학이념을 되살리기 위해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작', '자비의 등 달기', '1사찰 1장학생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에 그친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간에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맺어질 수 있는 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학이념의 끈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만2천의 '다름' 속에 '갈음'을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동악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오색찬란한 연등으로 절경을 이룬다. 아무리 많아도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연등을 바라보며 대학과 종단 그리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모두'의 생일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학생회비 예산편성을 지켜보며

올해도 학생회가 학생회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총학생회장이 지난해 사라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 예산을 다시 총학생회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해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총학생회 산하 학자추가 구성되지 못해 그 예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모든 중운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학자추 예산을 단체 학생회로 배정하기로 결정했고, 그 당시 위원이었던 현 총학생회장도 동의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 결정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총학생회장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리고 총학생회로 재편성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완강한 반대가 계속되자 학자추 예산을 포기하되 각 자치기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돌변하는 총학생회장의 모습 역시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모든 단체와 자치기구가 합의한 후 확정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와 타협 없이는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 단체 학생회는 다른 학생회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모든 합의를 마치고 자치기구들의 최종적 합의만 에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 학생회의 이해보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총학생회장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은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모든 학생회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할 총학생회가 자신의 이익 행기에만 급급하다는 많은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회간의 이해관계는 더 깊은 골이 파여지고, 학생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학생회장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백승석	하이텔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김은선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 ■ 개교 95주년 기념 노벨상 수상자 초청 ■

#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

21세기에 들어 국가과학기술의 중점육성분야로 지정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노기술(Nano-Technology)일 것이다. 이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의 제조기술이 향상되고 컴퓨터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교환기·계측기·집속기·가정용전자기기 등이 더욱 초소형화·고신뢰성화·고속화·저전력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나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합성금속과 반도체 초미세 크기에 나타나는 양자효과 및 그 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제학술회의가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소장=강태원·물리학)와 서울대학교 물성과학연구소(소장=박영우·물리학) 공동 주관으로 본교에서 열린다.

본교 개교 95주년을 맞아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미래의 정보저장과 표시의 기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합성금속'과 '양자기능반도체'를 주제로 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벨상 수상자 5명과 12개국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다는 것에 더욱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인 앨런 히거 박사(미국), 앨런 맥다미드 박사(미국), 시라카와 히데키 박사(일본)를 비롯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로버트 슈리퍼 박사(미국, 1972년 수상),

크라우스 폰 클리칭 박사(독일, 1985년 수상),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인 클라슨 박사(스웨덴, 물리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히거·맥다미드·시라카와 히데키 박사는 고분자인 플라스틱이 금속처럼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플라스틱의 분자구조를 변형하여 전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성 고분자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이 개발한 전도성 고분자는 유기전하이동차물, CO홀러렌, 탄소나노튜브 등과 함께 합성금속으로 통칭되는데 이것은 아세틸렌 분자를 중합시켜 만든 것으로, 정전기 방지 물질에 쓰이고 있으며 컴퓨터 모니터의 전자기와 차폐물질, 햇빛을 차단하는 스마트 창문, 교통 신호등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태양전지, 소형 TV 화면 제작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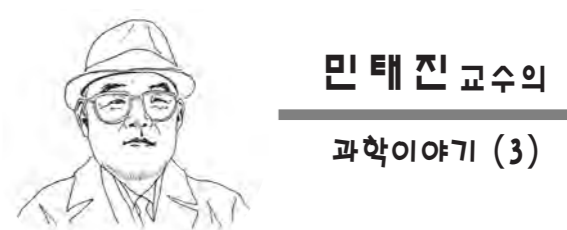
이들 세 박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히거=반도체 폴리머의 광물성연구(Photophysics of Semiconducting Polymers) △맥다미드=유기폴리머의 도핑특성과 연구현황(A novel role for organic polymers) △시라카와 히데키=폴리아세틸렌의 발견과 전도성 폴리아세틸렌의 도래(The discovery of polyacetylene film-the dawning of an era of conducting polymers)를 주제로 각각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인 클라슨 박사는 △고온 초전도체의 기초연구를 위한 진성 조셉슨 접합연(Intrinsic Josephson Junctions for Basic Studies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에 관해 발표하며 존 바딘(John Bardeen), 리언 N. 쿠퍼(Leon N. Cooper)와 함께 초전도성에 관한 BCS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197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슈리퍼 박사는 △자기장 Hcl<<(Hc2 아래에서 d-파 초전도체의 디하스반알펜(de Haas van Alphen)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저항은 양자화(量子化)된다. 즉 저항이 완만하고 연속적이기보다는 불연속적인 단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해 198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클리칭 박사는 △양자점에서 전자수송 측정(Transport Measurements on Quantum Dots)을 주제로 양자수송현상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 두 박사는 양자기능 반도체분야의 장을 열었는데, 양자기능 반도체는 합성금속과 더불어 미래의 정보표시 및 정보저장 기술을 한차원 진보된 기술로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기가비트(1기가비트=영자신분 8,500 쪽 분량) 수준의 기억소자 기술을 테라비트(1테라비트=1000기가비트) 수준으로 끌어 올려, 미래의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을 가능케 할 것으로 학



계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결과를 배우고,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내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는 방한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은 학술회의 기간 중에 별도로 본교를 포함한 7개의 학교에서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 조선후대의 과학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은 자주적 문화창조의 분위기와 국가적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새 왕조는 권위의 상징으로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돌며 새겨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만들었으며, 세종의 강력한 추진으로 1418년에 시작된 계리법(曆法)은 세종대에 와서 활판인쇄기술로 발전되었고, 그 후 갑인 활자에 이르러 조선식 청동활자 인쇄기술이 완성되었다. 또 세종대왕은 과학적 영농정책의 하나로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우리 농업의 지침서를 사용케 하였으며, '동향기'(바람깃대)와 함께 발명된 '측우기'는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이탈리아의 가스텔라가 발명한 측우기보다도 무려 197년이나 앞선 것이며, 세계 농업기상학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이다. 또 당시 경북도에 있던 '대간의 대'는 대규모의 새로운 천문대로서 첨단 과학기술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기에는 북극의 고도를 측정하는 '간의',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혼천시계',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측정하는 '규표', 방위를 측정하는 '정방안', 자동물시계와 천상시계로 구성된 '자격구', 그리고 정교한 자동시보 장치인 '옥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천문대의 관측과 계산은 근거로 하여 세종 24년에 편찬된 '칠정산'은 중국의 천문·역법 계산의 기본원리에 이슬람의 천문·역법 이론을 도입하여 우리의 역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으로, 서울의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헤드는 시간, 해지는 시간, 밤낮의 길이, 일식, 월식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시하였다.

또 세종대의 조선백자는 고려청자로부터 분청사기를 거쳐 이룩된 것으로 고려청자와는 형식과 성질이 전혀 다른 독자적인 것이었다. 청화백자는 원래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지만 그 모양과 문양의 주제가 전혀 다른 우리의 조선백자인 것이다. 조선시대 그 이외의 과학으로는 군사분야에서 조선식 화포와 거북선의 등장 그리고 15세기 화약병기의 최고 기술서였던 '홍농등록'의 편찬을 들 수 있다. 화포는 고려 말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실용화되었지만, 세종대에 그것을 자주적으로 개량하여 조선식 화포로 만든 것이고, 화차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리고 거북선은 해적 집단을 섬멸 할 수 있는 여러개의 중화기로 무장된 전함이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동국지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세계지도와 '해동명적'을 정리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그리고 한·중 의학책을 집대성한 '의학대백과사전'이 편찬되었고, 선조때 '동의보감' 그리고 정조때 '방약합편'의 편찬 등으로 조선시대 의학은 크게 발전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과학기술은 15세기 세종대에 이르러 자주성과 창의성을 지닌 우리의 과학기술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인 꽃을 피웠으며, 그 후 백년 동안 그 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당시 송유사상에 근거한 상공농사의 계급제에서 선비사상이 숭상되고, 공업과 상업은 천시하는 사상과 함께 훈구세력과 주자학의 신진세력 간의 정쟁, 이미 특세한 정치세력 간의 당파싸움 그리고 외세에 의한 전란 등의 비정상적인 혼란으로 이백 여년간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이 침체의 길을 걷는 동안 서양에서는 17세기경부터 실험과학과 새로운 물질론의 등장으로 현대 자연과학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초청 노벨상 수상자 프로필



John Robert Schrieffer (슈리퍼)

△국적: 미국  
△활동분야: 물리학  
△노벨화학상(1972): 초전도 이론의 개발  
△출생: 1931. 5. 31 미국 일리노이주(州) 오크크리크  
△주요저서: 초전도이론 (Theory of Superconductivity, 1964)  
△주요경력: 1953년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교수 겸 국립고자기장 연구소의 물리학자

- 1968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물리학 부문 수상, 미국의 스페인 공화국학회의 존 에릭슨 메달 수상, 미국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

1972년에 존 바딘, 리언 N. 쿠퍼와 공동으로 BCS 이론(그들 이름의 첫 글자에서 따옴)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 이론은 초전도성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미시적 이론이었다. 초전도란 어떤 종류의 금속이나 합금을 절대영도(0 K: -273.16 °C) 가까이까지 냉각하였을 때, 전기저항이 갑자기 소멸하여 전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초전도는 전기전도성이 특별히 좋은, 혹은 반대로 전기 저항이 특별히 적은 현상을 의미한다. 초전도 현상은 오랫동안 설명할 길이 없던 비밀스런 현상이었다.

그로서 과학자들은 여기에 더욱 매달렸고, 1957년 마침내 바딘, 쿠퍼, 슈리퍼는 BCS이론이라는 비밀의 열쇠를 찾았다. 이후 많은 실험적 증거들이 BCS이론을 지지했고, 이제는 초음속소자, 자기부상열차 등 초전도 현상이 생애에 응용될 길이 열리고 있다.



Klaus von Klitzing (클리칭)

△국적: 독일  
△활동분야: 응용물리학, 고체물리학  
△노벨물리학상(1985): 양자홀 효과 및 발견과 전자에너지를 측정 기술 개발  
△출생: 1933. 6. 28 독일 쾰른의 플라인드 슈루와  
△주요경력: 1969년 브라운슈바이크(州)공과대학교 졸업  
1972년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 뮌헨공과대학 교수 역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막스 플랑크 고체물리연구소 소장 역임

1980년 클리칭은 홀 효과의 변형인 양자 홀 효과의 발견을 했다. 적당한 자기장에서 홀 저항은 자기장의 세기 변화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클리칭은 전자의 움직임을 2차원으로 한정해 반도체 소자의 홀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강한 자기장과 절대 영도(-273.16°C)에 가까운 온도를 사용했다. 그러한 조건에서 클리칭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홀 저항이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불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클리칭자들은 양자화(量子化)되었다고 표현한다. 클리칭은 이 연구로 198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홀 효과를 이용해 전기저항이 매우 정확한 단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자기장이 매우 강하고 온도가 매우 낮으면, 저항은 불연속적인 단계로만 변화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했다. 이것이 바로 양자 홀 효과의 발견이다. 1980년 클리칭이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은 곧 인정되었다. 그 사실은 양자 홀 효과와 관련된 양자 홀 저항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Alan J. Heeger (히이거)

△국적: 미국  
△활동분야: 화학  
△노벨화학상(2000): 전도성 폴리머의 발견 및 개발  
△출생: 1936. 1. 22 미국 아이오와주  
△주요경력: 1961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박사학위 취득  
1983년 동국대학교물리학과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수상, 1989년 존 스토크스, 1995년 스위스 신물질과학연구소 등 다수의 상 수상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버버라 분교(UCSB) 물리학과 교수

(1982~), 고분자연구소 및 물리 재료학부 교수(1987~)로 재직  
- 1990년 유니엑스(UNIA)사를 설립, 이사장으로 재직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전자회로의 응용영역을 획명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평가되는 전도성 고분자는 특유의 역학적 성질과 처리과정상의 이점, 금속 또는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아울러 지닌 새로운 물질이다.  
켄시메이니아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던 1970년대 초반,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 및 앨런 맥다미드

(Alan MacDiarmid)로부터 플라스틱의 전도체화에 대한 공동연구 제의 받고 이에 동참했다. 이들 공동연구자들이 발견한 반(反)이온 유도 폴리머인(counter-ion induced possible polyamine) 기술은 전자와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 쓰이는 전도성 고분자 용융물, 전기화학에서 쓰이는 전기극판, 새로운 고분자 전지와 광광성 반도체 소자, 발광다이오드(LED), 트랜지스터 등의 플라스틱 전기 장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전도성 고분자 등에 응용될 수 있으며, 또한 물리학과 화학의 접점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Alan G. MacDiarmid (맥다미드)

△국적: 미국  
△활동분야: 화학  
△노벨화학상(2000): 전도성 폴리머의 발견 및 개발  
△출생: 1927 윌리엄스 맥스터턴  
△주요저서: 폴리머 전기전도도의 과학과 기술(1991), 폴리아닐린을 응용한 2차도판 개발(1994) 및 600 여 개에 이르는 저술과 공동집필한 연구논문이 있으며, 20개의 특허를 소유  
△주요경력: 뉴질랜드대학교에서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대학교(1963), 케임브리지대학교(1965)에서 박사학위 취득  
- 미화학회가 수여하는 미국화학회상 재료화학 부문(1999)을 비롯한 다수의 상 수상  
켄시메이니아대학에서 플라스틱의 전도체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던 맥다미드는 1975년 한 국제학술회에 참석한 일본 쓰쿠바 대학의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로부터 공동연구 제의를 받았다. 맥다미드는 당시 같은 대학의 물리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앨런 히거(Alan Heeger)를 이 연구에 동참하게 하여 플라스틱의 전도체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연구 결과 플라스틱에 불순물을 화학적으로 첨가하면 분자의 특성이 바뀌어 전도체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1977년 플라스틱도 금속처럼 전기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합성금속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전도성 고분자(conducting polymer)를 발명했다. 이는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상식을 뒤엎은 혁명적 발견이었다.  
이 발견은 화학의 여러 분야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오늘날까지

적용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반도체성 금속성 유기 고분자의 구조와 그 전기적 특성에 관한 전세계적인 연구를 촉발시켰다. 이 발견은 화학의 여러 분야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오늘날까지 적용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반도체성 플라스틱 전기 장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전도성 고분자 등에 응용될 수 있으며, 또한 물리학과 화학의 접점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Shirakawa Hideki (시라카와 히데키)

△국적: 일본  
△활동분야: 화학  
△노벨화학상(2000): 전도성 폴리머의 발견 및 개발  
△출생: 1936 일본 도쿄  
△주요경력: 1968년 도쿄공업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  
2000년 현재 일본고분자학회·일본화학회·일본물리학회·전기화학회 등의 회원 겸임.  
1983년 일본의 고분자학회에서 수여하는 고분자학회상, 2000년 고분자과학공적상 수상  
과학자들은 종종 아주 뜻밖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시라카와 히데키의 전도성 고분자 발견을 꼽을 수 있다. 우연치지만 위대한 발견은 1970년대 초 일본 도쿄공업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전도성 고분자의 일종인 폴리아세틸렌을 실험하던 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조교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촉매를 실수로 1천배나 더 부어놓자 기대했던 폴리아세틸렌 분말이 아닌 이름다운 은빛의 얇은 막이 나타났다. 그 순간 시라카와 히데키는 이 물질이 전도성을 띠 것이라고 직감했

다. 하지만 이 발견이 그에게 훗날 노벨 화학상(2000) 공동 수상의 영예로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보통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특정 물질, 예컨대 요오드를 첨가하면 금속처럼 전도성을 띠게 된다.  
이 혁명적인 발견은 컴퓨터의 백업 장치나 휴대전화 충전기, 플라스틱 전지를 만들고 노트북 컴퓨터를 시계만큼 작게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 인터뷰 - 강태원 국제학술회의 공동위원장을 만나

## 우리과학을 세계로 잇는 교두보되길



강태원 교수

개교 95주년을 맞아 본교와 서울대가 공동주관하는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가 본교에서 열린다. 이에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준비 중인 양자기능반도체연구소 소장 강태원(물리학) 교수를 만나 이번 학술회의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 본교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 동국'을 기치로 이공계대학을 집중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99년에 정부로부터 기초과학연구원(SRC)과 공학연구원(ERC)가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돼 본교 이공계 학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아 전세계에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에서 본교는 양자기능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석학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과학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 이 학술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 합성금속의 양자수송현상 연구에 관한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물리·화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5명과 국내외 46명의 석학들이 한가지 주제 가지고 열린 토론을 펼치게 된다. 또한 지난해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인 클라슨 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기까지의 과정은

= 앨런 히이거박사와 시라카와 히데키 박사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기 바로 직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그 둘은 그 때 3회 학술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리고 본교의 개교 95주년 기념 사업을 구상하던 중 국제학술회의를 빌어 노벨상 수상자 초청 학술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나머지 세명의 노벨상 수

상자들은 평소 애만 있던 얼굴로 학술회의 참석에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 우리과학 발전에 기칠 국제학술회의의 영향은

= 아직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과학 분야에서는 미개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학술회의와 같은 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과학계에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리의 발전역량을 보여주고 보다 깊이 있는 과학이론을 접함으로써 우리과학의 발전에 실현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개최일정 및 학술프로그램 내용**

8일	14시	등록(학술문화관)
	16시	reception(그림회관)
9일	9시30분	개회식(학술문화관)
	10시	학술강연 I
	13시30분	학술강연 II
	15시30분	coffee break
	16시	학술강연 III
	18시30분	Banquet(학술문화관)
10일	9시	학술강연 IV
	13시30분	학술강연 V
	15시30분	coffee break
	16시	학술강연 VI
11일	9시	학술강연 VII
	13시30분	학술강연 VIII
	15시30분	coffee break
	16시	학술강연 IX
	18시	폐회식

## 고수동정

▲석원경 (화학)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산타 페에서 열리는 'Inorganic Chemistry into the New Millennium'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성용길 (화학)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기능성 고분자 신소재의 합성과 물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정용길 (정치외교학)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독 사회과학회 정기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

▲이영면 (경영학)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버클리대 세미나 참석.

▲이영재 (정보관리학)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의 위기관리연구소와 MOU체결.

# 노동자의 노동자를 위한 ...

## 구조조정, 이제 노동자가 물리친다



2001년 5월, 우리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군부 독재정권이 사라지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을 강조하는 정부 아래 군부 독재시절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끔찍한 사건들은 마치 먼 옛 이야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부평에서 일어났던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한 사람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20년 전 광주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경찰은 사건 이후 '구성원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의견들이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경찰 주장대로 부평에서 벌어진 폭력행각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김대중 정권 출범 후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대량 정리해고라는 '구조적 폭력'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일은 국가의 부도를 뜻하는 '모라토리움'이란 용어가 지 신문을 장식하게 했다. 이에 많은 노동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 '경제 신탁통치' 처지로 전락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 약조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세계에 유행처럼 불던 신자유주의 바람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였다.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졌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일터를 떠나야 했고 그런 구조조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지난 2월의 대우차 1750명에 대한 정리해

고였다.

구조조정으로 쫓겨 실업자 신세로 전락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된 노동자들은 저항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들끓어올랐다. 그들이 두른 머리띠에는 어김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란 구호가 적혀있었다.

최근에는 계약직 장기 파업장의 전국 순회투쟁, 생명보험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투쟁 등 노동운동의 방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김대중 정권 퇴진으로 모아졌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는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은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노동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축제다. 하지만 단순한 축제로 끝나는 자리라면 올해 행사가 열렸던 대학로에 그토록 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집회장을 가득 메운 주변의 노동자들과 연대의식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현실에 담긴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 이를 위해 올해 5월 1일 역시 세계 각지에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이 땅의 노동자가 진정한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는 그 날까지 노동자들의 5월 1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노동자·학생 연대한마당을 다녀와서

##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보호 위한 제도 마련해야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서 노동자 문예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하나가 된다. 경희대에서 지난달 30일 세계 노동절 111주년을 맞아 노동자·학생 연대 한마당이 열렸다.

학교는 금세 노동절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든 노동자와 학생으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 선전물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학생들과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 주변에 걸린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조조정 분쇄하라' 등의 플래카드에 다음날(1일) 있을 노동절 집회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NMD-TMD', '신자유주의와 저항의 세계화'라는 3가지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요즘 불거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강연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특히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위원장은 "여성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를 통

해 힘을 조직하고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예비 노동자로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차별대우와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00 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 노동자와 시간제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속한다.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국통신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결성되어 본격적인 정리 해고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 노천극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생존권 보장' 등을 외치며 노동절 집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어쩌면 이들의 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이기도 모른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대우차 노조 김조현씨의 노동절 보내기

# 111년 전의 외침 지금도 끝나지 않아

## 2001년 노동절 기념식 열려 ... 10년만에 시청앞 광장 점거



대우자동차 노동자 김조현(44)씨.

매년 5월 1일, 사람들은 묻는다. 1886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던 미국 노동자들이 흘린 피가 헛된 것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백여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같은 시간이지만 김우중의 20년과 내 20년은 너무나 다르다. 김우중은 수천억을 벌어들인 반면 내게 남은 것은 용자반아 겨우 마련한 20평 아파트 뿐"이라며 씩씩한 심경을 토로하는 김조현(44)씨.

그는 83년 입사한 대우조선을 거쳐 89년부터 대우차에서 일하면서 대우라는 기업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1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항상 노동운동의 한복판에 자리해 있었다. 덕분에 지난해 4월, 대우차 해의매카 반대시위를 주도한 탓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말이다.

당시 그는 10개월 뒤 1750명의 대우차 노동자들이 자신과 같은 신세가 될 줄 생각이나 했을까?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는 문광주(32)씨는 "입사동기 200여명 중 무려 190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회사에 몸담은 지 10년, 20년이 지난 형님들이 비하면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전세계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5월 1일 노동절 행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날이었다. 노동절 전날 경희대에서 전야제 겸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율동패와 민중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자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던 분위기를 가리켰던 것은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장면을 담은 비디오 상영이었다.

살의마저 엷보이는 눈빛으로 쓰러진 노동자들을 방패로 짊어대는 전경들과 피투성이 얼굴을 감싸안으며 신음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

치자 열기로 가득했던 노천극장은 금세 숙연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우차 노동자들로부터 '4·10사태'로 불린다. "4·10 사태 때 피를 흘렸던 100여명 중 28명은 아직도 병원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신세"라고 말하는 김씨. 몇 번 보았을 장면이지만 그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담배를 물었다.

최길영(36)씨는 "2001년 우리는 1886년 미국과 너무나 닮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당시 미국 경찰과 오늘날 한국 경찰의 모습.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 미국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했지만 한국 경찰들은 '다만' 곤봉으로 내리쳤다. 그것이냐. 그러나 노동자에게 발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역사의 진보를 찾기에겐 노천극장에 앉은 대우차 노동자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 노동절 다리건너 우리는 공장으로 간다!

행사 이후 근처 한국외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대우차 노동자들은 다음날 '제 11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학로로 향했다. 이들 뿐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물리쳐 대학로는 금세 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2만여 인파 중 맨 앞자리에 대우차 노동자들이 있었다.

처음 단상에 오른 민주노총 당부회 위원장의 연설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이란 말이 여러번 되풀이됐다. 그러자 김씨는 "내 나이가 44살, 4행이라 부르지. 올해 노동절도 111주년, 1행 아닌가? 요즘 들어 '김대중 정부도 이젠 땡'이란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거야"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이후 여러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대우차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꽃병을 던지는 상징의식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흔히 '꽃병'은 화염병의 비유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꽃병을 던진다는 말을 듣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막걸리병에 붉은 꽃을 꽂은, 말 그대로 모형 꽃병이었다.

대학로 행사 후 대일이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도중 그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노조활동 때문에 1년

에 절반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김씨. "두 딸과 얘기 할때 미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항상 남아 있어" 하지만 그는 그런 만큼 대우차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힘써야겠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광화문 근처에 이르자 경찰이 대열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잠시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충돌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대열은 방향을 바꿔 시청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공권력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제 시청 앞 광장은 우리 땅이다"라고 환호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우차 노동자들의 정리 집회가 시작됐다.

대우차 노동자들 안에서도 재담꾼으로 소문난 김씨가 집회를 정리하는 발언을 마다할 리 없었다.

"서울시청 광장이 시위 대열에 의해 완전히 뒤덮인 것은 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과 91년 강경대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땅 노동자들의 힘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우리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연설 내용 중 강조한 '희망'이 뭔지를 묻자 그는 자신의 조개를 가리켰다. 조개에는 '공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 동약로 그들과 우리

"오를 물대포랑 고무총이 나온다던데..."

"선배! 잡혀가면 어떻게요?"

메이 데이 투쟁을 위해 참가한 1백 여명 남짓한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 집회에 참가하는 새내기들은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구조조정 분쇄! 투쟁! 반미! 투쟁!"

"투쟁이러나, 시대가 어느 때대..."

거리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모두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새내기에게 투쟁이 너무나 낯설고 먼 단어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대학로에서 출발한 거리행진이 시청 앞에 이르자 어느새 차커랙은 두 주먹에도 힘이 들어가 있다.

"선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학교로 돌아갈 일만 남았지."

"에이~시시하다."

마무리 정리집회를 위해 학교로 향하던 중 새내기들과 선배의 대화는 시청 앞에서 10

년 만에 평화적으로 노동절 집회를 치러낸 성과를 자축하는 것치고는 왠지 어색해 보인다.

세계 노동자의 날. 그저 일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장기간 투쟁으로 몸과 마음이 초췌한 비정규직 노동자, 불편한 몸으로 시위의 선두에 선 장애인 노동자, 어린 아이

를 업고 위험을 무릎 쓴 채 시위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에게 구조조정 분쇄,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다.

시위의 '본질'이 시위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현실의 자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그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 메이데이 이모저모

# 가자!

## 노동 해방의 그 날까지...

세계노동절 11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어느 때보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기획으로 꾸며 보았다.

편집자

■ 사진·글 / 사진부



노동자들의 힘을 담아 던지는 화염병을 아이는 단순히 꽃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들이 살았던 삶을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화염병 모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손에 화염병이 아닌 꽃병을 들고 웃을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남은 한 조각까지 모조리 태우리라. 세계 제일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깃발도 분노한 대중들 앞에서는 단지 천 조각에 불과하다. 불타는 성조기와 함께 NMD-TMD 구축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야욕도 함께 불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들도 우리와 다른 것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이 사회의 눈은 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힘겹지만 하다. 장애인이나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순 없다.



투쟁을 위해서라면 길바닥도 내 집처럼... 그동안 가슴속에 쌓이두었던 응어리들을 힘찬 함성으로 한 번에 날려버린다. 하늘을 향한 그들의 눈은 억압되고 고통받는 노동현실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 메이데이 참가학생 이동철(문과대 2)군을 만나

### “노동현실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지난 1일 예년과 달랐던 평화적 시위로 111주년 메이데이가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본교 이동철(문과대 2)군을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 이번 메이데이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 지난해 소모임 선배들을 통해서 메이데이에 대해 듣고 참가했다. 그곳에서 평소 알고 있었던 것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자들이 생계조차 어려워 시위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문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참가하게 됐다.

**-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 올해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 진압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여론이 달라졌다. 전에는 시위를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민들도 '정권이 너무 한다' '노동자들의 시위를 이해할 수 있다' 등의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노동자와 정부 양쪽이 조심해 단 1명의 부상자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됐다.

**- 메이데이 집회에서 느낀 노동자들의 현실은.**  
= 이번에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갈수록 그들의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한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빚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계를 보장받자고 시위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 앞에서 말했듯 이번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평화적 시위가 진행된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내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 공격받는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문제를 논함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이다. 이 용어를 둘러싸고 정치·경제적 논의가 다방면에서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곳곳에서 반대우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30년 개발성장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렇다면 소위 '자본의 세계화'로도 주장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기에, 아니 신자유주의는 왜 세상이 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20%의 부자들이 80%의 세계의 빈곤자들을 구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엄격히 말하면 구제가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계 경제 전체의 80%를 일명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이다. 그동안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이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비율을 통계로 살펴보면 미국 대기업들을 필두로 선진국 자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20대 80의 사

회로 세계가 재편된다 보면 결국 80%의 사람들은 20%의 지배력에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의존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인해 국가 권력과 충돌하고 있다. 아시아의 몸살은 이런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가 내뿜는 재제기에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가난을 일정하게 극복하지 못

### 다국적 기업의 세계지배 20대 80의 사회로 재편

한 조건에서 물질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자본 중심의 사회화가 사회의 균등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경제·문화가 모든 것이 이윤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된다면 결국 인간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 아니 건전한 비판과 상식적 잣대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특히 사회발전 과정에서 그들에 가

리워질 수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나 인권은 파묻혀 버리기 십상이고 그들의 주장은 설 땅이 없다. 심한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억압이 많은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의 담보와 인권이 신음하는 불안정한 체제로 남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일정한 성과마저 흔들 수 있다. 한 예로 최근 캐나다 퀘벡에서 시민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그 도시에서 볼 수 없던 유례없는 경찰들의 폭력과 충돌해야 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대우차 해고 노동자들의 4월 10일 폭력진압 양상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된다. 대우차 문제 해결방식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떠나 소수자들의 인권과 저항권은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은 결국 벼랑 끝에서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심각한 지경의 불안정한 체제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본의 세계화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 이상 신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이다.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정책위원장

소나기

지하철에 부는 '발암' 바람



△무도회장은 '츄비립', 지하철에는 '발암비립'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었군~  
△나는 암보험 들었지~  
△담배 피면 그런 걱정 없지롱~  
△석면 물에 불으면 사람이야  
△석면이란? 화재를 방지하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유리섬유지요  
△정부가 그렇지 모... 우째...  
△똥, 한번 죽지 두 번 죽냐? 사나이는 강이다!  
△숨 안쉬고 다닌지 언~ 3년  
△원래 우리나라는 들쳐보면 정상적인 게 없어!  
△석면? 라면? 먹으면 맛있냐?  
△방독면을 휴대하자, 그러자~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 발전을 믿습니다.  
암을 정복하는 그 날까지 ㅋㅋㅋ  
△석면이 어디서? 맛있기만 하구만...  
△지하철 타야하는 보통사람들은 애고고,  
고급차 끄는 높은 사람들은 에어컨도 빵빵.  
△그냥 빨랑 죽지워, 짹난것도 없는데...  
△총무로써 표창을 공짜로 해준다면... 용서...  
아침에 600원 저녁에 600원이면 히히~  
용서해주지,  
△명동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되지!  
△동대입구역만 간다.  
△완전히 새웠스~ 으 싫다. 빨리 고쳐줘~  
△입구에서 방독면을 빌려줘라.  
△E.T. 외계인의 음모. 지구인들이여 조심!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  
매일 매일 오고가는 총무로써 석면가루가  
떠다닌다는 생각을 하니...  
△석면가루 반죽돼요?  
△5분동안 숨참기 연습합시다.  
△먹어도 별 상관없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발암!  
△경주엔 지하철 없어. 그럼 암 안걸리냐?  
△한번 박힌 석면 평생간다.  
△석면으로 생긴 암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황사바람도 아닌 발암바람  
이제 벗어나고 싶다.  
△석면가루를 마시느니 굶어죽는 편이 낫겠다.  
△빠르고 편리한 만큼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  
다면 차라리 도보하는 옛날이 그립다.  
△지하철... 죽음의 터널인가?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겠길래...  
무서운 세상이야~

오늘의 글

김세봉 (불문대 불교3)

불편한 몸으로 사랑 베푸는 주인공

“불교정신으로 이웃 돕고 살고 싶어요”

“봉사활동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라며 봉사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김세봉(불문대 불교3)양.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 탓인지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이로 인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봉사가 자칫 미화되자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녀는 입학 전, 한 사찰에서 일하며 사회봉사와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방학과 학기 중 틈틈이 복지관과 병원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내 법당에서 일을 돕고,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준비도 도와 주면서 김양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

아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김양은 “한 아이가 철자를 틀러가며 서툰 솜씨로 쓴 감사편지를 받고 감동했어요”라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장애로 인해 사람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꾸준히 해오던 이 일이 어느새 7백시간을 훌쩍 넘기게 됐다. 그래도 그녀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모두한 가족처럼 여겨주는 직원들 덕분에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편하게 지냈으며 겸손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김세봉양은 “이후 전공을 살려



불교를 정신적 바탕에 두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와 연계해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번쯤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되는 그녀. 각박한 삶 속에서도 진한 감동의 휴먼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보살도 있구나’하고 흐뭇해지는 웃음 속에서 그녀도 한 명의 보살로 남길 바래본다.

김남정 기자  
hanaby37@mail.dongguk.ac.kr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pc 통신 ID 하이텔 dgpress 니우누리 : 동대신문 천리안 : dgupress

전공결정제 재검토 필요

힘든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나는 모집단위 광역화 1세대로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얼마간은 즐거운 대학 생활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그때는 임시 경쟁보다 더 치열한 전공결정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전공결정은 문과대의 경우 2학기를 마친 후 각 전공 정원의 50%를, 3학기를 마친 후 100%를 선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전공결정제도가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내 주위에는 입학 전부터 전공을 결정하고 온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공 결정제도가 시간낭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전공결정제도는 학생들간의 과도한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끼리 서로 필기 노트 보여주기를 꺼리기도 하는 것은 이미 서로를 친구로 생각하기 보다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쟁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결국 모집단위 광역화는 신입생 때부터 학생들을 경쟁사회로 내모는 격이 돼버렸다.

뿐만아니라 성적순으로 전공결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 공부를 해야하는 것은 어찌구무 없는 일이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전공결정제도가 좀 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인태경 (문과대2)

교육환경 개선에 주길

매년 등록금 투쟁에서 '우리의 등록금은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가?'라는 말을 한다. 강의실마다 좁디좁은 책상과 더러운 칠판들, 제대로 된 휴식공간 하나 없는 사실이 이 말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낸 돈은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의 두집살림을 유지시키는데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캠퍼스는 교육환경개선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리들도 정당한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의 의무이자 학생이 누려야할 권리인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건물의 강의실마다 학생 체계에 맞는 깨끗한 책상과 의자

를 배치해 주고, 부족한 도서관 열람실과 도서자료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즉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화적 복지를 누리기 위해 멀티미디어실과 영상실을 늘려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적 복지도 교육환경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체육관 시설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렇듯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들을 가슴속에 품어버리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항상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어렵다. 하나씩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교내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생과 학교는 더욱 더 발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용혁 (관광대 관광경영학부2)

교내 환경조성에 붙여

요즘 들어서 날씨가 이상하리 만큼 더워지고 있다. 이때쯤이면 외래 사람들이 불상 앞으로 모여들어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분수대 주변으로 무리를 이루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과 함께

한여름의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던 불출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처음 분수대를 없애고 그 자리를 다른 구조물로 미화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구조물이 들어설까 많은 생각을 했다. 예상대로 학교는 조금 황당한 구조물인 코끼리상을 3개나 그 자리에 설치했다. 학교의 상징인 코끼리상이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지만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측은 분수대에 사람을 빠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이유와 다른 몇 가지 문제를 들면서 코끼리상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구조물을 변경하면서 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는 지 의문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인가? 그럼 학교의 주인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무의미해 졌다. 코끼리상은 그 자리에 들어섰고, 분수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분수대를 생각하면 아쉬울 뿐이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변화한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목마른 화단에 물을 주기 위해 돌아가는 스프링클러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 이제는 웃이 짓으면서도 좋았던 환경



(제1317호 4월 16일자)

새로운 정보 제공

지난 호 동대신문은 51주년 창간 기념호로 기념 특사와 설문조사 결과, 문화면 재조명 기사 등이 실려 특집호로 꾸며졌다. 그 중 설문조사는 다양한 형식의 그래픽포 조사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지만 조금은 난잡해 보였다. 하지만 언론개혁운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개혁운동에 관한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중매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텔레비전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다.

김영은 (인문대 영문3)

들이 기억 속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서운할 따름이다.

인덕근 (공과대 전기공과)

나태한 생활 반성해야

대학생이 된다는 설레임으로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다. 이제 어느 정도 대학생활에 적응했고 점점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생활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지만 벌써 이 모든 것이 나의 생활이 되어버렸다.

요즘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대학 생활도 많이 적응된 터라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너무 나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시험에서조차 예전의 다짐했던 마음가짐과 노력을 보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나태해져 버린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적응해 온 대학 생활이었던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단지 편하고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4년 뒤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내가 처음 가졌던 꿈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더도 말고 내가 입학한 3월에 가졌던 그 마음을 4년 동안 유지한다면, 아마도 졸업하는 그 날 환하게 웃으며 학교를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최규미 (법정대1)



동악광장

목격담

축하합니다

△5월 5일 창수 생일 축하한다.  
△사회학과 수진아, 생일 축하해! (4일)  
△정목오빠, 수현언니 축하해요. -누굴까?  
△박여경, 김수호 100일 축하합니다. -디미  
△영원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4.29)  
-출축는 보리 '00  
△신방과 환경미화 축하합니다. 깨끗한 과실 만드세요. -경영 '97 철호  
△용달아, 유진이랑 100일이라며? -CHM4th  
△기봉 누! 생일 축하해요. -4.29  
△원지야, 병철오빠랑 500일 축하해~  
이쁜 기다립 하구.  
△건수와 민수의 50일을 축하합니다.  
△2001.4.28 정보관리 CC 탄생!!  
라덕연('00) ♥ 이성희('01) FOREVER LOVE  
△해원아, 생일 정말 축하해. (5.4)  
△사회과학부 장민석(5.11), 김미공(5.25)  
Happy birthday to you!  
-너희를 사랑하는 이름 모를 소녀가  
△양영! 생일 축하해! -병현  
△구탁이형, 정훈언니~ 5월 8일 3년째 되는 날 진심으로 축하추카!! -하나  
△파소영 생일 축하해. -예송문창 '01동기들

△처녀비행 축하해여.  
바람소리 13기 파이팅~!! -멋진 선배  
△구희준(5.8) 배미경(5.11) 하민주(5.18)  
역사교육과!! 생일입니다!!!  
△고은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얼른  
멋진 남자친구 사귀어라.  
△선일이형 1년 되신거 축하해요.  
물의 사랑 영원하시길... 재원 the nowhere  
△홍동아리 27기 첫 CC 탄생!  
경환 ♥ 주는 축하합니다. 좋은 연인이 되길.  
△지교 '01 첫커플 탄생. 주순, 은희! 축하  
해. 앞으로 피해다녀. -지교 건열파  
△5월 2일! 국어교육과 01학번 김옥환 생  
일 축하해요. -국어교육과 일동  
△5월 8일, 9일~ 신숙아, 상원아 생일 진  
심으로 축하해! -민정  
△아미추어 야구부(LAE) 예선통과 추카추  
카!! 우승을 위하여 화이팅~ -쓰투

△사랑하는 F.O.D.E '01학번 동기들...  
우리 열심히 하자 Fighting!!  
△토토매 축구대회 불교대학 소모임 '축  
생축사'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이왕우 회장님 파이팅  
△민속국 연구회 탈 대창주체 정주영님  
열심히 해봐라!  
△AD.RUSH 5월 한달도 열심히... -우진  
△동국문화회 토토매 16강을 기원합니다.  
-'00 현  
△노동자대회 무사히 치뤘습니다.  
구조조정/정리하고 철퇴! 열심히 삼시다.  
-사범대 사회부장  
△KUSA 토토매 축구 16강을 기원합니다.  
한골만이라도...  
△손진사랑회 한상민! 군대 잘 갔다와라.  
△성규야~ 수신 좀 빠지지마!!

-지·교 00 천선아  
△지리교육과 4학년 선배님들 교육실습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교 00  
△동국건축 축구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회장

열심히합시다

△DUBS 파이팅!! 방송제 멋지게 해보자!  
-정대만  
△사과대 "예4모" 공부도 연에도 열심히  
하자. 솔로 탈출을 위해... -前 킥가  
△사과연 여러분, 창립제 열심히! 짹나  
게!!  
△사랑하는 F.O.D.E '01학번 동기들...  
우리 열심히 하자 Fighting!!  
△토토매 축구대회 불교대학 소모임 '축  
생축사'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송진이가  
△피네, 교생 잘 다녀와여. 모른다고 울지  
말고 축하해요. -이쁘니가  
△은진이언니, 생일 축하해요. -은·남  
△혜진아, 5월 5일 생일 축하해. -영선  
△현정아,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선배가  
△은정아, 생일 축하해 -원만오빠가  
△태희오빠~ 생일 축하해!  
(호호~ 오빠 생일은 5월 10일)  
△연희야 생일 축하해~!!(너의 21번째 생  
일...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짹짜!)  
△민아야!(가교00) 남자친구 생키 저 추카  
추카~ -누구게?

온방글

축하합니다

△5/10일 우리 2백일이예요. 축하해줘요.  
사랑해 자기~ -국사학과 은  
△혜령아, 생일 축하해! 뽀뽀~ -빠  
△몽련아, 생일 축하해. 5/18  
-혜진, 영선, 경아, 지여  
△뽕, 수진, 교생실습 잘 갔다와! 예비 선  
생님 된 것을 축하해! -from 은병, 약어  
△미리야~ 생일 축하해~~ 예쁜 간호사야  
되거라.  
△5월5일이 저랑 지은이랑 200일 되는 날  
이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사랑해 지은아!  
-송진이가  
△피네, 교생 잘 다녀와여. 모른다고 울지  
말고 축하해요. -이쁘니가  
△은진이언니, 생일 축하해요. -은·남  
△혜진아, 5월 5일 생일 축하해. -영선  
△현정아,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선배가  
△은정아, 생일 축하해 -원만오빠가  
△태희오빠~ 생일 축하해!  
(호호~ 오빠 생일은 5월 10일)  
△연희야 생일 축하해~!!(너의 21번째 생  
일...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짹짜!)  
△민아야!(가교00) 남자친구 생키 저 추카  
추카~ -누구게?

△정환아! 25번째 생일 축하해  
-솔로 똥친 친구. 돈  
△성애야! 22번째 생일 진짜루 축하해.  
그리고 요즘 행복해하는 네 모습 너무 보  
기 좋아. 계속 행복하길... -하~  
△자연대 미생물학 실험실. 일선언니, 영  
진언니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주영  
△식아! 600일 추가추카!  
△고교에 새로운 커를 탄생!! 추가합니다.  
L선배~& 배우나 후배~

수고하셨습니다

△4.30-MayDay 동국대 투쟁단 "으랏차차"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대구 5.1절  
투쟁을 경유하고 노동해방의 한걸음 나갑  
시다!  
-3판 학우  
△Newsweek 여러분 그 동안 시험 준비하  
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부장  
△인문대 학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대 연사처장

열심히합시다

△정보산학학과 Jara동아리 Copypaste, 다  
들 열심히해용!  
(총태, 한번만 더 안나오면 짜름!)  
△우리 개굴이랑 동굴이랑 교생 실습 열  
씨미하고 와~ -바라  
△동숙아! 인숙아! 열심히 좀 해라!!

△친구야~ 친구사이는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기다. 친구다 이야기~ -경상도 친구  
△나호선배. 밥 사줘서 고마워.  
△혜선아~!!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 많이  
아프다. 힘내고... 최근인도 잘 지내고 있  
을거야. 격정말고... 우리가 있잖아!~  
-친구가  
△은실이 대학에서 너 다시 만나서 반갑  
고, 언제 밖에서 만나자~ -민희  
△그대와 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기를  
발어오. 이런 힘들게 하지 않을께요.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영이가 그대에게 올리는 글  
△너에게 웬지 새로운 사람이 올 것 같다.  
친구야, 잘 됐을 좋겠다~ -너의 똥똥  
△은정, 경순, 수연아,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 미안하구나. 내맘은 그게 아닌데...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합시다

# 대우자동차 노조 시위

관점1

관점2

경찰의 노동자 폭행,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생각해 보자

노동자·전경 모두 희생자 무력진압 사태는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외침이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로 진입하려던 노동자들과 경찰간에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을 폭행한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잘못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들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만약 학생회 간부들이 학교측과 마찰을 빚어 건물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해 보자. 교직원들이 간부들을 감금하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일부 학생들은 나쁜 교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경찰은 분명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몇 달간 지속되는 오랜 시위에 시달리고, 자신들 바로 앞에서 얼굴에 짐을 뺏으며 "전경은 XXX같은 녀석들!" 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당시 노동자들은 경찰 10여명과 직원 1명을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 갖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현장에 있던 대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경찰을 폭행 없이 한쪽에 몰아만 놓았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할과상을 입고 부상당한 이들은 자해를 했던 소리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무방비의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진압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그 앞 뒤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찰만을 매도하며 자신들은 민주투사인양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작은 바깥에 있다면 알맹이는 숨긴 채 잘 포장된 껍데기만 보지 말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시위진압 사태에 대한 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운동단체들과 노동계의 반발은 당시 진압을 했던 전경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반발은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잘못된 구조조정, 정리해고와 이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권에는 작년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노조 폭력진압이후 계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시위에 강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 경찰의 수뇌부와 공안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태를 노동자 대 전경들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 생각한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전경들도 희생자일 수 있다.

미국의 나스닥지수 폭락과 함께 2년만에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무너지는가하면

달러 환율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1300원대로 치솟고 있어 제2의 경제 위기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다.

또한 300만을 넘는 신용불량자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노점상, 보험료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안감을 면치 못하는 서민들의 가계와는 대조적으로 IMF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외제차의 소비량을 보면 일련의 구조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2대 8을 넘어서 1대 9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구조조정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긴 셈이다.

다시 한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왜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옷통을 벗고 드러누울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김상현 (사법대 국어교육4)

주진원 (사법대 국어교육4)

서울캠 TEL 02)2260-3491~2 경주캠 TEL 054)770-2057~8 FAX 02)2279-1270 FAX 054)770-2057

◇ 특별기고 - '백두·한라회' 연합 체육대회를 다녀와서

## 탈북자와 함께한 통일기원 한마당

### 재미와 감동 선사한 친목 도모 자리... 사회동지 의식 느껴

지난달 22일 대운동장에서는 탈북자와 본교 북한학과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모임인 '백두·한라회' 연합체육대회가 있었다.

처음 마주한 사람들은 조금은 낯설어 하며 서먹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체육대회가 시작되면서 이내 가까워졌다. 대·내외의 1천여 탈북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속에 출범한 탈북자 친목봉사단체인 '백두·한라회'는 주요 언론사의 주목을 끌며 본교 북한학과와 여러 학생단체, '남북어깨동무 어린이돌기 운동본부' 등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그 첫발을 내딛었다.

처음으로 탈북 작가이자 군인 출신인 김성민씨가 '백두·한라회'라는 탈북자 친목 단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북한학과와 함께 체육대회를 한다며 준비작업에 들어갔을 때도 걱정은 걱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전준비모임을 진행하면서 대·내외의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탈북자들에



'백두·한라회' 회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남·북의 벽을 허물고 기뻐하는 모습.

대한 관심과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체육대회가 있던 날 운동장은 주요 언론사 취재단과 '백두·한라회'회원, 북한학과 학생들, '남북어깨동무 어린이돌기' 사람들로 금방 부산해졌다. 사무간사를 맡고 있는 조운영(국문4)씨가 '백두·한라회'출판 선언문을 낭독할 때 운동장은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계속해서 최대서 북한

학과 지도교수님과 회장인 김성민 씨의 소개인사가 이어졌으며 모두가 오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우리는 북한식 놀이인 '통일열차달리기'를 비롯해 릴레이, 줄다리기, 축구 등을 즐겼다. 비록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보다 크고 넓게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통일열차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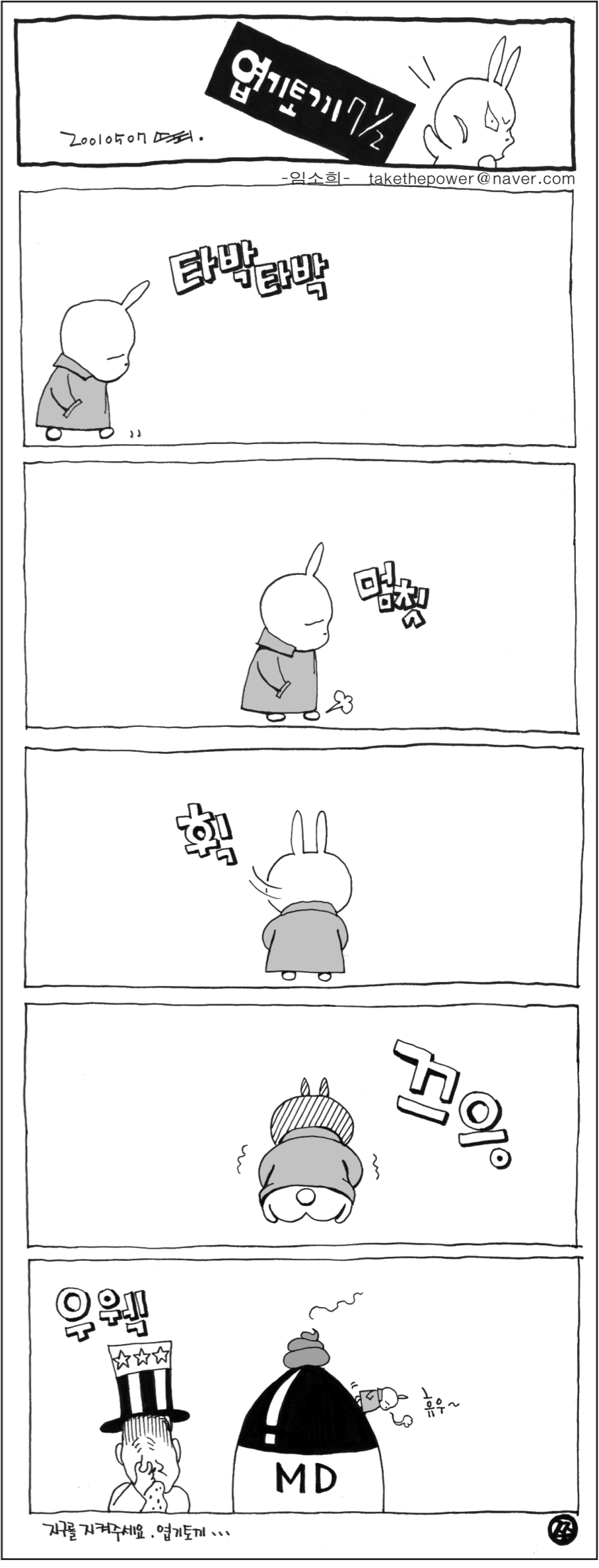
기'를 하기 위해 남북의 정체성을 잊은 채 어울려 서로 발을 묶은 사람들. 반환점을 향해 달리며 혹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발을 맞춰 달리는 모습은 재미와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고, 처음의 서먹서먹함과 어색함은 서로 합심해서 줄을 당기고, 공을 주고 받는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었다.

이 행사 취지는 우리와 함께 같은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친목 도모를 통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은 결코 한민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행사는 단순한 통일에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탈북자들과 그것을 받아 안으려는 사람들의 작은 만남이자 품었던 것이다.

이제 '백두·한라회'는 함께 하는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체육대회 내내 웃음을 머금은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과 통일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다.

체육대회를 통해 만난 탈북자들은 결코 먼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한민족 한핏줄이었다.

윤원규 (사과대 북한3)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계절제)

- 모집과정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1년 과정)
- 모집인원 : 초등과정 30명, 중등과정 30명
- 지원자격
  - 가. 초·중등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교육전문직 포함)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종사자
  - 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형일정
 

지원서류 및 접수처	교부 기간	접수 기간	전형 일시
교육대학원 교학부	2001년. 5. 7 ~ 5. 16	2001년. 5. 14 ~ 5. 16	2000. 5. 19(토) 14:00

  - \* 토. 일요일 및 5.8(화)은 90주년기념학술관 수위실에서 교부
  -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시 전형료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을 발급 받아 지원서와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 각 1부
  - 1)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여권용 사진 3매 부착)
  - 2) 경력증명서 (교육청발행, 교직 총 경력 기재)
  - 3) 재직학교장 추천서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특 전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수여, 기본 강의교재 무상지급
- 기 타
  - 1) 전 형 료 : 30,000 (원시대 : 무료)
  - 2) 수업기간 :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한 계절제 수업

구 분	하 계	동 계
수업기간 (예정)	2001. 7. 23(월) ~ 8. 17(금)	2002. 1. 7(월) ~ 1. 31(금)
- 문 의 처
  - 1) 교육대학원 교학부 TEL: (02) 2260-3109, 3110, FAX: 2260-3111
  - 2) 홈페이지 : http://www.dgu.ac.kr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재직학교장 추천서 양식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모집안내를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하계 해외 자매대학 학술문화연수

- 행 사 명 : 2001학년도 동국대학교와 일본 사포로학원대학간 학생 학술문화연수
- 연수형태
 

구분	연수기간	연수담당대학	연수단	비고
참가	2001. 7. 2(월) ~ 7. 8(일) 1주	사포로학원대학	학생 10명 + 인솔자	인솔자는 추후결정
추위	2001. 9. 10(월) ~ 9. 16(일) 1주 예정	본교	"	"
- 주요 연수내용 (세부 연수프로그램 추후 통보)
  - 가. 사용언어를 영어 위주로 하는 학생 교류
  - 나. 상대국(대학) 체류기간 중의 일정기간 홈스테이(Homestay)를 통한 실생활 체험
  - 다. 세미나, 토론수업 등의 정규수업 참가
  - 라. 양국 명소 관광 등의 문화탐방
- 연수경비 :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1인당 ₩300,000 학교지원
 

구분	금액	비고
왕복항공료	₩454,800	그룹요금
숙박비	₩252,950	호텔 3박
기타 개인경비	₩200,000	식비 포함
소 계	₩907,750	
	- ₩300,000	* 연수생 1인당 학교 지원액
실질부담액	₩607,750	

  - \* 상기 경비는 2000년도 기준이며, 환율 및 현지사정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가. 현재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3학기~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이 3.0 이상이고 나. 영어회화가 가능하며
  - 다. 본교측 주최시(9. 10(월) ~ 9. 16(일)), Homestay 제공 등 본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자
-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학술문화연수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모집일정
  - 가. 원서 교부·접수 : 5. 10(목)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접수
  - 나. 면접 : 2001. 5. 11(금) 14:00 ~ , 국제교류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 하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 연수기간 : 2001. 7. 2(월) ~ 8. 12(일) (6주) 【중국 : 7. 2(월), 귀국 : 8. 12(일)】
- 연수기관 : 중국 상해사범대학
- 연수인원 : 제한없음
- 연수내용 : 외국인인을 위한 중국어학습
- 연수경비 : 자비부담 (1인당 기준)
 

구분	경비	비고 (1인당)
등록비	\$20	
수업료	\$405	6주 기준
기숙사비	\$5.5	1일(2인1실) 기준
식비	\$5	1일(3식) 기준
기타경비	별도	왕복항공료 주말여행비 青浦(1일) \$35 蘇州(1일) \$50 杭州(2일) \$130 南京(2일) \$130
- 학점인정 : 「해외 중국어연수」학점 (학부과정 재학생에 한함)
-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재학증명서 1부
  - 다. 중국 상해사범대학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 교부·접수 : 5. 10(목)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 짧은소식

####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본사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 주최하는 '제39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을 모집한다.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콩쿠르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선별, 오는 26일 본교에서 열릴 예정인 백일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오는 9일까지 시·시조, 소설, 수필의 3부문에 걸쳐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dgupress.dongguk.ac.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의 2260-3491, 3423

#### 그리고...그림 전시회

서울권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이 정기 전시회를 연다. 왜 그리는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탄탄한 기초공부를 통해 준비해온 이번 전시회는 이화반 신입생들의 작품 위주로 구성되어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리고...그림' 회원이 직접 디자인한 전시회 포스터 역시 또 하나의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오늘(7일)부터 12일까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지하2층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011-9895-5359 (박원석)

#### 국악과 연주회

경주캠 국악과가 2001학년도 '신입생 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깨달음을 향한 일곱 번째 소리향연으로 가야금 연주에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미가 묻어난다.

특히 '침향부'는 동양과 서양의 공통된 원시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화합과 기량이 발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9일 오후 5시, 원효관 소강당 II에서. 문의 (054)770-2509

#### 소낙비 영화극

경주캠 영화모임 소낙비가 '2001 입석 대동 영화극'을 발한다.

오는 10, 11일 이틀간 원효관 소강당 I에서 진행될 이번 영화마당에서는 소재와 형식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입석수, 로우에 감독의 대표작이 소개된다.

또한 고전 공포영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엑소시스트' 원작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54)770-2766

	10일	11일
1시	엑소시스트	눈물
3시	칼리토	수주

# 인터넷내용등급제, 어쩌라구 어?!

## 청소년 보호 명목 ... 또 다른 권력 구조화 장치로

20대 남녀가 극약을 마시고 동반 자살을 했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오프 라인 상에서 다시 만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목포에서 10대 여학생을 포함, 3명이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9명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살했다.

- 세계일보 4월 9일자 -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의 자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은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그들의 죽음이 모두 자살 사이트의 탓인 양 떠들어댔고 정작 사람들은 '왜' 그들이 자살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지난달 26일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정부와 경찰이 불건정하다고 지정한 10만8천 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전국 PC방 내에 명시하도록 한 것과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선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던 통신질서확립법은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정만을 거친 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때 가장 논란을 빚었던 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였으나 시민, 사회단체의 계속되는 항의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못이겨 유보 조치되었다. 하지만 정

부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될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령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하는 조항을 넣어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본교 사회학과 박찬용 교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가가 셀 수 없이 많은 사이트를 검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실제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대한 인터넷의 바다에 국경선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루에도 수십 만개씩 생겨나는 사이트들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일종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불건정 사이트 목록들은 마치 군부 독재 시절 불온 서적 목록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상의 검열을 뜻하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명목상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해도

인터넷상에서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70·80년대 사회 통제와 다를 없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런 면에서 현실의 모순을 숨기고 인터넷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모든 참가자가 현수교형 대형 무대장치를 공동 활용하는 양식으로 공연에 총의의 신기원을 얻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의이다.

공연을 기획한 김재현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처"라며 "함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분단 극복 의지를 널리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통일을 그리는 것은 무대 위뿐만 아니다. 지난달에 '통일'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가진 소행성이 최초로 탄생한 것이다. 소행성 발견자인 이태행(37)씨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담아 국제천문연맹(IAU)에 '통일'이라는 이름을 제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남측의 통일 열망과 달리 북측은 지난 3월 13일 열릴 예정이던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난달 23일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기로 한 남북 합의를 파기하는 등 남북의 교류를 소강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 민족은 긴 시간을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왔다. 그 세월 동안 분단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마저 잊게 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이제는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이루어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에 가야 하지 않을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함께 할 그날 위한 귀향의 서시

### 분단의 고통 ... 통일 의지 담아 푸는 민족춤제전



한상근과 춤패 아홉.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살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시인은 그의 시 '향수'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안식처로 살아 있는 고향을 노래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꿈엔들 잊지 못할, 그러나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분

단의 아픔을 짊어지고 반 백년을 살아온 이산가족들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춤위원회는 이런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안으며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민족춤제전 '분단2세기 평화천사 종횡무진'을 무대에 올린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이번 민족춤제전은 5개국 9개 단체가 분단 생이별의 고통을 4부작 음니버스로 구성하여 공연한다.

지난 88년 12월에 출범한 민족춤위원회는 94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민족춤제전을 열어 여성·환경·정보사회 등 현대사회의 주요현안을 춤이라는 예술의 형태를 빌어 다루었다. 이번 주제인 분단2세기 역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우리가 현재 당면한 최대과제인 민족 분단의 해법은 문제들을 신명나는 춤판으로 풀어보자는 뜻을 담아 마련한 것이다.

4일 동안 1부 생이별, 2부 상실, 3부 귀향1, 4부 귀향2 순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통일을 향한 열망 외에 또 하나의 분단 국가였던 베트남 국립무용단과 재중·제일 동포무용단들이 공연하는 무대

### 달하나 천강에

## 야누스의 얼굴



주재훈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1876년 전화를 발명하여 특허를 등록한 그레햄 벨이 오늘날 전화의 역할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화는 주로 송신자 측에 주도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보니 수신자는 장난전화와 폭력전화로 시달림을 받게 되고, 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전화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다. 바로 국내에서 올 4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폭력 및 장난전화 예방효과가 있고, 부재중 전화의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며, 편리성과 사생활 보호 해택까지 제공한다. 바야흐로 송신자 주도 시대에서 수신자 보호 시대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식 교환기와 반전자교환기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우려와 요금 인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신자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정면 한 그릇을 배달주문 할 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민해야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오늘날 고객 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회원등록정보와 쿠키(cookies)를 이용한 홈페이지 방문 정보가 악용되어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와 더불어 화상전화 서비스,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수신자인 동시에 송신자이기도 한 우리는 감시 받는 사회에서 생활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선택한 우리는 그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는 한편 감시능력이 보다 강화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항상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잠재 영향으로 인해 사회의 문명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문화와 규범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에서 기술의 전과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뜻하지 않는 요소가 영향을 주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로운 혁신과 기술이 사회에 정립되면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다. 현재 통신서비스업체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자는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주고받음의 틀 바꾸기 속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생활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해 가고 있다.

### 매체비평

#### 광고 편

#### 빨간통 패니아

“여성과 남성 가르기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사회의 구성원임이 중요”



성전환한 모델이 등장해 화제를 모은 '빨간통 패니아' 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카피를 내건 도도화장품의 '빨간통 패니아' 광고는 독특한 진실을 카피로 위장한 채 전파를 탔다.

높은 의자에 앉아 가느다란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웃는 모양새나 살짝 꼬아 포갠 다리, 하이 옥타브의 웃음소리를 내는 모델. 분명 여성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그녀의 여성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드러내는 여성성보다는 숨겨져 있는 남성성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바로 빨간통 패니아의 모델 하리수가 성전환 여성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였다.

물론 광고주도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을 것이다.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하리수가 더욱 군침도는 모델이었을 게다.

성전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하리수가 화장품 모델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니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도화장품은 광고 카피를 통해 하리수의 성전

환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려 했다. 성전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진짜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가 빨간통 패니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느냐가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은 광고 속 제품을 드러내기 보다는 성전환 여성 '하리수'만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아마 언론의 폭로로 인해 커밍아웃한 홍석천과 달리 당당하게 자기의 비주류적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으리라. 그리고 그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녀의 성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호기심'이 더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리수는 신체적인 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 심한 부조화를 이루는 '성전환'을 느끼는 '성전환자'로 주류의 세계에 거리낌없이 등장했

다. 우리 사회 주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오와 천대의 대상으로 왜곡된 대접을 받아온 이들 속의 하리수가 주류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뒷통수를 강타한 것이다. 그것도 여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광고를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빨간통 패니아 광고는 더욱 의미있다. "홍약법이나 파렴치법도 아닌데 그보다 더한 대접을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다"고 한 스포츠 신문에서 밝힌 그녀의 말처럼 왜곡된 생각이 진실이라 믿고 있는 주류들에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시작고리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동성애 관련 방송을 다루거나 해태음료의 '티

(Tea)'처럼 동성애를 암시하는 광고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이들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의 소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길을 빨간통 패니아 광고가 열었다. 상업적 목적으로 하리수를 기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주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떳떳이 고개 들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하리수가 서 있다.

아직은 광고의 성과나 그녀의 힘은 미약할 지 모르나 주류의 왜곡에 맞서는 당당함에 박수를 보낸다.

표은영 문화부장  
pisik20@dongguk.edu

# 우물 안 개릭터, 세계 향해 점프!

## 개성넘치는 아이디어 · 전략으로 해외 진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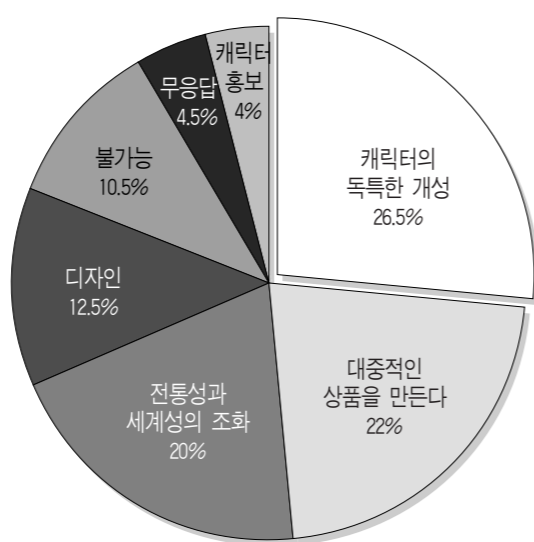
#### 편집자

그동안 국내 개릭터 시장은 해외 개릭터가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티', '푸우', '미키마우스'에서 최근 '부르부르 도그'와 '타라팬더'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과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마시마로(엽기토끼)'를 필두로 한 '졸라맨', '빨강머리 앤', '우비스년' 등 국내 창작 개릭터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다. 그간 '태권V'와 '돌리'가 외로이 지켜오던 국내 개릭터 시장에 단비를 내리고 있는 국내 창작 개릭터.

이들 무리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서 먼저 소개된 후 그 인지도를 통해 차츰 인기를 얻는 형태로 네티즌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릭터의 인기를 힘입어 각종 개릭터 상품으로 출시, 해외 개릭터들이 장악한 시장 흐름을 국내 개릭터 판도로 바꿔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 분위기에 따라 본사 문화부는 지난 2, 3일 양일에 걸쳐 본교 학생 200명(서울캠 130명, 경주캠 70명)을 대상으로 개릭터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선호하는 개릭터와 개릭터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내 개릭터 산업의 장·단점과 우리 전통 개릭터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우리 전통 개릭터의 경쟁력 확보위해 고려할 사항

본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릭터가 최근 인기 급상승중인 '마시마로(엽기토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72명(36%)이 좋아한다고 대답한 마시마로는 김재민 씨가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네티즌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2위 개릭터는 '푸우'로 전체학생의 21명(10.5%)이 응답했다. 그러나 1위인 마시마로와 달리 2위부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개릭터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남학생의 경우 100

명중 16명이 '졸라맨'을 선택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100명중 12명이 '푸우'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개릭터 선호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졸라맨 20명(10%), 키티 16명(8%), 부르부르 도그 11명(5.5%) 순으로 개릭터 선호도가 조사됐다.

한편 위에서 선택한 개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학생의 88명(44%)이 '내 취향에 맞아서'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귀여워서'라고 응답한 학생 역시 전체 61명(30.5%)으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는 개릭터의 선택에 있어 전체 학생의 94명(47%)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개릭터 자체의 독특한 특징이나 개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볼 때,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개릭터 자체에서도 개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발달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창작 개릭터를 상품화할 경우 구입여부를 묻는 문항에 전체 학생의 151명(75.5%)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시마로의 영향력과 더불어 최근 국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선보이는 개릭터들의 개성이나 특징이 뚜렷해 새롭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는 점점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 개릭터 산업의 향방도 얼마나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전통+개성+창의=해외경쟁력

신라시대의 '토용'들은 한결같이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 태극무늬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새천년의 미소'는 우리 역사와 함께 천년을 이어 내려왔다. 바로 우리 민족의 절제된 웃음을 형상화하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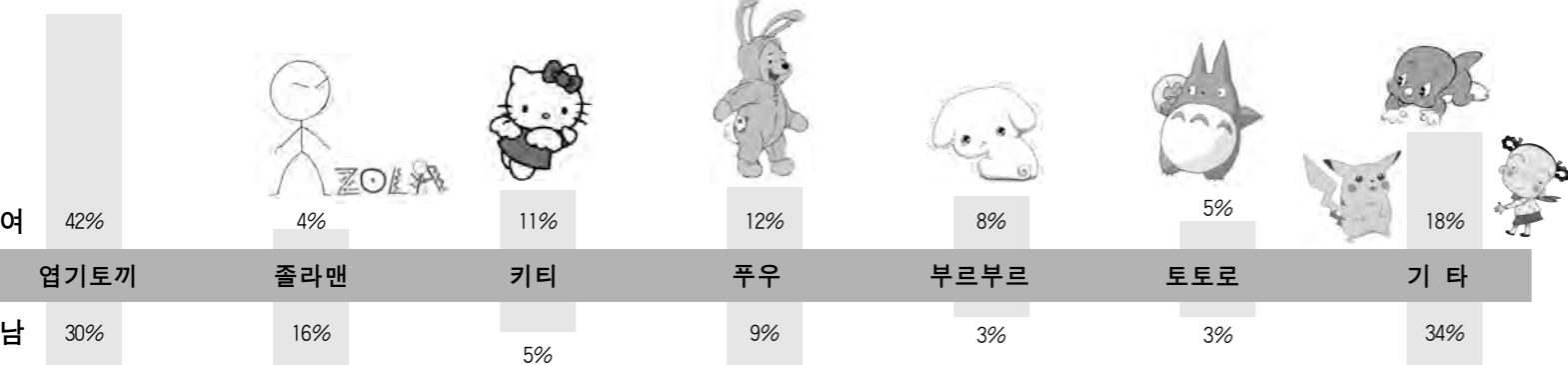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전통 개릭터들은 외국의 그것과 겨룰 힘이 부족한 상태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고유 역사와 정서를 부각시킨 개릭터가 세계 시장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본교 학생들 역시 우리 전통 개릭터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통 개릭터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통성과 국제성의 조화'를 이루는 개릭터 개발이 시급함을 손꼽았다.

그간 이러한 시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동 '하회탈'은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가장 한국적인 얼굴로서 얼굴 전체는 부드러운 곡선 주름으로 가득하고, 표정에는 생동감과 여유가 넘쳐난다. 하회탈은 그 자체가 훌륭한 조각 미술품인 동시에 살아있는 한국인의 모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잔잔하면서 편안한 인상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 개릭터로 자리잡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옛날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했던 호랑이는 88세를 올린 미스코트 '호돌이'로 세계 속에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 개릭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리고 금동대항로와 나비의 이미지를 결합한 왕관모양의 '백제넷'이나 예로부터 신성시 여겨졌던 십장생과 장승도 우리 전통을 살린 개릭터로 재구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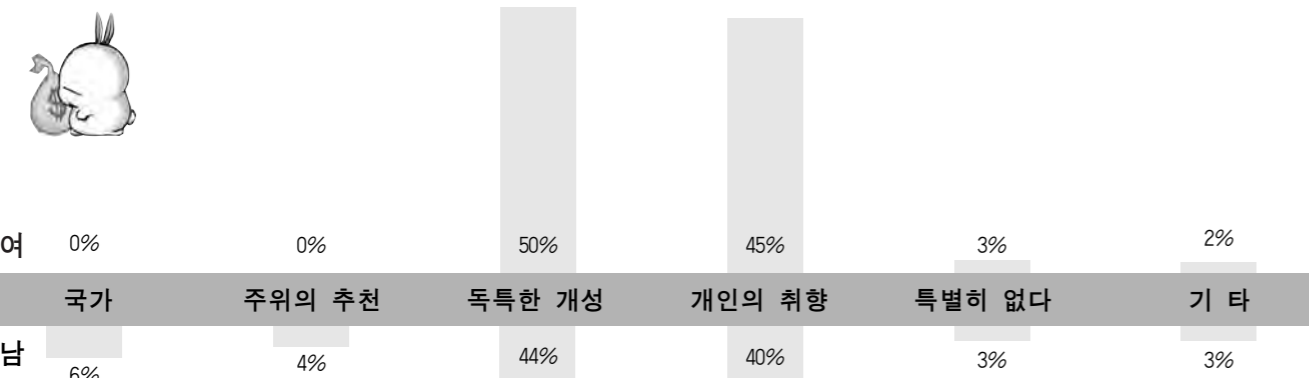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 전통 개릭터산업은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 것 없는 개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릭터 산업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 개릭터에도 작은 희망을 걸 수 있다. 우선 새로운 개릭터가 속속 등장하면서 외국 개릭터에 뒤처지지 않는 개릭터가 창조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개성없고, 해외 개릭터 모방에 급급하던 국내 개릭터 시장의 병폐를 벗어난 반기운 시도로 할 수 있다. 본교 학생들 역시 '창의적인 개릭터의 등장'이 전통 개릭터의 해외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충기(관광경영학) 교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개릭터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나라 전통 개릭터의 특징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다면 세계시장을 주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개릭터 산업은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 '골목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처럼 개릭터 산업 역시 그 속에 끊임없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성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적 특징과 정서를 담은 전통 개릭터 개발은 우리 나라를 알리고 동시에 우리 5천년 역사를 증명하고 세계 속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가장 좋아하는 개릭터



캐릭터 상품 선택시 우선 고려하는 것



젊음의 거리면 어디에서나 세계 각국 개릭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개릭터 숲을 만날 수 있다.

### 메아리

#### 관객 = 시다바리

▲부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거친 남자들의 진득한 우정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소복자가 내뿜는 안개 속을 풍아라 쫓아 달리던 아이들은 어느새 점점 교복을 걸렁하게 차려입고 골목길을 질주한다.

결죽한 부산 사투리가 힘을 더하는 영화 '친구'는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아련한 '추억'의 섬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향수가 묻어있는 것도 잠시, 친구에게는 '나는 너처럼 살고, 나는 너처럼

살아야' 하는 '어둠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38회 대중영화제 시상식은 신·구 갈등을 겪어왔던 한국영화인협회와 영화인회회가 일시적으로 화합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동안 티격태격해온 두 세력의 기본 좋은 만남은 한국 영화계에 더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미 한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했던 임상수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부터 시작된 해프닝은 영화 '하루'가 여우주연·조연상,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을 휩쓴 '이변'을 토해내자 질타와 비난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역시 대중상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단심제는 허울좋은 겉데기에 불과했다. 일찌감치 '친구'는 연로하신 심사위원 나리들께 상투성과 폭력성이 짙은 영화로 낙인찍혀 버렸다. 더욱이 두 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힘 대결은 미흡

한 영화제 규정과 더불어 대중상 심사에 숨겨져 있던 비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순진한 관객들은 대중상 심사위원들의 편서움에 휘둘린 셈이다.

▲흔히 개봉작을 내놓은 영화관계자들은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린다'며 겸손을 띤다. 그러나 정작 대중상 시상식에서 나타난 것은 관객을 무시해버린 결과였다. 대중상은 관객을 떠나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친구'와

'관객'은 대중상의 '시다바리'가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를 터뜨린다. 그리고 '대중아! 이제 너는 내대로 주라, 나는 내대로 흥행하꾸마(?)'라고 대중상을 향해 어둠의 법칙을 되갚아 준다.

이제 대중영화제는 변화해야 한다. 부디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눈과 귀를 외면하지 말아라!

김지혜 문화부장  
wisdom@mail.dongguk.ac.kr

책소식

동남아시아의 불교 수용과 전개



이시이 요네오 교수의 7명의 필자들이 동남아시아 현지 생활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을 본고 박경준 교수가 번역한 책.

약 1억인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대 불교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동남아시아 사람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생생한 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시이 요네오 저/ 박경준 역/ 불교시대사/ 정가 7천원.

T.S.엘리엇 인간과 문학



20세기 시 해설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시인 엘리엇의 생애와 작품을 본고 이창배 명예교수가 연구해 묶었다.

시인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와 극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 엘리엇 시의 주제와 기교, 그의 사상까지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파고든다. 이창배 저/ 동국대학교 출판부/ 정가 2만원.

지장경 강의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험한 삶을 살아가려는 지장보살의 메시지를 담은 지장경을 강론 형식으로 풀



어놓았다.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방편법문 가운데 하나인 지장경은 지혜의 눈을 뜨고 삶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수차례 강의한 필자의 경험을 통해 지장경 원문과 해석을 생동감 넘치게 엮었다.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모든 대륙과 주요 도시의 거리에서 반란이 있었던 1968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세분화해 당시의 사건들을 안내한다. 반란을 통해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68년의 희망을 보고, 그러한 반란자들을 거리로 내본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실제 관련사진과 더불어 느끼게 한다. 타리크 알리·수잔 왓킨스 저/ 안찬수·강정석 역/ 심인/ 정가 1만3천원.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1980년 1월 초판 발행 시 계엄정부에 의해 판매 금지되었던 책을 20여 년이 지나 재발간해 더욱 뜻깊다. 하루 20시간 일하면서도 부모와 이웃 앞에서는 구김이 없었던 10대 노동자들의 고달픈 일기와 생활 고백 형식으로 엮어 가식없이 표현한다.

한윤수 편/ 책소리/ 정가 7천8백원.

님은 남이지만



불교적 소재들을 이용해 참된 나를 찾는 길과 재성을 위한 소멸, 타락해 가는 종교상을 시로 그려낸다. 찬불가 '석가여래 오시있네' 찬불동요 '연등불' 등을 작사해 온 저자의 색이 시집을 통해 그대로 묻어난다. 진진옥 저/ 대한/ 정가 6천원.

지혜와 성공의 투자학



물리학, 사회과학, 심리학 속에서 투자와 지장의 논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투자와 아무 관련없어 보이는 기본 진리로부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식과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로버트 헤그스트롬 저/ 석가용 역/ 이클리오/ 정가 1만2천원.

백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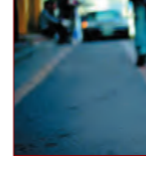


8·15해방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비망록 형태의 장편대하소설. 자연의 섭리를 인류 사회에 구현시킬 수 있는 이념은 '홍익인간' 뿐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며, 해방이

후 남북모습과 그 관계에 대해 풀어내었다. 전 12권 중 1차로 3권이 먼저 간행되었다. 고광보 저/ 학광당/ 정가 각 9천원.

콘서트소식

천지인



락으로 사람과 혁명을 노래하는 '천지인'이 3집 앨범 '의논박이' 출반을 기념해 콘

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우리 스스로 만든 타성의 벽을 허물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를 담은 '천지인'의 3집 수록곡 전부를 들을 수 있다. 7시30분(11일)/6시30분(12일)/3시30분·6시30분(13일). 흥대 앞 씨름 스페이스 바람에서. 문의 338-5424

공연소식

환생구역



극단 반딧불이가 천사들과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환생구역'을 공연한다. 술 마시고, 화내고, 질투하는 인간적인 천사와 천국에 가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휴머니즘을 보여준다. 오는 10일부터 6월10일까지. 7시30분(화)

목)/4시30분·7시30분(금·토)/3시·6시(일·공휴일)/월 휴. 대학로 소극장 아리랑에서. 문의 764-8760

지하철 1호선



극단 학전이 락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무대에 올린다. 사람을 찾아 서울에 온 연변처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한다.

공연 내내 영어·독일이 자막을 제공, 외국인 관람도 가능하다. 6월17일까지. 7시30분(화-금)/4시·7시30분(토)/3시·7시(일·공휴일)/월 휴. 대학로 학전그린 소극장에서. 문의 763-8233

행사소식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



통일부가 '제20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작품을 모집한다. 대학생들의 통일 논의를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의 통일·북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응모만 가능하며 통일부 통일교육

원 교육지원과에서 접수한다. 문의 901-7021

트레서 모펫 사진전



경주 선재미술관이 호주 여성 사진작가 트레서모펫의 개인전을 통해 관객을 만난다. 성, 계급, 인종과 식민지 등 각자 반목하는 주제가 작가의 파인더 안에서 격렬한 긴장감을 띤 채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 사진과 비디오 작업이 모두 소개되는 이번 사진전은 트레서 모펫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7월 1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에서. 문의 (054) 740-1922

경주 문화기행



신라문화원이 경주 각지에 숨어있는 유적·유물을 소개하고 옛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남산 답사를 마련한다. 답사는 불교문화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삼남사 코스로 삼불사를 출발, 상선암을 경유하여 용장사터로 내려오게 된다. 자연속의 문화유산과 함께 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13일 오전 9시. 신라문화원 앞에서. 문의 (054) 774-1950

서울캠 교육봉사 동아리- '젊은새이웃'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그대에게

교육봉사,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배움과 가르침의 한마당



이름만큼 젊고 푸른 '젊은새이웃' 회원들.

'젊음'과 함께 사는 '이웃'의 정신이 만났다. 배움에 열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바로 학생회관 옥외 지하 1층에 위치한 교육봉사 동아리 '젊은새이웃'이 그들이다.

'공동하는 사회, 협동하는 사회, 책임을 다하는 사회, 위대한 사회, 우리는 이러한 사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신조로 지난 73년 만들어진 젊은새이웃은 지역사회 교육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단이 동아리의 전반적인 활동을 꾸려나가는 젊은새이웃은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젊은새이웃은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보육원 봉사활동과 농민학생연대활동, 청소년 야학 등 다방면에 걸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주 월요일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연세사회복지

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형편이나 부모님의 사정 등으로 연세사회복지관에 맡겨진 아동들은 젊은새이웃 회원들과 함께 교과 수업, 놀이 등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져 마음을 나누는 1:1학습 시간을 갖는다.

젊은새이웃 강정인(멀티미디어공학2) 회장은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손길만큼이나 애정도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교육봉사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 젊은새이웃은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한 '함마음 어린이 한마당'에 참여해 원활한 행사진행을 돕는 등 레크레이션 활동도 했다.

흔히들 요즘을 각박한 세상이라고 한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산재해 있는 반면 도움이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나눔들이 땀을 뚫는다'는 옛말처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젊은새이웃같은 작은 손길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좀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경주캠 - 멀티미디어실로 오봐!



복사기

경주캠 도서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멀티미디어실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다.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학생증 제시 후 자리를 배정 받고 사용하게 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2시간으로 시간제한을 두고있다.

주요 시설은 크게 △위성방송/비디오 코너 △멀티미디어 PC 코너 △오디오코너 △마이크로 자료 코너△멀티미디어 제작 코너 등 5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밖에도 스캐너, CD-Rewriter, 일한 번역기, 각종 자료 등이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다.

모든 자료는 실내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업교재나 교내 행사에 활용할 경우 '실외대출 신청서'를 작성 후 대출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 LCD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 역시 기자재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여 가능하다.

이곳의 모든 시설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프린트는 흑백 50원/칼라 2백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멀티미디어실 이용 도중 어려움은 상주하고 있는 조교에게 문의하고, 위성방송이나 자료목록을 비롯해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ediacenter.dongguk.ac.kr)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독자광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점음과 패기로 도전하세요 <서울캠 제12회 백상농구대회> 접수기간: 오는 9월까지 학생회관 1층에서 대회기간: 오는 9월부터 18일까지 대회장소: 관해광장 대회방식: 예선-3게임 안조 리그전 본선-토너먼트 \*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함.



사이코드라마란 자신이 가진 문제를 자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즉흥극으로 심리 치료 및 상담의 한 방법을 말합니다. 오는 10일(목) 오후 3시-6시, 경주캠 원호관 소강당 II 에서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심리극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참여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문의는 원호관 2층 학생상담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캠 수화 동아리 '손짓사랑회'입니다. 손짓사랑회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 지체 장애인들에게 해 이야기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이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화는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으나, 함께 나누는 사랑이 배가 되는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8일) 오전 9시30분까지 회비 1만원을 들고 사랑방으로 오세요!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nd Menu items with prices.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경주캠 고고미술사학과 최재후라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9시. 저와 함께 일 할 남학생 한 분을 찾습니다. 아르바이트비는 시간당 3천~5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둘째주까지 연락 주십시오. 문의 019-588-5071